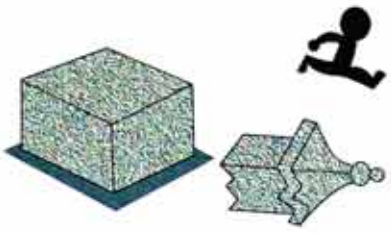
佛事 전념 20年
불교미술전시관
세심불사의 모든 것
책임 상담해 드립니다.
☎ 02)733-4800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2-152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10월 1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41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훼불 무대책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연례행사처럼 일어났던 사찰방화와 파괴, 김대복 소장 사주금 뇌물적용 재판 등 군내의 종교편향, 백령도 면장의 불교행사 방해 등 각급 기관의 종교편향 사례,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영생교 등의 불교왜곡 행위 등이 국민의 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특정 종교인들의 그릇된 신앙심에서 비롯된 훼불 행위는 다종교사회인 우리 사회의 근본질서를 두너뜨리는 행위로 사법당국에서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정신병자의 소행'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관대해 왔다.

경찰청은 지난 3월 조계종 포교원과 종교편향대책위를 방문, "헌법 제 20조(종교의 자유) 규정의 근본 취지에 입각하여 특정종교에 편향됨이 없이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사찰 화재 및 훼불, 도난 사건에 대한 예방과 범인검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끊임없는 훼불사건
제도적 방비책 절실

하지만 그동안 불교계는 수없이 많은 훼불사건을 겪었고, 수없이 많은 법당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불길에 휩싸였지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일이 별로 없었고, 범인이 체포된 일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무엇보다 경찰당국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력을 발휘해 사찰문화재 털이범 등 훼불행위자를 빠른 시간내에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 같은 선례를 쌓아가는 일도 더 이상의 범죄를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 조계종이 정부에 제출한 문화재 보호법을 속히 개정해 비지정 문화재들에 대한 관리의 철저와 도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종단도 종교편향대책위원회 등 관련 단체의 예산·인력 등을 현실에 맞게 늘려 각종 훼불 및 종교편향 사건에 대한 의지와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란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빠르면 11월중 재선거

조계종 총무원 · 종회 · 선관위 일정등 조율
정화회의 "종무인수후 선거" 맞서

조계종사태 해결방안이 총무원장 선거의 조속한 실시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고산스님이 5일 "종도들과 함께 백의종군하여 법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총무원장직 사퇴에 따라 총무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원택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종헌·종법에 따라 총무원장선거를 실시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종회와 논의해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장 법등)는 12일 144회 임시종회를 열어 총무원장선거법 등 총무원장선거 관련 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위원장 덕문)는 7일 회의를 열어 조속한 총무원장 선거 실시 방침을 정하고, 종회의 총무원장선거법 등의 개정 이후인 14일 다시 회의를 열어 선거 일정 등 선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11월중 새 총무원장이 뽑힐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은 "고산스님의 항소권 포기로 법원이 관결확정증명원을 발급했고, 이에대한 원고측의 이의제기를 각하했으므로 총무원장 직무대행 도견스님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총무원장직 사퇴로 공석 상태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무원장을 선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화개혁회의는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항소로 총무원장 직무대행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총무원측의 집행부는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법리논쟁 3면> 따라서 정화회의는 직무대행 집행부 구성과 총무행정 인수 절차를 먼저 밟은 후 총무원장선거를 치러 분규를 수습한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총무원장선거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정화회의를 사실상 이끌어온 원하스님은 "선거를 통해 총무원장을 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종정중심제를 시사하고 있어 이번 사태 해결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대다수 불자들은 지난 해와 같은 물리적 충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양측이 양보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정성운 · 김재경 기자
(swjung@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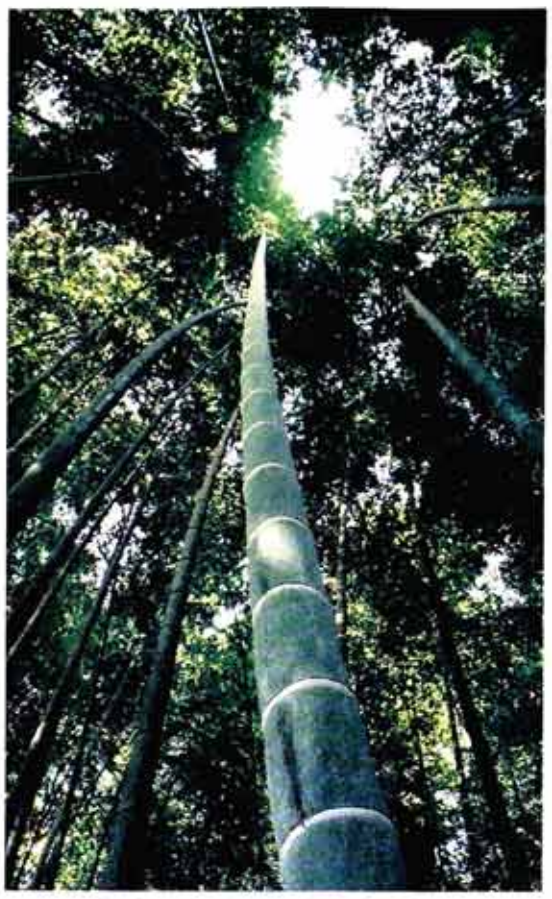
종단현안 · 선거법등 논의
12일 조계종 원로회의 · 종회 열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탄성)는 12일 회의를 열어 종단현안에 대한 대책과 종헌 개정안 인준을 논의한다.

중앙종회(의장 법등)도 12일부터 144회 임시종회를 열어 △종단 긴급 현안 대책의 건 △호계위원 선출의 건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호법부장 임명동의의 건 △종법제·개정안 의결의 건 등의 안건을 다룬다.

이번 종회에서는 특히 △해종행위조사특위법에 의한 피징계자들의 징계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정성운 기자



대나무처럼 곧은 신행을…

혜심스님은 '죽존자전(竹尊子傳)'이란 글에서 대나무를 두고 "날마다 감로(甘露)에 젖고, 때로는 범음(梵音)을 내니, 속세를 떠나 자연을 도우며, 큰 자비의 마음을 돕는다"고 하였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오른 대나무를 바라보며, 현대불교신문도 그렇게 곧게 뻗어 오르기를 기원하며 정진의 마음가짐을 다진다. 중생들을 향해 죽비의 소리를 울리니 댓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더욱 눈부시다.

전남 담양=고영배 기자

"조계종 정상화"촉구
종단협 8일 성명
회장대행에 인곡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4개 종단대표들은 8일 조계종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계종단 문제는 한국불교와 국가 전체의 문제"라며 "중생구제와 불국정토 구현에 앞장서는 종단으로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종단협의회는 또 "재판부가 한국불교의 대표자를 임명한 것은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단협의회는 이에 앞서 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고산스님의 조계종총무원장직 사퇴에 따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을 회장권한대행으로 선임했다. 종단협의회는 또 이날 주한타이 페이대표부에 지진피해복구성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일심동체하여 법통 수호하자"
조계종 혜암종정 교시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은 7일 "종도들은 일심동체하여 법통을 수호하라"고 교시를 발표했다. 다음은 교시 전문.

세상만사의 원형이정(元亨利貞, 사물의 근본이치)은 사필귀정이니 혹자혹위(或慈或威, 때에 따라 위엄과 자비로)로 종통수호하여 광도중생(廣度衆生, 널리 중생을 제도함) 할지어다.

금반 발생한 종단 마장은 승가발전의 좋은 기회이니 사부대중들은 환희극복하여 화발결실(花發結實, 꽃피어 열매를 맺음)토록 하라.

종단 발전이 국가 발전이니 종도들은 일심동체하여 법통수호와 호국불교의 사명감으로 불공중휘하고 국태민안토록 하라.

太虛花花猶無盡한데 地球小小規難兒이라
聖賢達士互相誇하니 塵微鏡中一笑影이로다.
텅빈 하늘은 아득하여 끝이 없는데
지구는 작고 작아 찾아볼 수 없네
성현군자들이 내 잘났다고 서로 뽐내니
현미경 속의 티끌만한 그림자로다.

창간 5주년 특집 28면 발행

불교 새천년준비 4 · 5 · 6면
메달로 나툰 고승들 10 · 11면
외국인이 본 불교언론 23면
현대불교 5년 24 · 25 · 26면

퇴행성 관절염 무료수술 해 드려요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5주년을 맞이하여 노스님과 노인불자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자들을 위한 무료 의료지원사업을 벌입니다. 동인천 가천의대 길병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의료지원사업은 노인이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퇴행성 관절염(무릎 엉덩이관절)에 대해 이수천원장이 직접 수술을 집도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불교 복지향상을 발원하는 이번 불자의료지원사업에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규모 : 1개월에 3명
- ◆지원대상 : 스님 ·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자
- ◆지원내용 :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관절으로 통증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 외견상 심하게 절뚝거리거나 다리가 휘어진 사람
- ◆구비서류 : 아픈 부위의 X-Ray 사진, 간략한 의료지원신청서(소정양식)
- ◆진료비 무료 : 외래 및 입원 수술비 전액 단 식대(1일 10,000원 안팎)만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본인 부담)
- ◆접수 : 현대불교신문사(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22-4162

공동주최 : 동인천 길병원 · 현대불교신문사

BBS 불교방송 후원회
불자 여러분의 정성과 애정어린 후원으로 불교방송 프로그램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 은행계좌 : 8003478 국민은행 : 827-25-0020-943
농 협 : 069-01-238223 외환은행 : 189-13-03929-3
예금주 : 불교방송
(우)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마포빌딩 (전화 : 02-705-5360~1)

10만 불자 정토결사 전진대회

"나무아미타불" 칭명염불선수행 (稱名念佛禪修行)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상상을 초월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서양 육대주 (東西洋 六大州) 구석구석 어디에서나 이 변혁에 살아 남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중생구제를 실천수행의 생명으로 하고 있는 불교는 지금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문하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 전국 신도회는 불교를 일으키고, 불교를 전하고, 중생을 구제하고, 허물어져 가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1차 10만불자정토결사(淨土結社)의 대작 불사"**를 정토사상으로 무장하여 출발하려 합니다.
불교를 진심으로 염려하시는 불자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말고 이 시대적 요청인 무량수 무량광한 아미타원력을 실천할 대장정에 모두 다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10만불자결사전진대회 일정 및 진행 방법

- ■일 시 : 10월 30일 오후 5시(입제) ~ 10월 31일 오후 2시(회향 법회)
  (정토결사 철야 정진 및 전국순회 결사 대법회 개최에 따른 대 토론회)
- ■장 소 : "봉화산 정토원 특실 법단"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TEL : (0525) 342-2991~2
- ■연락처 : (02) 732-7272~4, FAX (02) 732-7275
- ■동참금 : 이만원(₩20,000) 식대 및 회비 포함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3-01-0556-057 (사)전국신도회
- ■교통안내 : 10월 31일 서울 조계사앞에서 오전 7시 관광버스 출발 사전 신청요망.

사단법인 대한불교전국신도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02) 732-7272~4, FAX (02) 732-7275



● 전국신도회 주관 4 · 8 봉축 여의도 대법회 ●

호미든 관음개발성상 봉불식

40년전 31명의 젊은 불교학도들에 의하여 불교를 새롭게 일으켜 중생구제에 이바지하려고 추진 봉안하였던 호미든 관음개발성상 봉불은 혁신적인 불사였습니다.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관음상이 파불이 되어 새 천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4배의 크기(기단에서 약 12m)로 다시 조성하여 같은 장소에 봉안케 되었습니다.(사진참조)
이번에는 봉안 추진위원을 육바라밀을 상징하는 600명을 구성코자 하오며,
이 새로운 봉불식날에는 뜻있는 불자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불기 2543(1999)년 10월 31일 오후 2시
- ■장 소 : 김해시 진영읍 봉화산 특설 법단
- ■연락처 : 전화 (0525)342-2991~2 / (02)732-7272~4
  FAX (02)732-7275

(※30일 오후5시 "10만불자정토결사전진대회"시작, 31일 "청소년한마당축제" 개최)

1. 동참자격 : · 개인 - 본 불사 동참 희망자 · 단체 - 불교회원, 단체
2. 동참혜택 : · 희망자에 한하여 기념비석에 자기 성명이 삽입됨
   · 소구소망을 기원하는 뜻으로 부처님 복장에도 안치함.
3. 동참 연락처 : 봉화산 정토원 (0525)342-2991~2.

단기4332년(불기2543년 서기1999년) 10월

초청하는 사람 : 이한동, 박철언, 노무현, 김영일, 권오현, 강건기, 권영창, 김덕영, 김성호, 김양수, 김원공, 김지견, 박명석, 박은종, 박정암, 山田貢, 선진규, 안경우, 오덕규, 윤청광, 이봉구, 이하우, 이홍세, 전안호, 한정섭

교통안내

1. 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수시운행) : 서울-마산, 부산-마산
   (진영역 하차, 5km지점에 봉화산이 있으며, 당일 봉고차 20대 준비)

봉화산정토원 관음개발성상 봉안위원장 선진규 합장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3 (0525)342-2991~2



▲ 종교는 국경이 없으나 종교인은 국경이 있는 것이다
부정적인 요소를 전부 뽑아 내고 새로움의 불연(佛緣)을 심어 자비와 평화와 희망과 통일의 염원을 거두고자 하여 개발을 상징하는 우리스러움의 **'호미든 관음성상'**

. 40년전인 단기 4292(1959)년 4월 5일 관음산 봉안 당시 위원명단 .

선진규, 이봉구, 김지견, 이한종, 백종일, 신병구, 황연감, 김해동(동환), 박경호, 김백만, 김광영(영태), 이종복, 김정애, 김기업, 손영익, 김주태, 조재진, 김남식, 박원일, 김인덕, 최천호, 김두성, 최충열, 이재욱, 박동기, 강창순, 안영군(경우), 박광도, 최병주, 배종대, 김영기(31명)

창간 5주년 사 설

새천년 '정신의 새벽'을 열자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社是)로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5주년을 맞았다. 이제 한국종교계의 대표적 언론으로 자리하게 된 우리는 지난 5년이 불국토 실현에 대한 희망을 잉태한 기간이었음을 자부하며 그 전망에 또한 자신감을 갖는다.

불교는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종교다. 무엇보다 타력이 아닌 각 개인의 자력에 의한 수행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책임에 무게를 두며 인간정신의 미신화와 비지성화를 경계한다.

생활속에서의 수행과 실천. 이를 떠나있는 불교라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올바로 실현하고 있다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불교의 생활화'를 첫번째 성성(惺惺)한 공안(公案)으로 세우게 되는 이유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쉽고 간단하다. 첫째 내 안에 감추어진 불성을 찾아내어 그것을 생활화하라는 것이다. 불성은 팔정도(八正道), 즉 올바름(正)에도 있으며 계정혜 삼학에도 있다. 육바라밀의 실천이 그 올바름을 증거하게 해 준다. 모든 불자들이 생활속에 올바름을 실천해 나간다면 이땅은 그대로 불국토로 변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병든 마음 병든 정신으로는 아무리 불국토를 부르짖는다 해도 될 일이 아니다. 생활속에 불교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그 병든 마음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현대불교신문은 그동안 '참회의 삶을 살자' '작은 실천 큰기쁨' '생명 나눔의 실천' 등 캠페인을 통해 불교의 생활화에 앞장서 왔으며, 그 결과에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

불교에서의 법계(法界)란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이 몸담고 있는 곳, 비유하자면 든든한 한개의 하드웨어가 아니겠는가. 그 속에서 현대에 맞는 무궁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곧 불교의 현대화작업일 것이다.

자비희사(慈悲喜捨)의 사무량심(四無量心)을 내어 불우한 이웃을 돕는 방법, 미디어의 전파력으로 널리 법보시를 펴는 방법 등이 예가 된다.

한편 미래 정보화 시대는 그 변화상을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의 발빠른 적응이야말로 불교를 현대속에 더욱 빛나게 하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1년만에 독자적인 불교종합정보센터인 '부다피아'를 개설, 불교계 최초의 전자신문으로 정보화 시대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은 한국의 불자만을 독자로 보지 않는다. 물론 국내에서 불교인이 아닌 이들에게도 불교의 교리와 정신을 알리고 이들을 새로운 불교신자로 이끌어 들이려는 노력 역시 중요하며, 새로운 교계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전하고 한국 불교교단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 또한 소신있게 펴 보이는 언론의 기본적 역할수행도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임을 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국종교계 대표적인 신문'은 이제 그 목표가 아니다. 불교의 세계화가 궁극적인 목표며 불자 아닌 많은 세계인에게도 불성을 깨우쳐 주는 역할을 자임한다. 해외 불교학 석학들의 결실을 널리 살피고 한국 큰스님들의 서구(西歐)사회 진출을 돕는 일 또한 우리들의 일이라 믿는다. 이미 한국 큰스님들의 법문은 서구사회에서 경이로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간사회가 안고있는 문제는 시대마다 그 특색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대, 아니 미래에 나타날 문제점 해결에도 유효하다는 데 그 위대함이 있다.

인류는 새천년이 시작되기 전인 지금 놀랍게도 '오직 하나뿐인 지구'에 대해 눈을 뜨고 있다. 눈뜸의 시대라고나 할까. NGO로 대변되는 시민의 시대, 민중의 시대, 인간의 시대 역시 이제 막 새벽을 맞고 있다. '눈뜸의 시대'가 곧바로 불교에서의 깨우침을 말하는 것이리라.

2천5백여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살피신 평등법계가 이제야 인류의 자각속에 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 그래서 인류역사의 큰 방향 역시 정(正)일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같은 믿음은 인류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게 한다. 우리는 그 희망을 향해 신문을 만들려 한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가치관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정신의 시대, 마음의 시대를 빛낼 새로운 가치관으로 자리잡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깨우침의 시대' 그 문명사적 큰 흐름의 물줄기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 또한 게을리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새천년, '정신의 새벽'을 여는 데 우리의 힘을 보태려 한다.



◇조계사 스님들과 신도, 중앙신도회 회원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6일 서울서초동 법원청사를 항의방문하고 "사법부는 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총무원장 부존재를 판결한 담당판사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재판부 판결 명백한 오판" 재가단체들 잇달아 성명

"법원 종교단체 수장 선임 불교모독"

중앙신도회 우리는선우 대학생불교연합회 등 재가단체들은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이수형 부장판사)의 관결과 관련, 3~7일 잇따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재판부를 비판하는 한편 불교자주권 수호를 위해 불자들의 정진을 당부하고 나섰다. 또 정략적 관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 비판: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6일 "사법부는 종단의 적법한 기구들을 통해 얼마든지 치유가능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집행부 수장을 법원이 지명한 것은 법의 이름을 빌린 이천만 불자에 대한 폭력"이라며 "사법부는 법의 권위를 위해서도 이번 판결을 담당한 관사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계사도 6일 사부대중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만약 선거 절차상의 문제라면 현재의 종단질서와 체계 속에서 자주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타당하고 상식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도 같은 날 "관결의 중요한 고려요소인 현실적인 상황을 전혀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종 포교사단(총재 정련)은 7일 "지혜롭지 못한 사법부의 무책임한 관결로 야기된 현 종단의 위기 상황에 대하여 경악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정략적 관결 의혹 제기:조계사 신도회(회장 김보현심)는 3일 이번 관결에 대해 "한국불교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길들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숨길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상임공동대표 도법)도 7일 "이번 관결은 한국불교의 자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외부의 힘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불교자주권 수호 호소:범불교연대회의는 이번 사태로 불교의 자주성과 정통성을 유린당했다며 이후 전국을 순회하며 불교자주권 수호를 위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도 본사주지와 종회의원, 불교지도자들에게 "불교의 자주적 입장 견지와 종헌·종법의 수호를 위해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화회의 비판:재가연대는 정화개혁회의에 대해 "종단의 화합을 저해하고 끊임없이 소모적인 분란을 조장함으로써 정통성을 상실했다"며 불교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대불련은 7일 "정화회의는 더 이상 조계종단의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참회·해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사태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스님들의 모습이 너무 절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불자들도 많았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몇몇 불자들은 "세속법으로 불교의 일을 가름하는 일을 비난하는 스님들도 세속법에 의지해 맞소송을 하는 실정"이라며 "출세간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이에 따른 종헌·종법의 합리적인 구성·운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6면>

취재1부(swjung@buddhapia.com)

"'실천승가회 정화회의 주도' 판결문 내용 터무니없다"

실천승가회, 재판부에 '명예훼손' 고소할듯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 재판부가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소송 판결문에서 실천승가회를 지난해 종단분규를 저지른 당사자로 매도했다"며 재판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천승가회 의장 청화스님은 6일 42부 재판장 이수형판사를 만나 "담당재판부가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관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이수형판사는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참조하여 관결문을 작성, 문제가 생겼다"며 "2심 재판에서 수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사 출입구가 다시 폐쇄되고 철조망이 둘러쳐졌다. 이번 사태로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여러 행사도 무기한 연기됐다.

긴장감 감도는 조계사

출입구 5곳 철망방어 종무행정은 정상업무

●…총무원은 2일 오후 상운중심쪽 출입구만 남긴 채 조계사 출입구를 컨테이너박스로 막고 철조망을 두르는 등 정화회의의 진입에 대비했다. 조계사는 안내문을 통해 "지난 겨울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부득이 5개 출입구를 제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상운중심쪽 출입구에는 급히 철문을 설치했다.

6일 조계사에 들른 한 불자는 "법문할 때마다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치는 스님들이 불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원은 경비용역회사 직원 1백여명을 고용, 폐쇄된 출입문 등에 배치해 조계사 경비에 들어갔다. 또 콜라 5백 상자, 컵라면, 소화기 등을 청사에 비치했다. 종무원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총무원청사 출입문도 폐쇄하는 한편 왼쪽 철문만으로 출입자를 확인한 후 드나들게 하고 있다.

●…포교원 건물 출입문도 5일 폐쇄해 직원들과 방문자들은 찻집을 통해 출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열리는 조계사 기초교리강좌도 장소를 문화교육관으로 변경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조계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가사전시회, 사리친견법회, 자수후불탱화전, 사찰도서 기증식이 이번 사태로 무기한 연기됐다.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은 승적 등 각종 서류는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구족계 수계산림과 경남지역 본말사주지 연수, 각 지역 포교사단 전문화교육도 예정대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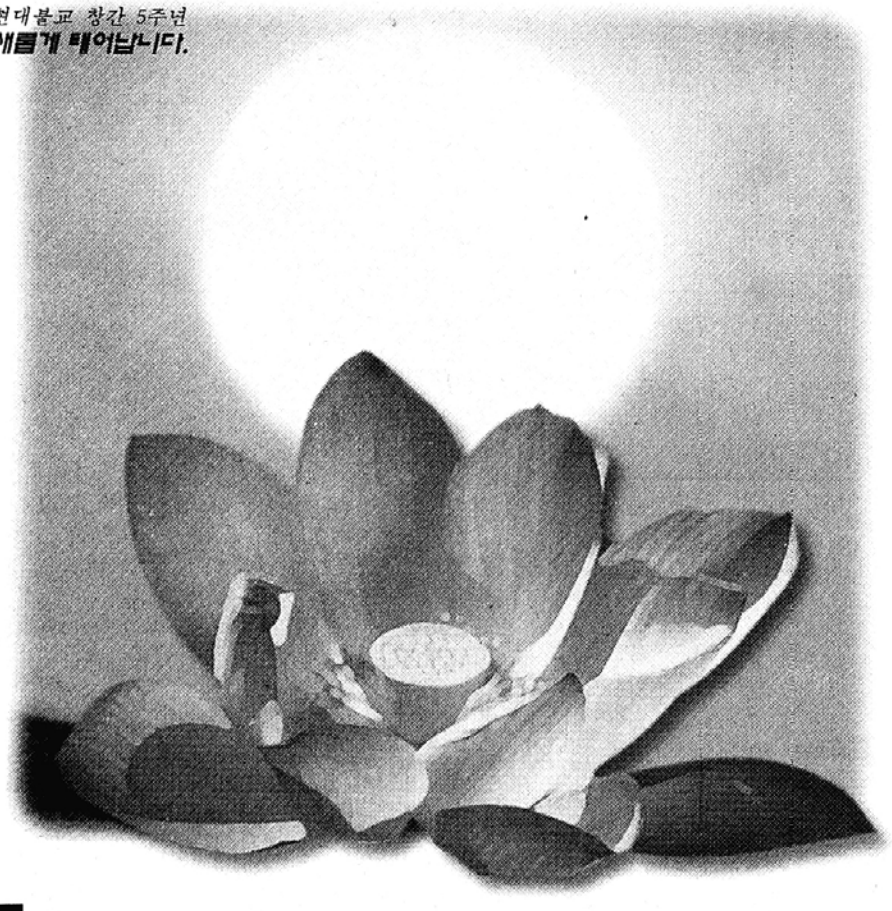
정성운·김원우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부처님법은 어디 두고…

현대불교 창간 5주년
새롭게 태어납니다.



언제나 '새로운' 부처님 가르침!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전합니다.

불교 자주권과 법통수호를 위해
2000만 불교도와 함께
일로 매진하겠습니다.

大韓佛敎曹溪宗

법리논쟁 '엇박자' …교권추락 염려

총무원장 사퇴…항소권 포기 이후

도견 직무대행 존재 놓고 양측 주장 팽팽

"물리적 충돌 우려…대화의 길 찾아야"

고산스님의 항소권 포기와 총무원장직 사퇴, 이에 대해 정화회의측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직무대행 유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후 사태 전개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무원측은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 고산스님이 5일 총무원장직을 사퇴하고, 항소권을 포기함에 따라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가 지명한 총무원장 직무대행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판결문에서 "고산스님은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판결 확정시까지 조계종 총무원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 직무집행정지 기간중 도견스님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한편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는 4일 판결확정증명원을 총무원측에 발급해준데 이어 정화회의측이 제기한 판결확정증명원에 대한 이의 제기를 각하했다.

정화회의는 고산스님이 항소권을 포기한 직후 항소를 제기했으므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직무대행 도견스님 선임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정화회의는 5일 고산스님이 임명한 총무원 집행부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시켰다.

이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다. 총무원측 고문변호사인 양영태변호사는 "전부승소(청구취지와 판결 주문이 같은 경우)한 원고가 항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원고의 항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정화회의는 항소 각하 여부는 고등법원의 해당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며, 따라서 고등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법리를 펴고 있다. 당연히 직무대행은 유지된다는 것이다.

정화회의측 소송대리인인 황해진변호사는 "항소권포기로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은 피고에게만 해당되며, 만일 상급심이 각하시킨다 해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때까지는 직무대행의 효력이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판결 이익이 없을 때는 승소한 자라도 항소할 수 있다"며 "피고가 항소를 포기해 부득이 청구취지를 변경, 항소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이같은 법리논쟁에 대해 법조계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으나, 대체로 전부승소자는 항소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 변호사는 "전부승소한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해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무튼 때아닌 법리논쟁은 고등법원의 항소 각하 또는 유지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치열한 법리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가시적이지 않지만, 교구본사와 주요 사찰의 분쟁 또 총무원 청사를 두고 벌어질지도 모르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불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외면을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서로 정통성과 사법부의 판단을 앞세우며 한치도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대화를 통한 해결은 가능성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불자들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촉구, 불교의 위상 추락을 염려한 여론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극한적인 충돌을 양측이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성운 · 김재경 기자
(swjung@buddhapia.com)



◇고산스님은 4일 열린 143회 임시종회 인사말을 통해 "일치단결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법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도견스님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대행을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종회 · 교구본사, 법통수호 결의

총무원 움직임

12일 사부대중 궐기대회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와 중앙종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서울지법 민사 42부의 판결을 반대하며, 법통수호를 위한 대책위에 참여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통도사를 제외한 23개 본사주지들과 재적 78명 중 65명이 참석해 4일 열린 본사주지회의와 143회 임시종회에서는 종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본사주지회의와 중앙종회는 회의에서 △종단사태 수습 때까지 솔선수범하고, 본사주지는 총무원청사 수호를 위해 본사대중 파견 △종회의원들은 5개조로 나눠 총무원청사에 상주 △12일 사부대중 궐기대회 적극 동참 △각 사찰에 재판부 · 행정부 규탄 현수막 게시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12일 열리는 사부대중 결의대회를 '불교자주권과 법통수호를 위한 사부대중 궐기대회'로 명칭을 바꿔 치르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5일 '불교자주권과 법통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총무원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총무부장 원택스님이 총무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고산스님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영태변호사는 "가처분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권 포기로 본안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정성운 기자

도견스님 총무원장 직대 수락

정화회의 움직임

7일 비상대책위 구성

법원으로부터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도견(원로회의 의원)스님은 4일 통도사 감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무대행을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도견스님은 "모든 이해당사자가 대화와 수습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사태 수습을 위해 △종단의 안정과 화합 △종도들의 신망받는 종단체제 확립 △문중과 파벌을 초월한 의견 수렴 △과감한 현정(顯正)조치 시행 △사부대중이 함께 의논하고 만들어가는 종단풍토 확립 등 5대 원칙을 천명했다.

도견스님은 이날 현근스님을 조계사 주지로, 도각스님을 총무원장 사서실장에, 원학스님을 대변인으로 각각 임명했다. 5일에는 "고산 총무원측으로부터 징계받은 스님 및 해임된 스님은 99년 10월5일자로 원천무효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화개혁회의측 젊은 스님들로 구성된 '조계종 정화불사 대중연합'은 4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상임대표로 전 봉은사 주지 성문스님을 선출하는 등 9명의 공동대표를 선출했다.

정영스님은 5일 총무원장직 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 항소한데 이어 7일에는 원택 만성스님등 총무원 집행부를 상대로 임명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정화회의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

김재경 · 천미희 기자
(jgkim@buddhapia.com)

■ 세속법 의존 언제까지…

승단 自淨능력 회복 급선무

불교 내부의 문제가 세속법의 관단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승한 부처님법을 뒤로 제쳐놓고 툭 하면 소송을 제기해 세속의 잣대로 불교 일을 가름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세속법에 의한 소송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50년대 '비구-대처분쟁'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조계종 종단분규는 어김없이 사법부의 관단에 의존한다는 선례를 남겼다. 종단분규 전문변호사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며, 종단의 대표자인 총무원장까지 사법부에 의해 좌우되는 수치를 겪고 있다. 조계종의 최고 어른인 종정을 소송 대상에 올린 적도 있었다.

"부처님법이 최상법" 의식전환 필요

조계종 승려법 46조에는 종단 내 조정기관 또는 관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직당국에 민형사 제소를 일으키면 멸빈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허위 사항을 유포 조작하여 고의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긴 하지만 불교 일을 세속의 잣대로 좌우하지 말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 소송을 대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도 "종단 일의 변호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말한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종교단체 등 특수한 집단에 관계된 관결의 경우 사회법을 변용해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 사회의 법이론'이 있다"며 종교의 특수성을 훼손하지 않는 신중한 판결을 당부했다.

사회법 의존 현상에 대해 한 불자는 "승가내에 세속적 욕심이 있는 스님들이 부처님법을 팽개치고 사욕만을 채우려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승단의 자정회복을 촉구했다.

자초한 일이지만 사법부의 신중치 못함을 비판하는 의견도 많다. 또다른 한 불자는 "법원이 천주교의 추기경이라면 사소한 절차를 문제삼아 총무원장 부존재 판결을 내리겠는가"고 목소리를 높여 서울지법 민사42 재판부를 비판하고 "이는 한국의 최대 종단을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며, 불교 스스로 자존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뼈아픈 가르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정 노력과 함께 부처님법을 종헌 · 종법에 충실히 반영하는 제도적 보완, 종헌 · 종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의 확산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기울여 한다.

정성운 기자

목어

부끄럽다

창피하고 부끄럽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잠잠해지면 또 일어나고 잠잠할려면 또 일어나는 사태이니 이젠 지겹다 못해 창피하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다투는 두 집단은 이미 우리 대중들에게 가치를 혼돈시키고 대중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보기에도 딱한 작태를 연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AP통신이 선정한 세계 100대 보도사진 가운데 조계종사태를 수습키 위해 출동했던 전경들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니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는가. 부끄러운 또하나의 이유는 다투는 그들이 속인이 아닌 영적 삶을 살면서 대중들의 영적 삶의 본이 되어야 할 스님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옛날 부처님이 죽림정사에 계실때 지혜(智慧)와 식(識)을 설한 대목이 있다. "고통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그 고통의 근원을 알며 고통을 극복한 열반을 알고 그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아는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라고 한다"

"사물은 분별하고 소리를 분별하며 냄새를 분별하고 맛을 분별하며 감촉을 분별하고 법을 분별하는 것을 앎(식)이라고 한다".

지금 그들이 다투는 작태는 지혜가 있는 행동인가 아니면 앎이 있는 행동인가, 속가의 눈으로 보기에 어느 것도 아니다. 스스로 앎도 없고 지혜도 없는 작태라면 이미 영적 삶을 추구하는 원래의 목표는 상실한거나 다름없다. 영적 삶의 추구를 소홀히 하는 것만으로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더하여 대중을 괴롭히는 일을 다반사로 한다면… 또한번 깊이 반성하고 참회할 일이다. 법률적인 관단은 속인이 즐겨쓰는 상식이지 스님들이 즐겨 쓸 상식은 아니지만 지혜와 앎을 잃은 빈사상태의 스님들로서는 속인의 잣대라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 관단을 논리와 상식으로 보면서 깊은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더이상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해서는 안된다.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과거의 사건들이나 선입견 그리고 편협과 주장들과 숨겨진 의도등을 버리고 인내성 있는 대화로 빨리 수습의 길을 잡아가기 바란다. 개인개인마다의 정진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이 정진은 마음을 닦는 일이지 육체적으로 돌진하는 일이 아니다. 불교 본래의 모습을 지키고자 하는 대중의 기대를 결코 저버려서는 안된다.

이근후(이대의대 교수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창간 5주년
새롭게 태어납니다

언제나 '새로운' 부처님 가르침!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전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5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직무대행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홍인곡
부 회 장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전운덕
부 회 장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김성초
부 회 장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장 김월서
부회장겸사무총장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이홍파
사무국장 민법현

이 사 대한불교 보문종 총무원장 정예일
이 사 대한불교 일승종 총무원장 김예정
이 사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주윤경
이 사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정경식
이 사 대한불교 원융종 종 정 배일공
이 사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쥥지화
이 사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송무진
이 사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전남정
이 사 대한불교 진언종 종리원장 손금광
이 사 대한불교 용화종 총무원장 이법덕
이 사 대한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이효성
이 사 대한불교 본원종 총무원장 이대화
이 사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유청송
이 사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한학봉
이 사 보국불교 염불종 총무원장 이청봉
이 사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윤일오
이 사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이혜공
이 사 대한불교 열반종 총무원장 김해곡
이 사 대한불교 미타종 총무원장 이월정
이 사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신혜안
이 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여원택
이 사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부장 정양산
이 사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부장 이지성
이 사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부장 김국성
이 사 대한불교 진각종 총무부장 김회정
감 사 한국불교 태고종 교무부장 편백운
감 사 대한불교 진각종 재무부장 손수성

부설 불교사회복지정보지원센터
▶대표전화 : (02)732-4885
▶ FAX : (02)737-7872
♣인터넷 홈페이지 www.mahayana.or.kr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2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2층(인터넷 홈페이지 www.mahayana.or.kr)
대표전화 : (02)732-4885 / FAX : 737-7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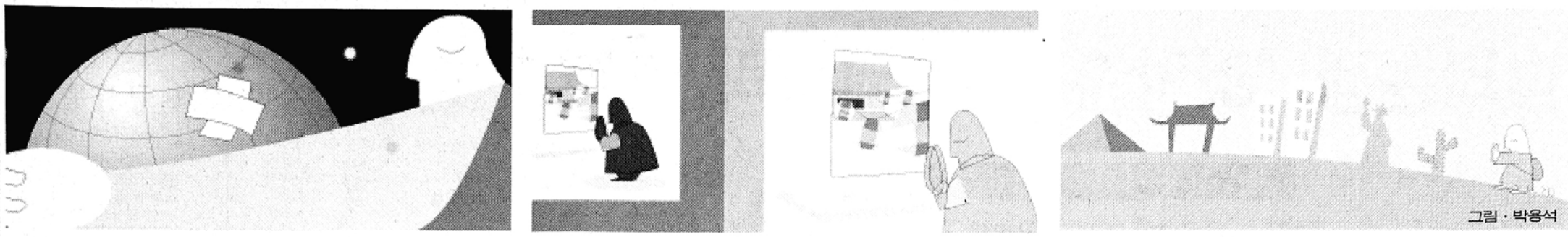


그림 · 박용석

한국禪 · 불교문화 세계로…미래로…

5 1994-1999 현대불교창간 5돌

새천년 포교전략

이제 두달만 지나면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맞는다. 새천년 21세기에는 정보화와 첨단과학의 발달이 더욱 가속화되는 등 그 변화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불교가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려면 새로운 시대와 사회를 선도하고 교화할 수 있는 포교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불교 종단들의 중요한 과제이므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 태고 천태 진각종 등 4대 종단으로부터 새로운 세기에 대응하는 새 포교전략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조계종

실천중심 신도조직 재편 달마넷 정보서비스 강화

새로운 세기에 대응하기 위한 포교전략은 크게 3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신도조직의 변화이고 둘째는 정보화사회의 대응, 셋째는 한국불교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신도조직의 변화는 기존의 단선적인 신도조직의 틀을 일과 활동위주로 재편하고 이를 네트워크화 하는 것, 즉 종횡의 연대를 구성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실천활동을 조직해 내기 어려운 연령대별 조직을 탈피하여 일과 활동을 중심으로 조직을 편제하는 것이다. 그 일과 활동은 바로 봉사와 공동선의 추구를 말한다. 이는 신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유의미한 활동, 사회의 공동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여 신도조직이 사회적 역할과 힘을 발휘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불교가 사회적 역할과 기여를 해냄과 동시에 간접포교를 통한 사회와 일반 대중의 우호적 인식을 제고하여 사회적 지도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의 단위를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하여 종횡의 연대를 이룩하면 말 그대로 조직적인 실천활동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종횡의 연대, 즉 네트워크 형성을 장기적 신도종책으로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는 새로운 지평인 정보화 사회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컴퓨터와 통신의 발달에 따른 정보화의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제 한정된 지역과 공간에 국한된 정보로는 더이상 변화에 대응할 수도 선도할 수도 없다. 조계종에서도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불교정보의 종합정보망인 달마넷을 개통시킨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사이버포교의 강화를 위해 종단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아울러 인간복제, 유전자 조작과 같은 과학과 윤리의 괴리를 가져오는 문제에 대한 불교적 대안과 가치를 제시해 나가는 것 역시 우리가 담당해야 할 포교적 과제라 생각한다.

셋째는 한국불교의 세계화이다. 이제 세계는 말 그대로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불교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불교사상이 서양의 물질문명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세계불교의 주류는 티벳불교와 일본불교이며 한국불교가 문명사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불교사상, 한국불교의 진수를 전할 수 있는 한국불교의 세계화, 국제포교의 활성화에도 역점을 둘 것이다. 또한 한국의 선불교와 산사의 전통불교문화는 21세기 대중교화와 한국불교를 세계화하기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됨으로 이를 잘 활용할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갈 것이다.

천태종

인터넷망 · 위성방송 활용 법회 · 불교행사 동시 중계

21세기의 변화에 맞추어 수행중심의 포교방법을 유지하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교학과의 균형을 맞추어 신도들을 교육시켜 나갈 것이다. 천태사상의 특징은 교관겸수이다. 교학에 대한 연구는 물론 그의 실천을 똑같이 중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도들에 대한 교리공부는 법회와 설법중심의 교육뿐 이었다. 다가올 21세기를 이러한 지역법회중심의 교육으로 감당할 수는 없다. 전국의 사찰을 시간과 공간적으로 일체화시키고, 동일한 가르침을 같은 시간에 접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가동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으로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의 연결이고, 또 하나는 위성방송을 통한 생중계 방송이다. 외적으로는 현재의 홈페이지 내용을 보충하여 많은 사람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불교를 알리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국의 포교사들이 법문의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법문내용을 단일화하고, 신도들의 일체감을 높이는 일이다. 이것은 인터넷을 이용한 가장 손쉬운 포교방법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 단체별로 사이버 법회를 결성해 인터넷 상에 단체별 대화방을 만들고 단체 회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이메일을 가지고 접속하여 공동의 대화의 장을 꾸려가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종단의 행사를 디지털 녹화기로 찍어 인터넷에 그대로 접속하여 송신함으로써 신도들이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집에서 법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될 것이다. 위성방송의 이용은 종단에 미니 불교방송국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매우 유용한 포교매체가 되리라 생각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없이 많은 법회와 강좌가 열리고 있다. 이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법사와 강사의 부족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위성방송을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종단에서 일괄적으로 최고의 전문인들을 초빙하여 전국의 종도들에게 일괄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의 근본이 이러한 사회변화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체득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현대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실천하도록 인도하느냐 하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은 수행을 통해 이를 체득하는 것이라고 할 때 포교의 중심 또한 수행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천태종의 종풍은 주경야선, 즉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것으로 모든 사부대중이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 수행과 교학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1세기에도 변하지 않는 포교방향이다.

태고종

전국 사찰업무 전산작업 과학 · 정보시대 윤리 제시

새로운 시대의 포교는 곧 사회를 정화하고 대중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안락한 삶을 살도록 하고 대중을 교화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과거처럼 법문을 들려주는 법회나 불공같은 의식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정보화사회와 첨단과학 또는 첨단산업화에 걸맞는 포교방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태고종은 대승교화종단이다. 이는 대중의 선도와 교화를 중시하고 실천하는 불교종단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대와 사회가 바뀌면 그에 부응하여 항상 선진교화에 노력해왔고 또 지금도 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태고종은 지금 종단업무는 물론 전국사찰 업무를 거의 전산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최신정보기술을 익히는 한편 그 기술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정보기술과 그 처리 능력에 의하여 새로운 시대와 사회를 포교해나가기 위해서다.

태고종의 또 하나 포교 계획은 가족단위의 포교방법이다.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태고종의 많은 승려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즉 가족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어 수행과 생활이 따로 없다. 생활이 곧 수행이고 수행이 바로 생활인 것이다. 이는 부처가 중생과 다르지 않고 중생과 부처가 하나라는 '심불급중생 무차별(心佛及衆生 無差別)'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세속과 대중을 교화하는데 대단히 유리한 점으로 나타난다.

태고종 승려는 안으로는 자기완성에 치열한 정진을 추구할 것이나 대중교화에 대하여 따로 익히고 연구할 것이 없다. 가정생활을 통한 경험과 수행이 바로 교화능력의 실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보다 더 바람직한 포교방법은 없으리라고 본다. 또 그 근기를 간파하고 접촉 · 동화하는데도 신속하고 정확하기에 포교와 교화에 효과가 다른 교역자들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화광동진(和光同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과 함께 기쁨과 고통을 나누며 그들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태고종은 이러한 화광동진의 정신으로 대중속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과학 · 정보화의 가속으로 한층 이기적이고 소외감이 커갈 21세기 인간사회에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윤리관을 회복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해도 가족에 대한 소중함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가족이 안락하고 평화로워야 그 사회와 시대가 안락하고 평화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새 시대에 있어서 가족법회는 대단히 의미가 큰 것이다.

진각종

통일 · 복지사업 적극전개 전문인재 교육불사 역점

우리 종단의 포교종책은 정보화와 전문화를 통한 신지식인이 주도하는 사회, 민족의 새로운 계기로 도래할 남북통일, 과학과 정보망의 발달로 세계의 생활권이 점차 좁아지는 국제화시대, 인간 스스로가 부의 축적과 경제적 가치보다는 안정되고 행복 추구에 대한 욕구가 점차 심화되는 복지시대라는 시대환경의 변화와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앞으로 종단의 조직체계의 편성을 3대종책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재 종단발전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이와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과 확충을 통한 종행정의 전산화, 인터넷 포교를 강화하여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종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종단 중장기발전백서를 마련하고 청소년 교화사업을 위한 청소년 사단법인 설립 추진과 국제청소년 교류사업, 신도회 조직 정비와 함께 복지법인과 연대한 신도활동 강화, 이미지 통합작업을 통한 불교용품 및 시각적 불교홍보물 개발 보급, 불교연극과 음악과 예술인 등에 대한 불교문화육성과 보급을 목적으로한 대내외적인 지원등을 단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불교연구소, 군불교 발전을 위한 모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한국불교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통일불교사업의 전개와 함께 국제포교와 군포교, 공공기관단체 포교에도 더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가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불사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돈독한 신심, 그리고 사부대중의 단합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진각종의 교육종책은 크게 사회화향적 성격의 교육과 대내적 성격의 두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회당 대종사 탄생100주년을 계기로 회당사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종단 4대성지 성역화 작업의 성료와 교법과 종학의 연구 및 보급을 통한 종단위상의 정립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는 전문적 교화스승을 양성하며, 신도 교육을 통한 포교사를 양성 확충하여 보다 깊이있고 폭넓은 교화를 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오늘날 인구의 노령화현상과 사회의 갖가지 병리현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를 설립하여 복지활동을 통해 이러한 사회 일변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며 최근 NGO 가입을 통한 국제구호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불교자주권과 법통수호를 위한

제 1차 사부대중 결의대회

■ 일 시 : 1999년 10월 12일(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재판부는 불교의 자주권을 유린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일 서울지법(민사 42부)의 총무원장 부존재 확인과 2일 직무가처분 판결은 세속법의 잣대로 신성한 종교의 영역을 재단한 명백한 종교 탄압이며 정교분리의 원칙을 깨뜨린 행위입니다.

사법부는 우리 불교의 법통을 부정했습니다.

우리 조계종단의 법통을 짓밟고 재판부 임의로 관선 총무원장을 임명하려 한 행위는 1천6백년 한국불교 미증유의 치욕적인 사건으로서 2천만 불자는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폭력집단은 우리의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폭력집단 정화 측은 종단법으로도, 세간법으로도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불법집단입니다. 지난해 가공할 폭력행위로 전 세계에 망신을 끼쳤던 그 집단이 어쩌 승가단체라 하겠으며, 조계종단의 대화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현 조계종 집행부는 합법적이고 정당합니다.

법원이 지명했던 도견 직무대행자는 고산 총무원장 스님의 결단으로 법적 효력을 단 한 순간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고산 총무원장 스님과 현 집행부는 종정 혜암 예하를 위시하여 원로회의, 교구본사주지회의, 중앙종회 등 종단 내 모든 종헌기구와 2천만 불자들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합법적인 집행부입니다.

모입시다! 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해 조계사로---

힘은 모일 때 생깁니다. 우리 2천만 불자가 모인다면 그것은 아무도 넘보지 못할 불교 자주권과 법통 수호의 힘이 됩니다. 조계사에서 2천만 불자의 저력을 과시하고 뜨거운 애종심으로 종단의 명예로운 새 날을 열어갑시다.

※재가불자는 행사당일 직장에서 월차휴가를 내고 이날 집회에 참석하여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줍시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통수호 대책위원회

원로회의 총무원 · 교육원 · 포교원, 호계원, 중앙종회, 교구본사주지회의

중앙신도회 · 조계종 직할교구본사 조계사 · 제 2교구본사 용주사 · 제3교구본사 신흥사 · 제 4교구본사 월정사 · 제 5교구본사 법주사 · 제 6교구본사 마곡사 · 제 7교구본사 수덕사
제 8교구본사 직지사 · 제 9교구본사 동화사 · 제10교구본사 은해사 · 제11교구본사 불국사 · 제12교구본사 해인사 · 제13교구본사 쌍계사 · 제14교구본사 범어사 ·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제17교구본사 금산사 · 제18교구본사 백양사 · 제19교구본사 화엄사 · 제20교구본사 송광사 · 제21교구본사 대흥사 · 제22교구본사 관음사 · 제23교구본사 선운사 · 제24교구본사 봉선사

● 종단 자주회의 뜻은 있으나 부득이 참석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성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성금접수는 농협 053-12-077474((예금주 : 총무부장 원택)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사상으로 '공동체 삶' 일군다

5 1994-1999 현대불교 창간 5돌

21세기는 변화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한국불교도 새로운 세기를 맞아 전지구적인 공익을 위해 생태주의적 가치에 바탕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공동체운동과 국제연대를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21세기를 준비하는 환경 통일 시민운동과 복지사업 국제포교등 그현장을 찾아 미래불교운동의 투시도를 그려본다.〈편집자 주〉

21세기를 준비하는 불·교·현·장



◇21세기 복지형태는 치료보다는 예방의 개념으로 전환된다. 사진은 장애인불자와 스님, 자원봉사자가 사찰을 찾아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모습.

인류와 자연의 조화

환경운동 20세기 후반 인류가 저지른 행위를 자각하면서 제기한 화두가 '지속가능한 생존'이다.

환경운동은 앞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주의로 전환돼 대안적 공동체운동, 대안학교운동, 귀농운동, 한살림운동, 생활협동조합등이 구체적으로 사회에 실현하려는 노력이 예상된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은 생명운동 작은대학을 개설하고 인간소외, 집단적 무관심, 자연을 죽음으로 이끈 지난 세기를 반성하고 진지한 삶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수행과 깨달음, 영성을 회복하는 자리로 만든다는 방침으로 추진중이다.

생명운동 작은대학은 제3의 길로서 생태주의적인 패러다임을 문명사적 대안으로 이끌어내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대안적 사회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9월 11일 창립한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는 21세기를 지배할 생태주의적 패러다임이 교계에서 구체화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불교의 유기순환적 관계론을 중심으로 한 생명존중사상을 펼치게될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는 주요사찰이 위치한 농촌과 산간을 도시의 사찰과 이어 주는 생활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하고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생태농협을 실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농업을 환경생태계보존, 국토정화및 균형개발, 문화및 전통보존, 식량공급의 안정성 확보에 가치를 두고 생태적 가치를 증시하는 지역생태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난민구호·경제협력 역점

통일운동 불교통일운동의 영역은 통일의 당위성 교육에서 출발하여 식량지원까지 줄곧 발빠르게 대응해 왔다. 21세기를 앞두고 불교통일운동은 단순한 식량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안을 찾아야할 시점에 와있다.

평화통일불교협의회는 지원개념에서 협력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남북한 대치상황을 불식하는 평화운동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남북간 통일 학술교류를 전개해 나가고 실제 협력이 가능한 부분 즉 사찰복원등 경제적 교류에 치중한다는 방침이다.

(사) 좋은 벗들은 북한식량돕기 운동에 치중하던 것을 직접적으로 뛰어들어 중국 접경지역의 탈북 식량난민돕기운동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중국 현지의 면담조사를 통해 탈북난민의 인권문제등을 제기하여 독자적인 통일운동의 길을 개척한 좋은 벗들은 탈북난민의 법적지위 향상과 실질적인 난민돕기운동에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민족화합불교추진위는 불교가 남북의 통합과정에서나 그 이후 불교계의 역할 찾기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위해 통일불사금 준비와 차분하고 체계적인 연구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진각종도 국제불교연구소를 운영하며 불교통일운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통일운동단체들은 탈북귀순자문제, 통일교육을 위한 정보교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교육등에 연합으로 힘을 모아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있다.

종단민주화·NGO참여 강화

시민운동 불교시민운동은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인권및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불교민주화에 진력해왔다.

전국불교운동연합은 21세기를 맞아 실질적인 사회민주화를 위해 진정한 비판과 견제로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범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대중의 요구와 의식및 정서에 맞게 2천년 10월에 열리는 아셈(ASSEM)회의에 참가하여 시민사회단체의 과제를 알리고 국제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 불교시민연합은 시민운동의 지구화를 위해 국제연대의 손길을 넓히는 작업을 전개한다. 이를위해 11월 열리는 MR(밀레니엄라운드)의 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10월 서울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NGO운동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불교장기수후원회를 창립하여 장기수돕기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불교의 대사회적 참여를 모색하는 새시대불교포럼을 창립하여 미래불교운동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는 실직가정돕기와 결식아동돕기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며 앞으로 불교교육과제 도출및 프로그램연구를 통한 설득력있는 포교방법론을 연구하고, 교단내 수행풍토조성과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대안제시에 적극나선다는 계획이다.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는 승가 재가의 역할확립에 기반한 종단민주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부대중 참여의 종단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서명작업과 포럼을 통한 개혁방안을 마련중이다.

더불어 잘사는사회 구현

복지 21세기 불교복지는 '앉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베푸는 차원을 벗어나 다가가서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새로운 틀의 개념을 정립하게 된다.

이같은 새로운 개념은 분야별 복지서비스 형태 변화를 통해 적용된다. 우선 장애인 복지는 '수용'의 개념에서 '사회생활'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장애인들은 지금과는 달리 일반인과 똑같이 직업을 갖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된다. 또 노인복지는 '소극적 보조'에서 '문화창출'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선봉장으로 나선다. 한편 교계 200여 복지시설은 이같은 개념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적용시켜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사회활동'이라는 적극적 서비스를 펼친다.

이처럼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조계종 복지재단과 승가원, 연꽃마을, 인덕원등 교계 복지단체는 중앙집중식 보다는 지방단위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각종 복지재단은 새 천년 들어 스리랑카 등 5개국에 국제구호센터를 설립해 본격적인 국제교류에 나서는 등 국내와 국제를 하나로 묶는 '통합 네트웍 시스템'을 구축해 불교복지의 저변을 확대한다.

생명나눔실천회는 지금까지 캠페인과 상담을 통해 어느정도 이미지를 구축했다고 판단, 본격적인 의료복지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불교단체 해외교류 확대

국제포교 20세기에 한국불교 국제포교의 주춧돌이 세워졌다면 21세기에는 세계로 향하는 다리가 건설된다. 66년 첫 발을 디뎠지만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걸음마 단계를 뛰어넘지 못했던 것이 한국불교 국제포교의 현실. 그러나 21세기에는 그 모습이 크게 바뀌게 된다.

올해부터 국내 불교소식을 담은 영문판 소식지를 발간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해 불교서적 번역서 발간 및 홈페이지 개설, 해외 불교단체들과의 교류확대, 외국인 대상의 사찰안내를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외국인을 위한 법회 개최 등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21세기 국제포교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이 있는 불교를 지도할 수 있는 현지인들을 명예국제포교사로 임명해 활동토록 하고, 보다 많은 외국인스님들을 교육시켜 한국불교를 알리는데도 중점을 두게 된다. 현재 70여명에 불과한 국제포교사도 매년 20명 이상씩을 배출해 그동안 절감해온 수적 열세도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포교원을 비롯해 국제포교사회, 연등국제불교회관, WFB(세계불교도우의회), WFBY(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 화계사 등 지금까지 국제포교를 담당해왔던 각 단체들은 이같은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시켜 국제무대에서의 한국불교 위상을 강화시키겠다는 각오다. 특히 선불교를 통한 한국불교알리기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우 · 한명우 기자



◇불교운동단체는 2·3일 의정부 디락원 캠프장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21세기 불교' 네트워크 포럼

"연기사상은 문제해결 열쇠"

'지배의 틀' 가고 생태주의 도래

"서로 힘을 모아 뜻을 이룰때까지 행동으로 실천하자"

불교운동단체들은 2·3일 양일간 의정부 다락원캠프장에서 6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네트워크 포럼 '불교운동! 21세기의 눈으로 오늘을 준비한다'를 개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운동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성태용교수(건국대 철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정수복씨(한국사회운동연구소장)는 '변화하는 세계, 변화하는 운동'을 주제로한 발제에서 "지배적 패러다임에서 생태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운동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공동체적 삶이 중요시되며 타인종과 타문화에 관심을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뤄지는 새로운 정치운동 확립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깨달음과 수행, 가르침의 사회화'를 주제로 발제한 도법(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스님은 "불교운동의 깨달음의 안목으로 삶의 문제를 직시하고 연기적 세계관에 바탕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인간화와 생명위기의 상황이 심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세계의 실상과 존재가치에 눈뜨게 하는 깨달음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운동의 영역과 운동의 새로운 동력'에 대해 발제한 김판동씨(사부대중공동체 창립준비위 간사)는 "지금 불교운동에 필요한 것은 고타마 싯달다가 느꼈던 문제의식이 무엇인가를 세밀히 파악하고 더불어 깨달음의 근원에 대한 참으로 진지하고 결연한 자기성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불교운동진영에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밀도있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천으로 옮기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교의제 21, '바꾸자, 준비하자, 행동하자'를 주제로 한 분과토론에서 불교운동단체 실무자들은 환경생명운동및 문화복지운동, 국제연대및 평화통일인권운동, 불교혁신및 불교여성운동분과로 나눠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21세기 운동방향이 불교의 유기적 연기론에 바탕한 생태주의가 주류를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상호협력을 통한 21세기 불교운동을 활발하게 결쳐나가자고 결의했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현대불교 창간 5주년 새롭게 태어납니다

언제나 '새로운' 부처님 가르침!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전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5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종단진흥회

회장직무대행 겸 부회장 김 혜 정

사 무 총 장 송 보 인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전 운 덕	대한불교미타종	총무원장	권 성 우
대한불교중화종	총무원장	전 남 정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송 산
한국불교법화종	총무원장	김 광 태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대행	김 용 섭
대한불교용혜회	회장	김 무 찰	대한불교법사종	총무원장	성 순 경
대한불교일승종	총무원장	김 혜 정	대한불교용화종	총무원장	이 법 덕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윤 송 정	대한불교정토종	총무원장	김 지 산
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최 법 륜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이 혜 공
대한불교진언종	종리원장	손 금 광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신 명 안
대한불교대각종	총무원장	석 만 청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정 법 륜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주 운 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51-1 파고다빌딩 301호 대표전화 : (02)766-4848 / FAX : 766-5007

"매순간 희망의 조건 가꾸자"

5 1994-1999 현대불교창간 5돌

특별기고 한국불교, 새천년 준비하고 있나

도법스님(실상사 주지)

"미래에 대한 환상적 기대보다 연기법따라 공존·협동·균형"

끊임없이 흐르고 또 흐르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삶이다. 어느 한순간도 변화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 무엇도 변하지 않고 처음 모습대로 있어 본일이 없다. 조금만 진중하게 들여다보면 변화는 언제나 변함없이 전개되는 평범한 현상일 뿐이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데 변화에 대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법석들이다. 참으로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너도나도 정보화, 세계화로 표현되는 새로운 삶의 양태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거의 맹목적이리만큼 미래에 대한 환상적인 기대를 갖고 새천년을 이야기하고 있다.



욕음, 가치있음, 바람직함에 대한 관심은 없다. 오로지 더 많은 소유와 편리와 경쟁을 위해 온 세상이 새천년 타령을 하고 있다. 뭔가 석연치 않다. 화려하게 포장된 새천년 실상은 과연 무엇인가? 달콤한 논리로 유혹, 협박하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 사회란 정말 기대해도 괜찮을 것인가?

생각할수록 회의만 깊어진다. 경험에 의해 형성된 지혜는 위대하다. 역사의 경험이 주는 교훈으로 미루어 보자. 늘상 그래왔듯이 떠들썩한 새천년 잔치도 특정인들이 무지와 탐욕의 야심으로 펼치는 한바탕 장사판일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자. 무엇이 달라졌는가. 빈부격차의 벽은 더욱 고착되고 있다. 부족과 불평함으로 인한 불만은 증폭되고 있다. 불신과 의혹의 강물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갈등과 대립, 불안과 공포, 비인간화, 생명 위기의 상황이 현실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 명료하다. 무지와 탐욕으로 삶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세계의 실상에 대해 무지하고 맹목적인 탐욕으로 가꾸어 온 삶의 결과는 언제나 불타는 집 속의 고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는 부처님 말씀이기도 하고 역사의 경험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지와 탐욕으로 새천년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래서 중생은 중생일 수밖에 없는가 보다.

실상이 이러한데 불교계 마저 시류에 휩쓸려 탐욕과 경쟁의 논리로 새천년 타령을 해야 할 것인가. 한 걸음 물러서서 굳이 해야할 당위성이 있다면 불교계는 불교적 관점과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현실에 맞는 준비를 했으면 한다. 방향과 길을 제대로 알고 가야 한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모든 노력이 무위로 끝나게 된다. 길을 모르면 차라리 아니 가는 만 못하다. '나는 다만 길을 가리킬 뿐이다'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뜻깊다. 불교적인 기본 관점을 정리하고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삼계가 온통 고통으로 가득차 있다. 나의 전존재를 바쳐 세상을 구제하리라." 〈부처님 탄생게〉

싯타르타라는 중생이 부처로 태어나는 출발점이다.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이끌어내는 내용이다. 중생인 싯타르타가 부처되고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의 길을 열었을 때의 의미를 경전에서는 매우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어둠의 역사가 청산되고 광명의 역사가 시작되도다. 고통의 감옥이 부서지고 자유의 삶이 실현되도다. 불행과 절망의 세계에서 희망과 행복의 세계가 펼쳐지도다. 죽음과 파멸의 길에서 영원한 참 삶의 길이 열리도다." 〈불본행집경〉

깨달음을 통해 찾아낸 연기법의 길만이 진정한 참 삶의 길이요 희망의 길임을 온 우주가 응변하고 있다. 연기법의 길만이 하늘의 길 땅의 길이요, 너의 길 나의 길 우리 모두의 길이며, 어제 오늘 내일의 길임을 설파하고 있다. 연기법의 세계관만이 삼계를 벗어나고 부처되는 길임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이미 불교 또는 불교인이 아님을 단언하고 있다. 확실한 불교적 관점을 갖고 새천년을 준비할 때 샛별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보다 더 분명한 것은 매순간 연기법의 세계관으로 부처될만한 조건, 희망의 조건을 준비하는 것만이 진정한 천년을 준비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에 몇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1) 불교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해하여 연기법의 세계관을 확립해야 한다.

2) 연기법의 세계관에 입각한 공존, 협동, 균형의 생활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3) 올바른 수행관과 민주적 운영방식을 정착시켜야 한다.

4) 지성과 교양이 존중되고 청빈한 생활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5) 배우고 가르치고 탁마하는 생활을 통해 좋은 벗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게 해야 한다.

6) 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대비원력의 사명감을 가꾸어야 한다.

7) 비구 비구니, 출가 재가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정립해야 한다.

8) 사부대중 공동체의 전통을 회복해야 한다.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내용이다. 너무나 구태의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장담하건대, 당연하고 상식적인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한 새천년이 아니라 새만년을 준비한다 해도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임은 불보듯 명백하다.

새천년을 위해 불교계가 범불교적 최대의 불사로 준비 추진해야 할 일이 있다. 위에서 제안한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출가, 재가, 대중을 상대로 한 불교교육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새천년을 준비해야만 바람직하고 의미있으며 좋은 결실을 보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목탁소리

또 한번의 추락

지난달말 AP통신이 선정·발표한 '20세기 100대 사진'에는 한국 관련 사진이 두 장 들어 있다. 그 중 하나는 다름아닌 지난해 12월 조계사 분규를 다룬 연합뉴스의 사진이다. 이 사진은 조계사 건물에 진입하던 경찰관 5명이 고가사다리가 뒤집어지면서 10m 높이에서 낙엽처럼 추락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국불교의 추락한 이미지를 만천하에 알린 '20세기 사진'이 발표된지 사흘 뒤에 법원이 내린 판결로 한동안 진정 기미를 보이던 종단 분규가 다시 재현됐고, 판결을 내린 서울지법 이수형 부장판사가 갖가지 협박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매일 밤 걸려오는 정체불명의 협박전화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부모님 집 위치를 안다"며 가족들까지 겨냥하고 있고, 심지어는 '축 이수형판사 사망'이라는 카드가 든 꽃바구니까지 집으로 배달돼 가족들을 극도의 불안감에 떨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부장판사 협박 사실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됐다. 협박범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국민들은 당연히 이번 판결에 불만을 품은 불교인의 소행으로 여길 것이다. 불교인이 했던 안했던 불교의 이미지는 지난번 조계종 사태때와 마찬가지로 또한번 추락했다.

이번 판결이 불교계에 혼란을 불러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판관과 그 가족을 위협하는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일이 과연 불교를 위하는 일이고 불자다운 행동일까. 판결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절차를 통해 풀어나가야지, 불만이 있다고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은 불자답지 못한 것은 물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 가장 저질적이고 야비한 짓이다. 협박과 같은 비열한 행동으로 불교가 얻을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 이래저래 마음상한 불자들에게 더이상 부끄러움을 안기지 말았으면 한다.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열린마당

'조계종 분규'에 대한 PC통신 반응

현 조계종 사태를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라리 분노에 가깝다. PC통신에 오른 불자 네티즌들은 일촉즉발과 같은 현상황에 큰 우려를 표하면서 지난번과 같은 폭력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 불교계를 순식간에 혼란으로 몰아넣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다. 그러나 속가법에 휘둘리는 불교계의 나약함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한계를 지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음은 천리안과 하이텔에 오른 네티즌들의 반응을 요약한 것이다.

◉…종단의 문제는 불교를 구성하는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제아무리 선방에서 참선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교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불교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이 주인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불교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CHOSO1〉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기득권을 떨쳐버리고 처음부터 정말 초발심으로 시작하는 자신있는 불교…, 오늘 콩을 뽑으면서, 마당에 떨어진 노란 콩 한알을 주으면서 그런 불교를 생각해봤다. 그런 중에 접한 조계종 분규는 갑자기 폭탄을 맞은 기분이다. 〈JBW000〉

◉…하도 열이나서 일간지를 샅샅이 훑어 봤습니다. 제발 이 추악한 일들이 빨리 없어지고 불교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어지기를 발원합니다. 하늘이 있고, 호법신중이 있다면 불순한 의도로 불교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에게 철퇴를 내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판사든, 정화개혁회의든, 현 종단 집행부든, 과거 집행부든 간에 말입니다. 〈TIGERK〉

◉…정화개혁회의라면 조계사에서 난동을 부린 그 무시무시한 폭력배를 연상하게 된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불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을 세속인이 어리석은 잣대로 재단하여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나. 불자들은 단합해서 정법을 지켜야 한다. 〈고른세상〉

◉…법원이란 기관은 유연성을 보인다거나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어진 자료에 의해 과연 주장하는 바 타당한가를 판단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세간법이 우리들의 일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 세간법을 먼저 끌어들인 쪽은 현 집행부이고 그에 대해 이번엔 정화회의 쪽이 법적인 대응을 하였을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재롱이〉

◉…조계사에 또 한번 폭력사태가 올지 걱정이 된다. 폭력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간디는 말하기를 폭력은 동물의 법칙이요, 비폭력은 사람의 법칙이라 했다. 이 정도의 윤리를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위없는 불도를 닦는다고 할 수 있을까. 〈ZPDEB217〉

◉…현 총무원이 물러날 수 없다고 버티고, 정화개혁회의측이 법집행을 한다고 총무원에 들어오면 다시 전쟁이 나는 거겠지요? 현 총무원집행부든 정화개혁회의든 재가자들 입장에서는 다 같은 스님들인데 설혹 어느 쪽이 더하고 덜하고가 있다 하더라도 정법수호차원보다는 종권쟁탈전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NANGA〉

◉…감이나 따자. 여기보니 형편이 없다. 그렇게 해봐야 윤회일 뿐이다. 차라리 뜰 앞의 한 개의 감 값어치도 안된다. 조계종이 그렇다. 밤도 은행도 모과도 탱자도 딸 것이 많다. 저 나무들 중에 열린 한 개의 과실 값어치도 안되는 사람들, 저 열매들은 나에게 중생들에게 허기라도 면하게 해주지만…. 〈PBOBJANG〉

◉…또 다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그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을 논하고 물에 빠져 자신도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 중생을 구하겠다고 하는가. 웃기는 일이다. 〈ANDNLWK〉

◉…다른 게시판을 둘러봐도 불교만큼 어수선한데가 없을듯 싶군요. 이래서야 처음 종교를 접하는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낼리가 없지요. 모두 노력합시다. 아무리 좋은 진리를 이야기해도 사람들의 본성과 합일하여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면 별무소용일 것입니다. 〈amida〉

◉…사법부는 10월1일과 2일의 판결을 통해 대한불교조계종의 갈등을 훌륭하게 조장하였으며, 이미 형성되고 있던 화합의 기운을 훌륭히 해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사법부의 판결문은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의무를 유기하고, 법정신의 부재만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새벽동산〉

◉…종교가 사회를 선도하지 못하고 사회현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회법이 종교의 사태에 관여하는 것이다. 지금의 조계종단 권력다툼의 양상은 어느 일방만의 책임은 아니다. 종헌종법사수를 외치는 사람들도 여법하지 못하고 정화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법하지 못한데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CHOI1214〉

◉…이번 사태가 끝난다 해도 불교내에서 세속법을 등에 업고 싸우는 모습은 여전하겠죠. 종단의 문제만큼은 불자들의 합의에 의해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KIMDORI〉

◉…국가도 개혁을 위해서는 몇 사람의 희생을 감수하거늘 어찌 자기를 버리고 모든 생명을 제도하겠다는 승려들이 이럴 수 있는가. 희생이면 희생, 욕심이면 욕심임을 분명히 밝혀라. 왜 이리 법의 이름으로 욕망을 채우려 하는가. 〈신온달〉

"불법외면 세속법에 의존 싸워서야"
"사법부 법정신 부재…폭력 우려"

공 고

폭력집단 정화측은 온 종도와 국민 앞에 참회하고 해산되어야 합니다.

최근 서울지방법원 민사42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하여 종단내 일부 혼란이 야기된바 있으나 그것으로 종단의 자주권과 법통이 훼손될 수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10월4일 통도사를 제외한 23개 교구본사 주지회의와 중앙종회에서는 현 종단 및 집행부를 적극 지지할 것을 결의하고, 사법부의 오판 및 정권 일부에 대하여 자성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0월12일 '불교 자주권과 법통 수호를 위한 제1차 사부대중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본 호법부는 종단의 안정과 법통수호를 위해 종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1998년 종단사태를 야기한 폭력집단 정화측은 한국불교 1600여년 법통을 계승한 본 종단에서 비승가집단으로 규정되어 멸빈 등의 중징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지법 민사42부에서 지정하였다고 하는 도견 총무원장 직무대행도 고산스님의 항소포기로 그 지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폭력집단 정화측은 금번 사태를 빌미로 또 다시 종권탈취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종단과 종도들을 대상으로 온갖 책동을 벌이고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멸빈 등 중징계로 종단에서 빈척된 폭력집단 정화측의 갖가지 책동에 이용되거나 현혹된 후과로 종단내에서 불이익을 받는 종도가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1998년 종단사태로 인해 해종특위의 조사 내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승려의 경우 현재의 일부 혼란을 기화로 폭력집단 정화측에 동조하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호법부에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향후 종단의 대화합 조치시 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엄중히 가중 처벌할 것임을 밝히오니 당사자들은 참회자숙과 개전의 정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43년 10월 6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종지

현 종단 상황에 대한 포교사단의 입장

지난해 우리는 조계종단이 다시 한번 비극적 폭력사태와 함께 타율적으로 수습됨을 모든 불자들과 함께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러면서 또한 종단이 자주적으로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화합되고 안정된 종단으로 나아가기를 한없이 기대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1일 . 2일에 이루어진 소위 정화개혁회의 소송청구 및 지혜롭지 못한 사법부의 무책임한 판결로 야기된 현 종단의 위기 상황에 대하여 경악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

지난 9개월에 걸쳐 자숙과 참회의 마음으로 지켜온 종단의 안정과 화합의 기대를 여지없이 부셔버린 실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제2의 종단사태를 막고 종단의 정통성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 조계종 포교사는 불퇴전의 결연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포교사단의 의지를 밝힌다.

첫째. 종단의 정통성과 자주권을 유린한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명백한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다. 단지 절차상의 사소한 문제를 이유로 한국불교의 대표 종단을 혼란에 빠뜨린 지혜롭지 못하고 무책임한 판결에 엄중히 항의한다.

둘째. 지난해 엄청난 폭력사태를 야기시키며 종단을 혼란에 빠뜨리고 사부대중의 가슴에 씻지못할 상처를 입힌 소위 정화개혁회의는 이번 사태를 빌미로 외부의 힘을 빌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저해하는 일체의 반 불교적 행동을 즉히 중단하라.

셋째. 우리 포교사는 현 종단의 정통성을 뒤흔드는 어떠한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10월 4일의 교구본사주지회의와 중앙종회의 법통수호결의를 적극 지지하고, 오는 12일 "불교자주권과 법통수호를 위한 사부대중 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실천의지를 보여 줄 것이다.

넷째. 우리 포교사는 이번 종단의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그동안 실추되어 있었던 청정승단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면서, 자숙과 참회의 모습으로 이번 사태가 출가 승단의 화합과 단합된 모습으로 의연하게 수습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불기 2543년 10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서울. 경기 포교사단 / 부산. 경남 포교사단 / 대구. 경북 포교사단
대전. 충정 포교사단 / 광주. 전남 포교사단 / 전주. 전북 포교사단

WWW.buddhatv.com

불교인터넷TV 12월 개국

교계뉴스·선만화 프로등 마련

가상공간서 신행활동도 가능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안방에서도 법회와 법문 및 다양한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다. 밀레니엄시대를 앞두고 교계 최초의 인터넷TV가 개국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12월1일 개국을 목표로 특집 프로그램을 비롯해 뉴스, 음악, 만화, 사이버 법당 등 인터넷 환경에 발맞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인터넷TV인 BIT(Buddhist Internet Television)가 바로 그것. 현재 웹디자인과 웹프로그래밍 작업에 착수한 BIT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상대로한 다각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새로운 포교매체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임동민대표겸 책임프로듀서를 비롯해 시스템엔지니어, 웹디자이너 등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BIT가 현재 마련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BIT뉴스 △한국의 불교문화 △음악방송 △선만화 △불교교양강좌 △사이버법당 등 10여 종류이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컴퓨터만 켜면 예불 및 독경소리가 흘러나오며 고승들의 설법을 동화상으로 제작 방송해 사찰에 가지 않아도 가상공간에서 모든 신행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프로인 '사이버법당'.

이외에도 신세대 포교를 위해 VJ를 기용해 경직되기 쉬운 채널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복안을 마련하고 있다.

BIT는 영상물제작 방송이외에도 개인 휴대폰을 이용한 불교 경전의 문자 전송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동민대표는 "2000년대 초까지는 인터넷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일 만큼 인터넷 포교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포교 방법이 고려되지 않고서는 불교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인터넷TV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월부터 시험방송에 들어가는 BIT는 불교포교를 위해 방문하는 네티즌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며 일부 프로에 한해서 국제포교를 위해 영어방송도 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기록-구비전승류 통합정리"

동국대 전자불자硏 설립기념 세미나

임기중교수 '불전전산화 방향' 제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인터넷으로 한국불전 소개를 하고 있는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가 한국불전 전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화두로 설립기념 세미나를 6일 개최했다.

'21세기의 불전 전산화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불전 전산화의 범주와 방향'을 발표한 임기중 교수(동국대)는 한국불전의 개념을 정리하고 전산화를 위해 전자불전연구소 뿐만 아닌 동국대 내의 전문인력 활용안을 제시했다.

임 교수가 제안한 한국불전의 개념은 불교설화 신화 민담을 포함한 구비전승계와 고려대장경류 한국불교전서류 한국불교사서류 등 기록전승계를 포괄하는 것이다. 이는 15세기 한글불전이나 한글 불교가사와 같은 한글불전 전체가 한건도 누락없이 모두 정리돼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전산화 부분에 있어서 임 교수는 한국불전 정보화를 다섯단계로 나눠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한국 불전 총 목록 작성, 두 번째는 한국불전의 원전을 확정하고 각 불전별로 정밀한 대교표(對校表) 작성, 세 번째는 한국불전 데이터 베이스 구축, 네 번째는 한국불전 정보 베이스 구축, 다섯 번째는 한국불전 데이터 베이스와 정보 베이스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 내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의 단계이다.

임 교수는 "동국대의 모든 인력을 활용해 추진한다면 국고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취가능성은 물론 정보화의 내용 또한 아주 바람직한 모형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언어 불교용례 사전의 전산화'를 발표한 이종철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벳어, 한자, 우리말 등으로 구성될 다언어 불교용례 사전 편찬의 첫 단계는 불교학 분야의 기본 문헌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이라며 "번역후 우리말 교정 전문가에게 일단계 교정을 거친 후 컴퓨터 통신망으로 학계의 연구자에게 배포해 교열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언어 불교용례 사전은 CD롬으로 제작해 승려교육용 교재로, 세계에 판매할 수 있는 문화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려시대 대장경의 역사-보광스님 △고려대장경의 인터넷 검색 및 열람-윤용석 실장(고려대장경연구소) △한국불교전서 전산화에 대해-이용규 이금석 홍영식 교수(동국대) 보광스님 등이 발표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올해 1월 세계전자불전협의회 대만총회에서 한국지부로 지정된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는 2001년 동대 개교 95주년을 맞아 세계전자불전협의회 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불교음악회 가면 가을을 느낀다

진관사·관문사·나눔의 집 등서 열려



◇가을을 맞아 고운 선율에 불심을 키우는 음악회가 다채롭게 마련된다. 지난해 11월 열린 '진관사 산사음악회'.

깊어가는 가을 뭇풀벌레 소리 들리는 산사에서 고운 선율을 만나보자.

은평구 진관사는 16일 진관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오후5시 '제2회 산사의 작은음악회'를 개최한다. 1부에서는 진관사합창단의 '참회합니다' '이 작은 생명을' 등 찬불가 합창과 불교전통무형문화재 전수생 스님들이 범패 및 바라춤등 불교음악의 정수가 공연된다. 2부에서는 중앙국악실내악단의 '축연무' '경기민요' 등 전통민요 연주와 성악가인 범조스님의 '뱃노래' '한오백년' 등이 연주돼 관객들의 흥을 돋구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02)359-8410

17일 오후1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야외공연장에서는 나눔의 집 주최로 '보은의 다례연-차와 우리 음악과 할머니와의 만남'을 주제로 음악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국악연주와 살풀이 춤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 (0347)768-0064

이외에도 천태종 관문사 옥불보전에서는 24일 오후2시 '전국 합창단 찬불가 제전'이 마련된다. (02)3460-5300

김주일 기자



◇조선 중기에 제작된 목조관음보살좌상.

관음사 관음보살좌상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 관음사의 목조관음보살좌상과 왕벚나무자생지, 북제주군 선흘벵뒤굴과 북촌동굴 등 문화유산 4건을 도문화재로 각각 지정했다.

유형문화재 16호로 지정된 목조관음보살좌상은 17세기에 제작된 경북 예천의 국가보물 986호 용문사 목각탱 관음보살상과 비교할 때 부드러운 양감을 사용한 점은 비슷하나 눈, 코, 입에 단아한 미소를 띄게 한 표현방식은 더 돋보인다는 것이다.

또 관음사 경내의 왕벚나무 4그루는 100년 가량 군락을 이뤄 자생하는 데다 꽃의 형질도 우수해 문화재로 각각 지정됐다. 이외에도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벵뒤굴은 용암구와 종유관, 용암선단등 다양한 생성물이 형성돼 지질학적 보존가치가 인정돼 지정됐다.

고려불교공예품 '한자리에'

31일까지 청주박물관 '고려공예전'



◇청선보이는 사뇌사 출토 고려 '금강령'과 '청동수반'.

국립청주박물관은 4일부터 31일까지 '99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기념 '고려공예전'을 국립청주박물관 별관에서 연다.

전시품은 지난 93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무심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출토된 사뇌사 유물 청동범종 청동금고 금강령등 충북 지역에서 출토됐던 고려시대 공예품 120여점.

사뇌사 출토 유물은 부식이 심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3년간 보존과학처리를 거쳐 이번에 처음 선보이게 된 것으로 21세기를 앞두고 보는 고려시대 유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전시는 불교공예와 일반공예로 나눠 꾸며진다. 불교공예는 법음구, 공양구, 생활용구 등으로 구분해 같은 유형의 유물을 비교전시하고, 일반공예는 도자기, 동경, 금속유물 등의 일상용구를 종류별로 전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전을 기념해 공개강좌도 마련한다. 강좌는 16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을 초청 '청주 사뇌사 유물의 성격과 의의'에 관해 강의를 듣는다.

옥천사 유물전시관 개관

경남 고성군의 신라 고찰 옥천사(주지 호암)가 유물전시관 '보장각'을 11일 개관했다. 97년부터 짓기 시작한 보장각은 지하1층 수장고와 지상2층 전시실을 갖춘 연건평 150여평 규모의 전통목조양식으로 지어졌다.

보장각은 임자명반자(보물 제495호), 청동은입사향로(유형문화재 제59호), 범종(유형문화제 제60호)등 옥천사에 소장된 성보문화재 3백점을 순회 전시할 계획이다.

유물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임자명반자', 반자란 사찰에서 공양·예불시간 을 알릴 때 쓰는 쇠북. 고려 고종 39년에 만들어진 이 보물은 측면에 1백 87자의 명문이 새겨진 귀중한 유물이다. 또 보장각에는 영산회상도, 지장탱화, 명부시왕탱화, 각종 고문서와 경판 등 경남 유형문화재 제299호로 일괄 지정된 옥천사 유물 119점도 전시된다.

문화재전문지 잇단 창간

문화재 발굴·보존·현황 등의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국문화재신문'과 '박물관 보존과학'이 1일 각각 창간됐다.

㈜한국문화예술의도시(회장 이금선)가 창간한 '한국문화재신문'은 타블로드 크기로 총 24면 격주간지로 발행됐다. 창간호에는 서정배 문화재청장, 원로미술사학자 진홍섭씨 인터뷰를 수록했다. (02)702-4501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이 유물의 보존처리 연구결과를 엮은 〈박물관 보존과학〉에는 훈증소독이 서화류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훈증소독에 따른 서화류의 안료 변색 및 ph변화 유무 조사', 최초로 확인한 가야시대 안료인 진사(황화수은)와 철사(산화철)를 소개한 '창녕 교동 제11호분 발견 직물편의 적색안료' 등 9편의 논문이 실렸다.(02)398-5145

단 신

북한문화재 인터넷으로 본다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문화재들을 볼 수 있는 '남북 통합 문화관'이 개설됐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초기화면에서 '문화관' 아이콘을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곳에는 3만5천여건의 남북문화재 자료가 제공된다.

북한의 자료는 유물, 유적, 미술, 민속 사진 8822점, 동영상 50점을 포함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일반인이 보기 어려웠던 고려시대 중기 금동석가여래좌상등 국보·보물급 문화재 30여점도 섞여 있다.

새로운 세기여 달려오라. 미래는 우리가 연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한의과 대학 부속

불교종합병원 건립





인간화·첨단화·정보화된 21세기 열린 병원

1600년을 이어온 우리 불교사에 새로이 기록될 대자대비의 정화 - 불교종합병원!
자비광명의 정신을 실천하고 이 시대에 약사여래의 12대원을 실현하기 위해 동국대학교가 일산 신도시에 불교종합병원 건립의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병들어 고통받는 이들이 주인인 병원, 양한방의 협진시스템을 통해 동서양 의학이 조화되는 병원, 최우수 의료진과 첨단시설에 의한 최상의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병원, 이제 불교종합병원이 21세기 열린 병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착공식 및 축하공연 일정
· 일시 : 1999년 10월 14일(목) 14:00
· 장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동국대 실험농장 / 아구장)
· 사회 : 김병조
· 출연 : 정미화, 신영희 외 연예인 다수 출연
※ 행사당일 교통 혼잡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캠페인
· 만불봉안운동 : 부처님을 조성하여 모시는 공덕은 수미산과 같습니다.
※ 1백만원 이상 기부자께 원불법당인 대각전 에 개인 또는 가족친체 명의로 불상을 봉안해 드립니다.
· 자비의 벽돌쌓기 운동 : 2천만 불자가 자비의 벽돌 을 쌓으면 약사여래의 대원을 이룹니다.

※ 동참방법 : 자비의 벽돌 한 장(1만원)이상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 동국사랑저금통갖기운동 : 저금통이 필요하신 분이나 저금통을 가득 채운 분께서는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용도 : 불교종합병원 건립 / 교육시설확충 / 연구 및 실습 기자재 구입 / 도서관 장서 구입 / 국가고시 육성 후원 등

기금접수 ARS안내
7000-119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은 (02)7000-119로 하시면 됩니다)
■ 금 액 : 전화 1통화에 5,000원 (1일 중복통화는 1회만 인정)
■ 문의처 :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 (02)2260-3300, 2260-3792~5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주관 : 동국대학교 불교종합병원건립행사 위원회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불교진흥원, 불교방송, 불교TV,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주간불교, 대한불교, 시대불교, 고양시/파주시 사암연합회

들뢰즈의 禪的 사유 조명

이정우 교수 '삶·죽음·운명' 펴내

스토아 철학·선·현대문학 하나로 묶은 담론

'우리는 누구인가' 등 인간의 근원적 문제 접근


◇이정우 교수

20세기말 서양 철학계에서 선화(禪花)가 움트고 있다. 이정우 전 서강대 교수가 최근 〈삶·죽음·운명〉(거름 刊)을 출간하고, 20세기를 대표하는 후기구조주의 철학자 질 들뢰즈(1925~95·프랑스)의 사유 체계로써 선(禪) 사상을 집중 조명했다.

들뢰즈는 베르그송·화이트헤드와 함께 철학 뿐만 아니라 문학, 미술, 영화등 각 문화 분야 이론가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을 정도로 20세기 철학계의 거봉으로 우뚝 선 인물.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던지게 마련인 근원적 물음을 탐구했던 들뢰즈는 대표작 〈의미의 논리〉에서 핵심개념으로 제시한 '사건의 존재론'을 서양 사상에 한정시키지 않고, 선불교에까지 확장해 철학적 동·서 가로지르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삶·죽음·운명〉은 이 씨가 지난 봄 이화여대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들뢰즈 사상을 강의한 내용을 엮은 것으로, 이씨는 이 책에서 스토아철학-선불교-현대문학을 하나로 묶은 담론으로 들뢰즈의 선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들뢰즈가 스토아철학을 기초로 삼은 것은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표면, 현실을 중시하는 철학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현실이란 무수한 역사적·일상적·자연적 '사건'들로 가득찬 세계이다. 이 사건들이 계열을 이룸으로써, 다시 말해 연쇄고리로 파악됨으로써 의미가 태어난다. 들뢰즈의 철학적 경향은 계열화한 사건들의 의미와 더불어 살면서 동시에 관습화하고 통념화한 의미 계열의 총체인 이 세계를 일탈하려는 데 있다.


◇후기구조주의 철학자 질 들뢰즈

이씨는 들뢰즈의 '일탈'에 주목하고, 바로 선불교의 깨달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화두를 붙들고 평생을 고뇌하던 선승이 어느 순간 섬광 같은 깨달음에 부딪히는 각(覺)의 경지란 말하자면, 머릿속을 지배하던 계열화한 생각을 일시에 깨뜨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씨는 이 순간을 '일탈'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들뢰즈는 스토아학파에서 사건의 존재론을 끄집어 내고 제도·규율·법 등을 벗어나서 순수와 자유를 사유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진리를 갈구하는 선승의 만행, 쉽게 이해되지 않는 화두, 선문답, 섬광과도 같은 악살, 갑자기 한대 얻어 맞은 듯한 악살 등 선승의 모습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이정우씨는 "선불교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은 평상심, 즉 깨달음이 깃든 일상"이라며 "이것은 현실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닌, 들뢰즈의 사유처럼 현실을 포함한 수많은 차원들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값 9천8백원.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한국문화의 원형찾기 詩人의 탐미적 유람기

고은 '절을 찾아서' 컬러판 재출간



고은시인이 10여년 동안 불교에 귀의해 승려로 지낸 경험과 그의 불교적 세계관이 하나가 되어 한국문화의 원형을 뿌리깊이 들여다본 문화기행집 〈절을 찾아서〉(책세상 刊)가 전면 컬러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

1987년 초판을 출간한 이후 17쇄를 거듭하면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 책은 전문가의 사진 60여 컷을 포함하여, 바뀐 행정지명과 표기법을 바로잡고 새로운 조관과 장정을 갖추었다.

또 각 절과 산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벌 지도, 산과 사찰의 약사, 중요 문화재 자료도 함께 실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이 책에서 저자는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서울·경기 등 전국 6도에 걸쳐 명산과 명찰 61곳을 유람하여, 1천5백년 이상 우리 민족 역사의 산증인이 되어 온 산사에 어린 눈물과 웃음, 구도의 역사를 특유의 서정적인 문체와 탐미적 감성 속에 그려냈다.

"내 청춘 그 자체가 구름과 물"이었다고 머리말에서 밝힌 시인의 방랑의 기록인 이 책은 읽는 이에게 불심으로 구현된 불사앞에서 지혜와 용기를 주고 있다. 값 1만2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2	달라이 라마 예수를 말하다	류 시 화	나무심는사람
3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4	여든살의 연꽃 한송이	이 남 덕	불 광
5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 장	우 리
6	기도	일 타	효 림
7	나는 아직도 스님이 되고 싶다	최 인 호	여 백
8	무소유(개정판)	법 정	범 우 사
9	참선요지	대 성	여시아문
10	산에는 꽃이피네(대)	법 정	동쪽나라

구입문의:(02)737-0695

유적과 설화로 본 천년경주

하일석씨 '경주 역사기행'



신라 천년의 불교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경주의 불교유적을 한눈에 찾아 볼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문화체험 길눈이' 시리즈로 출간된 〈경주 역사기행〉(그린글 刊)은 경주 일대의 문화유산을 '역사적인 안목'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유물·유적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신라사를 연구하고 있는 하일식씨(연세대 강사)가 120여 군데에 이르는 많은 유적에 관련된 설화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사, 사상사, 미술사, 고고학의 연구성과를 반영했다는 점이다. 또 이 책은 기존의 책 모양을 탈피, 초행길에 나선 답사객들에게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각 편마다 지도를 수록했다.

저자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주를 찾는 이들에게 안내 역할을 할 목적으로 꾸며졌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값 1만2천원.

삼국천태의 역사와 현황 '한눈에'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일본 삼국의 천태종 역사와 현황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삼국이 공동으로 펴낸 〈중국·한국·일본 삼국 천태 마음의 여행〉는 삼국 천태의 역사와 현황 및 우리나라의 구인사, 관문사 등 15곳, 중국 3곳, 일본 20곳 등 각국의 천태종 소속 사찰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책에는 부록으로 삼국 천태종 연표를 비롯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묘 등을 싣고 있다. 비매품.

새로나온 책



▲그리운 곳에 옛집이 있다(이형권 지음)= 고향의 진정한 의미를 되묻게 하는 고향 옛집 순례기. 꼭 가볼 만한 전국의 유명 고향의 옛집 24곳이 소개돼 있다. 번뇌는 사라지고 푸른 산을 만난다는 완주 화암사, 산도 물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속내도 푸르른 하동 평사리 등 21세기를 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귀중한 삶의 지혜, 고향의 옛집과 마을 그리고 고향의 정신을 만나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해들누리 刊. 값 8천원.



▲법륜스님의 통일로 가는길(좋은 벗들 刊)= 분단 50년의 상황을 재조명하고 민족화해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고사와 민족독립운동사의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책. 이 책은 법륜스님이 (사)좋은 벗들에서 활동하면서 했외를 했던 내용을 모아 엮은 것이다. 식량난 이후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밝히고, 우리가 해야할 일을 제시하고 있다. 총론 '민족의 역사를 통해 본 민족통일의 길'을 시작으로 1부 북한 식량난과 새로운 통일운동, 2부 민족의 화해와 민족통일의 길로 구성되어 있다. 값 7천원.



▲페허의 붓다 외전(손성애 옮김)= 〈페허의 붓다〉 〈속페허의 붓다〉에 이은 무묘앙에오의 붓다시리즈 최종판. 저자는 붓다시리즈를 통해서 현대 과학의 경계를 뛰어넘는 생(生)과 사(死)의 비밀, 석가, 예수 등 세계적 각자(覺者)들의 깨달음의 본질, 신비체험의 비밀, 에고의 절대적 소멸과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경로를 좇고 있다. 모색 刊. 값 1만원.



▲비의의 심리학(이하정 번역)= 진화의 과정은 의식의 발전 속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인간은 동물들보다 더 의식적이다. 붓다는 인간보다 더 의식적이다. 불성 깨달음 모두가 같은 의식의 피어남을 의미한다. 저자 오쇼는 "무의식적인 진화는 인간으로 끝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내적인 혁명, 명상의 신비, 꿈과 심리학, 지식의 오류 등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황금꽃 刊. 값 8천원.

고려말 나옹의 선사상연구 효탄스님 지음

화제의 책

나옹스님의 행장과 사상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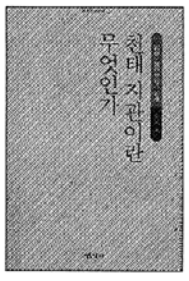
〈고려말 나옹의 선사상연구〉(민족사 刊)는 나옹스님이 조선대에 와서 석가모니불의 후신 또는 조사로서 숭앙되었던 점은 원융무애·대기대용한 선사상을 적극 활용한 결과라고 결론지었다.

이를위해 나옹스님의 생애와 행장, 선사상의 특징, 법손과 법통설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스님에 대한 사상적 평가와 그의 인간상을 살펴보고, 스님이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를 규명하고자 했다"고 출판의도를 밝혔다. 이 책은 효탄스님이 〈나옹혜근의 선사상 연구〉라는 제목으로 제출했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해 엮은 것이다. 값 1만2천원.

천태지관이란 무엇인가 오지연 지음

화제의 책

원돈지관의 행법과 영향등 다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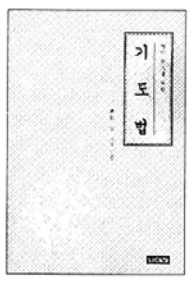
〈천태지관이란 무엇인가〉(연기사 刊)는 천태의 지관법(止觀法)을 대표하는 '원돈지관'의 성립과 전개에 대해 밝히고, 참 수행법으로 천태지관법을 재정립하고 있다.

오지연씨(동국대 불교학과 강사)가 박사논문 '천태지의의 원돈지관 연구'를 보완한 이 책은 천태지관사상의 성립배경 및 형성과 전개, 원돈지관의 구조와 실천행법, 천대지관과 화엄·선종의 교섭 네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천태지관과 선종과의 관계까지 살펴봄으로써 불교의 수행에서 선과 원돈지관의 상호보완을 통하여 바람직한 실천 행법을 모색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값 9천원.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법 화암스님 지음

화제의 책

영가천도의 의미와 방법 자세히



"생전에 좋은 인연을 닦지 않고 죄만 지은 사람은 죽은 후 그 권속들이 그 사람을 위해 공덕을 베풀지라도 그가 받을 수 있는 공덕은 1/7뿐이고 나머지 6/7의 공덕은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49재는 영가를 위한 자리임과 동시에 가족들을 위한 자리임을 〈지장보살본원경〉은 밝히고 있다.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법〉(여래 刊)은 누구라도 쉽게 49재 영가천도를 위한 의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49재와 천도재의 의의, 영가천도 기도문, 기도법, 독경, 그리고 49재 천도재를 준비하는 마음자세를 일목요연하게 수록하고 있다. 값 6천원.

현대불교 창간 5주년
새롭게 태어납니다

언제나 '새로운' 부처님 가르침!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전하겠습니다

大韓佛敎 曹溪宗
한마음선원(禪院)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 전화 : 사무처 (0343)472-3100
팩 스 (0343)470-3116

● 국내지원 ●

● 한마음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산5-2 Tel : 0446-877-5000/0462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하동 1500번지 Tel : 064-721-4662
● 부산지원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 광주지원 광주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3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451-17 13블럭 9-2노트 Tel : 052-284-0884
● 대구지원 대구시 중구 남산1동 2105-2 대광빌딩 7층 Tel : 053-426-2779
● 중부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9-1 Tel : 0525-342-6630/6639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0591-746-8163, 744-1321
●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44-21 Tel : 042-532-1481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상도동 18-99 Tel : 0562-275-316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833 Tel : 0431-259-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989 Tel : 0391-651-3003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7-643-0643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631-284-1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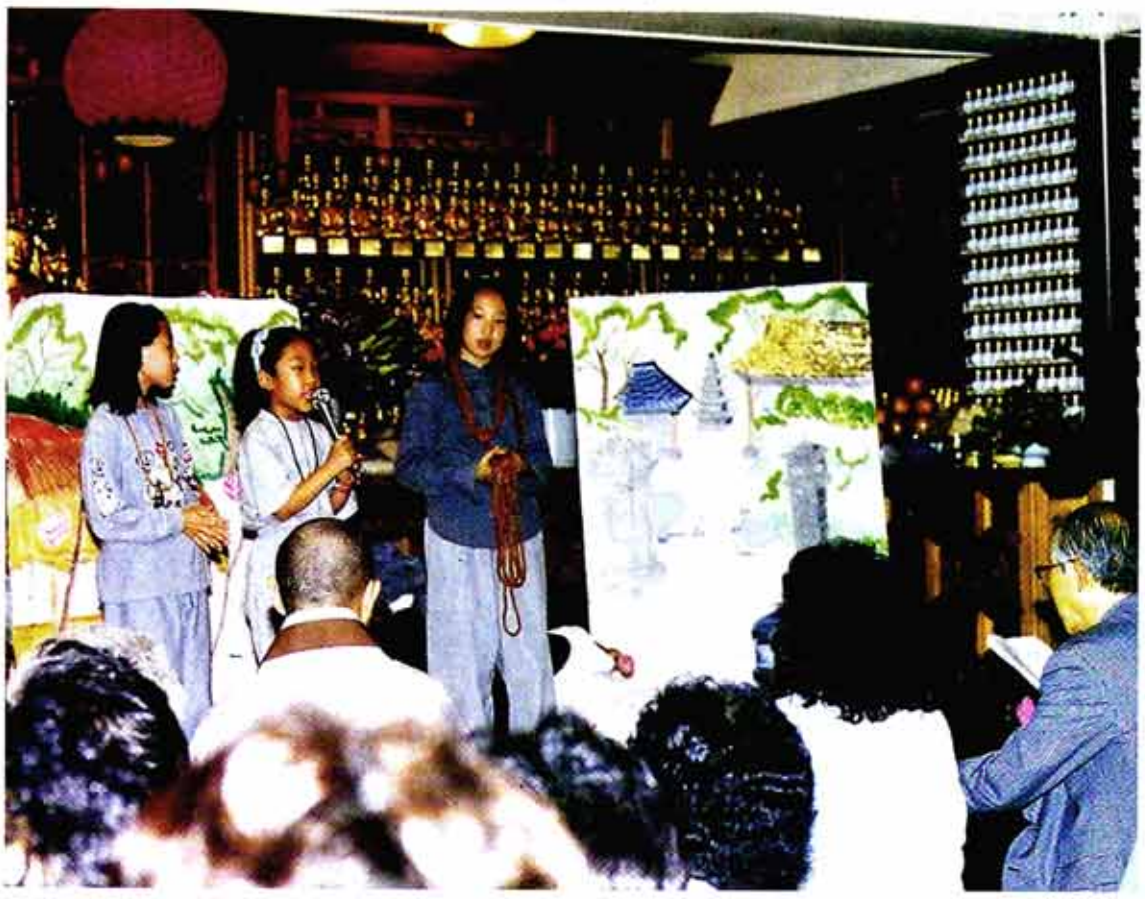
● Overseas Branch 해외지원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11354 Tel : 718-460-2019 / Fax : 718-939-3974
● Washington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l Rd. Annandale VA. 22003 Tel : 703-560-5166 / Fax : 703-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210N Catalina St, L.A.CA. 90004 Tel : 213-382-1711 / Fax : 213-386-8852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Lincoln Ave.Skokie IL. 60077 Tel : 847-674-0811 / Fax : 847-674-2280
-CANADA (카나다 지원) 20 Mobile Dr,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 : 416-750-7943 / Fax : 416-750-3091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p1406, Rep. Argentina Tel / Fax : 54-11-4921-9286
● Tucuman (뚜꾸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CP4107, Tucuman, Rep. Argentina Tel / Fax : 54-381-425-1400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 49-2131-969551 / Fax : 49-2131-969552
-Thailand (태국 지원) 43 pattanavet Sukhumvit Soini Bangkok, Thailand Tel : 662-711-2005 / Fax : 662-391-6425

시방세계

인터넷 전자신문 현대불교 http://news.buddhapia.com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완조건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예술인, 지식인 등 중산층들이 모여사는 신도시에는 초·중학생의 자녀를 둔 30~40대의 중장년층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법회의 활성화가 포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진은 분당 연화사 어린이회가 초파일을 맞아 연극을 하는 모습.



◇콘크리이트 건물 사이에 둘러싸인 신도시포교당은 종교적인 기도수행처외에 친목도모를 할 수 있는 사교공간 및 문화공간의 역할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사진은 일산에 있는 송광사 포교당 정혜사 전경.

신도시 포교 노하우 찾자

일산엔 교회 357곳…사찰 21곳뿐
분당 평촌 산본등도 불교세 열악

중산층 밀집지역 포교 황금어장
사찰 건립등 종단차원 대책 필요

신도시란 신경제 5개년 계획을 통해 92년부터 건설부가 중심이 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교통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해 건설한 도시를 말한다. 이러한 취지로 정부가 건설한 신도시는 현재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수지 등 6곳. 앞으로 정부는 서울 서쪽의 김포, 서북쪽의 고양, 남동쪽의 용인, 서남쪽의 안산 등지 중에서 추가로 신도시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신도시는 대체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택지가 조성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30만~40만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어 포교의 황금어장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교회는 우후죽순 늘어 나는데 비해 불교의 사찰은 현저히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인구 39만8천명(9월30일 현재)이 살고 있는 분당에는 교회가 26개인 반면 절은 1C개이고, 40만7천명(10월1일 현재)이 살고 있는 일산에도 교회는 357개인 반면 사찰은 21개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나 구멍뚫린 신도시 포교의 현주소를 직감할 수 있다.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역의 비싼 집세 및 생활비 문제의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 공급이 원활하고 물가 부담이 덜한 이곳으로 옮긴 경우가 많다. 또 교통혼잡과 인구 밀집에 따른 공해를 피해 장소에 따라서는 한적한 전원 생활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내재된 신도시를 주거지역으로 택하는 이들도 상당수다. 따라서 신도시 거주자들은 재정적인 기반 미련과 거주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 전출할 가능성이 높다. 신도시 인구중에는 샐러리맨을 비롯해 언론인, 예술가 및 지식 수준이 높은 계층이 많은 것도 또하나의 특징이다.

이런 신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보더라도 신도시는 교세 확장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거점지역이다. 이렇게 포교 전략상 중요한 지역이어서인지 도시가 형성되기도 전에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것이 개신교회들이다. 구청에서 선정한 종교부지 선정에도 3대 종교중 개신교의 점유율이 가장 높다. 일산만 하더라도 종교부지중 개신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 80%가 훨씬 넘는다고 일산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귀띔한다.

적극적인 선교로 교세 확장을 하는 개신교에 맞서 체계적인 포교를 하지 않는다면 한 도시 당 30만명~4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신도시이 불교가 설자리는 좁아진다.

신도시의 절이나 포교당은 현대인들에게 정신적인 귀의처와 해우침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다. 또 전통 사찰의 모습을 띤다면 그 자체가 회색빛 콘크리트단지에서 산사를 방문 한 것 처럼 도시인들에게 안온하게 다가설 수 있다. 때문에 신도시의 절은 신앙의 도량처요 직장인들의 스트레스와 지루한 일상의 삼속에서 신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쉼터의 역할도 함께 할수 있어야 한다. 특히 평일에는 직장일 때문에 시간제약을 받는 신도시인들에게는 절이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신행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 신도시의 절은 종교적인 목적이외에 결혼식장·교양대학·주민회의 등 친교공간과 다도·서예 배움터 등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서예, 다도, 무용, 찬불가 등을 도반들과 함께 배우고 복합문화 시설이란 친근한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신도 및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다. 또 스님들도 신도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말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개척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또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파트 단지마다의 구역법회를 봉행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포교 전략을 취해야 한다.

신도시 포교는 포교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지만 현재 개신교에 비해 절이 늘어나지 않는데다 문을 닫는 포교당까지 생기는 등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난 때문. 신도시포교당은 장소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세금 등 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1백만원에서 많게는 3백만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감당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중동의 대원포교당 주지 현성스님은 "종단과 본사의 지원이 전혀 없어서 큰 스님 법회 등 행사를 한 번 하려 해도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산층이 많은 이곳 신도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신도시 포교당 신도들의 연령층은 대부분 30대~40대가 많다. 따라서 타도시와는 달리 신도 자체가 젊고 능동적이며 체계적인 신행교육이 필요한 대상들이다. 하지만 신도시 포교당을 여는 스님들 대부분이 포교 경험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도시에 있는 도심 포교당은 명산에 위치한 대찰들과 서로 빈번한 교류를 통해 포교효과의 극대화와 효율화를 꾀하는 포교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신도시에 가장 많은 포교당을 개원해 활발히 포교하고 있는 곳은 통도사다. 현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일산 여래사를 비롯해 분당 장안사 및 연화사, 평촌 보림사, 중동 서래사, 탄현 원각사 등 5개 분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산에 짓고 있는 여래사는 연건평 3천평에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대법당이외에 시청각실, 소극장, 예식장, 청소년회관 등 복합 문화공간이 어우러져 본격적으로 문을 열면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송광사 일산포교당 정혜사(주지 정안)도 지난해 10월 어린이법회와 가족법회를 비롯해 생활도예 강좌 등을 마련하며 신도를 늘여가고 있다. 또 올 8월부터는 초심자들을 위한 불교 교양대학인 '목우불교대학'과 월소식지 '정혜사'를 발간하고 있는데 주지 정안스님은 "불교 교양대학의 절반 이상은 30·40대의 젊은 초심자들이 많다"며 "예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니까 출근하다가 들러 예불을 모시고 가는 사람도 생겨나는 등 신도시라는 어려움도 있지만 따라서 보람도 크다"고 말했다.

신도시 포교의 대안으로는 평일에는 도심 포교당에서 신행생활을, 주말에는 효정한 산사를 찾아가 큰스님들의 법문이나 참선 수련회를 통해 도심 포교당에서 느낄 수 없는 산사의 매력을 불어넣어 신행생활을 연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신도시 포교를 하는 스님들은 한결같이 목소리를 높인다.

포교 인력을 확충하는 것과 함께 단순한 기복 신앙의 형태가 아닌 교육과 수행, 실천과 생활 의례가 조화된 유동 인구가 많은 신도시형 신앙형태를 위해 종단 및 대규모 사찰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은 물론 체계적인 포교 방법도 선행돼야 한다.

또 신도시 구청이 타부지에 비해 30~40% 싼 가격에 지정해 주는 종교부지 확보에도 종단과 재력있는 사찰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연건평 3천평에 대웅전을 비롯 예식장, 청소년회관, 소극장 등 복합문화공간을 갖춘 신도시포교당의 대표적인 모델 일산 여래사. 12월말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신도시 사찰

지역	사 찰	전화번호
일산	여래사	(0344)905-7766
	정혜사	(0344)907-8900
	정각사	(0344)970-0553
	임조선사	(0344)903-9121
	지비정사	(0344)964-7988
	원각사	(0344)913-7744
	보원사포교원	(0344)962-5613
	원흥암	(0344)359-4492
	영천사	(0344)975-2774
	용학사	(0344)386-8849
	용화사	(0344)962-8387
분당	연화사	(0342)706-7766
	장안사	(0342)703-7766
	약사암	(0342)702-2036
	원적정사	(0342)704-8272
	천은선원	(0342)701-3309
수지	영험사	(0331)262-1186
평촌	보림사	(0343)383-7766
중동	서래사	(032)653-7766



지금 미국에선 염주 팔찌 '유행'





지금 뉴욕과 LA에선 팔찌형 염주들이 대유행을 하고 있다.

1998년 9월 뉴욕에 사는 디자이너 조 메트로여사는 불교명상과 치료의 힘을 가졌다고 알려진 수정에서 영감을 얻어 염주보석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다음해 1월 메트로여사는 보석이 발산하는 힘에 따라 색깔을 입힌 과워염주와 팔찌상품을 개발 '스탈라 페이스'라는 브랜드로 내놓았다.

이 '魔염주'는 자주색은 개달음, 초록색은 성공, 보라색은 지성, 흑색은 우울증예방, 그리고 혼합색의 염주는 명상을 각각 의미한다. 지난해 5월 '셀프'라는 잡지가 이 염주와 팔찌를 착용하고 있는 여러 명사들을 집중 보도하면서 기(氣)염주의 주가가 치솟았다. 영화배우 리차드 기어와 감가수 마돈나, 락키 마틴 등도 이 염주와 팔찌를 차고 있다.

아시아에 있는 여러공장에서 이 제품들을 유리나 플라스틱 같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내 보급한다. 이 파워 염주와 팔찌들이 뉴욕과 영국의 대형 백화점인 해로즈와 프린텝프스에서도 취급, 인기를 실감케 한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메트로여사는 곧 런던에 점시장을 낼 예정이며 유럽시장으로의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불교를 상징하는 용품인 염주가 얼마나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지 주목해 볼일이다.

〈뉴스위크〉지 최근호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 (99.9%)카드에..



▲앞면 달마도



▲뒷면 반야심경

달마는 禪을 대표하는 인물로 해탈을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영에서 중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지앤씨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행운의 "순금카드"위에 새겨서 상품화(신용신안등록 No24266호) 했다. 천만불짜 특별 보시 보급품으로 선보여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카드는 앞면에 달마도의 대가 혜원 응풍우 선생의 원본 작품을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에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압착코팅함으로써 찢어지거나 구겨짐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다.

사찰이나 불자님들의 불사 보시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할인은 물론 앞뒷면에 원하는 사진, 그림, 글씨본, 부적, 이름 등 어떠한 문안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지용 및 선물용으로 희적이며 가격은 대형 2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셋트 구매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부처님의 말씀과 신비의 달마도를 품안에 가까이…

전화주문 접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우편배달 가능하며 최고의 전신 달마도를 고급 조구액자(27cm×32cm)화한 액자용도 한정 판매한다.

※ 또한 매헌 윤종우선생님의 달마도 원본도 판매합니다.

순금판 열쇠고리 — 순금판 상반신 달마도 열쇠고리 1개 : 1만원, 3개(set) : 2만원에 판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 (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 제조판매원: 한국 지.앤.씨 (24시간 공유팩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영업점 모집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⑫

卽體之用故 慧不離定 卽用之體故
즉체지용고 혜불리정 즉용지체고
定不離慧 定則慧故 寂而常知
정불리혜 정즉혜고 적이상지
慧則定故 知而常寂如
혜즉정혜 지이상적여
曹溪云 心地無亂自性定
조계운 심지무란자성정
心地無癡自性慧
심지무치자성혜

그래서 본체를 떠나지 않는 작용이므로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았고, 작용을 떠나지 않은 본체이므로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았다. 따라서 선정은 곧 지혜이므로 고요하면서도 항상 아는 것이고, 지혜는 곧 선정이므로 알면서도 항상 고요한 것이다. 그래서 조계스님이 '마음에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기 성품의 선정이요, 마음이 어리석지 않음이 자기 성품의 지혜이다.' 한 말과 같다.

若悟如是 任運寂知 遮照無二
약오여시 임운적지 차조무이

마음에 산란함 없는 것이 선정

마음이 어리석지 않음이 지혜

則是爲頓門漸者 雙修定慧也
즉시위돈문점자 쌍수정혜야
若言先以寂寂 治於緣慮 後以惺惺
약언선이적적 치어연여 후이성성
治於昏住 先後對治 均調昏亂
치어혼주 선후대치 균조혼란
以入於靜者 是爲漸門劣機所行也
이입어정자 시위점문열기소행야
雖云惺寂等持 未免取靜爲行則
수운성적등지 미면취정위행즉
豈爲了事人 不離本寂本知
기위요사인 불리본적본지
任運雙修者也 故曹溪云 自悟修行
임운쌍수자야 고조계운 자오수행
不在於靜 若靜先後 卽是迷人
부재어쟁 약쟁선후 즉시미인

만약 이처럼 깨달아서 고요함과 아는 것에 자유로워서 선정(遮)과 지혜(照)가 둘이 아니게 된다면 이것이 곧 돈문에 들어간 뛰어난 사람이 선정과 지혜를 아울러 닦는 것이 된다. 그러나 만일 고요함으로써 반연하는 생각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깨어있는 정신으로 혼미함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면서, 선후를 따라 다스려 혼미함과 산란함을 가라앉혀 고요함에 들어가는 사람은 점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그는 비록 깨어있음과 고요함을 평등하게 한다고 하지만 고요함만을 취하는 수행을 면하지 못하니, 어찌 깨달은 사람이 본래의 고요함과 본래의 앎을 떠나지 않고 자유롭게 두 가지를 함께 닦는 것이라 하겠는가. 그러므로 조계스님은 '스스로가 깨쳐서 수행하는 것은 따지는 데 있지 않다. 만약 선후를 따지면 그는 미혹된 사람이다.' 하였다.

則達人分上 定慧等持之義 不落功用
즉달인분상 정혜등지지의 불락공용
元自無爲 更無特地時節 見色聞聲時
원자무위 갱무특지시절 견색문성시
但伊麼 着衣喫飯時
단이마 착의끽반시
但伊麼 屙屎送尿時 但伊麼
단이마 아시송뇨시 단이마
對人接話時 但伊麼 乃至行住坐臥
대인접화시 단이마 내지행주좌와
或語或默 或喜或怒 一切時中一
혹어혹묵 혹희혹노 일체시중일
一如是 似盧舟飄浪 隨高隨下
일여시 사허주가랑 수고수하
如琉水轉山 遇曲遇直 而心心無知
여류수전산 우곡우직 이심심무지
今日騰騰任運 明日任運騰騰
금일등등임운 명일임운등등
隨順衆緣 無障無碍
수순중연 무장무애
於善於惡 不斷不受
어선어악 부단불수

그러므로 깨친 사람의 경지에서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진다는 뜻은 애써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무위라서 어떤 특별한 때도 없다. 즉 빛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에도 그러하고, 옷 입고 밥 먹을 때에도 그러하고, 똥 누고 오줌 눌 때에도 그러하고, 남과 이야기할 때에도 그러하고, 내지 걷거나 서 있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혹은 기뻐하거나 성내거나, 언제든지 항상 그러하다. 마치 빈배가 물결을 따라 올랐다 내렸다 하고, 흐르는 물이 산을 돌아나갈 때 굽이돌아 가기도 하고 바로 흘러가기도 하듯이 마음마음이 알음알이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도 무심하여 자유롭고, 내일도 무심하여 자유로워서 온갖 반연을 따라도 아무런 장애가 없고, 악을 끊거나 선을 닦는다는 생각도 없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메달로 나툰 20세기 고승 수행한담

"한평생 수행과 교화로

1900년대 20세기를 마감하면서 근세 100년 한국사회와 불교계를 이끌어온 고승 16인이 기념메달로 우리곁에 다시 왔다. 한국조폐공사가 제작 품질을 보증하는 고승 기념메달은 동(銅)에 금도금을 입힌 국내 최대의 크기로 사찰 가정 사무실 등에서 늘 가까이 친견할 수 있다. 20세기를 결산하는 고승 16인 기념메달 제작 보급 불사는 인물로 본 한국불교 근대사의 정리일 뿐만 아니라, 큰스님들의 삶과 사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1세기를 앞두고 근세 100년, 수행 교화력으로 영향력을 보여 기념메달로 다시 다가온 16인의 큰스님들의 수행한담을 모았다. 〈게재 무순〉


◇만공스님


◇용성스님


◇효봉스님


◇금오스님


◇자운스님

만 공 스 님

어느날 대중들이 수박공양을 할 때 만공선사는 홀로 나무가지에서 우는 매미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매미를 가장 빨리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수박값을 받지 않겠다. 못 잡아오는 대중에게는 동전 서푼씩을 받아야 겠다". 이말에 대중스님들이 각자 한마디씩을 했다. 어떤스님은 매미를 잡는 시늉을 했고, 어떤 스님은 매미우는 소리를 냈다. 금봉스님이 만공선사 앞으로 오더니 불쑥 둥근원을 그려놓고 말했다. "상(相) 가운데 부처가 없고 부처 가운데 상이 없습니다".

그말을 들던 만공선사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보월스님이 들어왔다. 만공선사가 물었다. "자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보월스님이 즉시 주머니 끈을 풀고 돈 서푼을 꺼내 만공선사에게 쑥 내밀었다. 그러자 만공선사가 말했다. "자네가 내 뜻을 알았네." 깨달음에는 형상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금봉스님은 형상의 유무에 집착한 반면 보월스님은 형상을 뛰어넘는 자재(自在)한 현실을 내보였다. 선은 가장 현실적이면서 실재적임을 이 선문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71~1946, 수덕사 조실〉

용 성 스 님

19세 때 남원 덕밀암에서 출가해 누더기를 걸친 스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인생은 무엇인가"하는 문제였다. 스님은 생사대사(生死大事)를 해결하기 위해 고운사 수월스님을 찾아갔다. "어떻게 해야 스스로의 성품을 알겠습니까." 수월스님은 빙그레 미소를 보이시며 "천수대비주와 육자진언을 외우라"고 답하였다.

이에 스님은 곧바로 무문관에 들어가 1백일 동안 '육자진언'을 지송하며 마음속의 의심을 풀기 위해 정진을 계속했다. 이후 양주 보광사 도솔암으로 수행처를 옮긴 스님은 "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라고 말한후 문을 걸었다. 턱밑에 송곳을 세우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물 한모금 먹지않고 수행하던 스님은 7일째 되던 날 그믐밤에 불이 비치듯이 품었던 의심이 무너지고 이치를 깨달았다.

〈1864~1940, 3.1독립운동 33인중 한 분 · 대각사 조실〉

영 호 스 님

금봉 · 진응스님과 함께 근대불교사의 3대 강백으로 평가받는 스님의 불교관은 '천지만물이 나와 한 뿌리, 한 몸'이라는 화엄적 세계관으로 압축된다. 부처님을 현상에 내재한 채 중생을 구제하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존재로 파악, 세계와 중생은 보다 원융적 화엄을 실천할 도량으로 보았다.

스님은 '불교강사와 정문금침'이란 글을 통해 "자만, 게으름과 산만함, 이기심, 인색 · 탐욕심, 자기 단점 숨기는 것 등 다섯가지 때문에 불교인의 정신이 몰락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공고(貢高) 대신 허심박학(虛心博學)을, 뇌산(懶散) 대신 용맹정진(勇猛精進)을, 위아(爲我) 대신 망아이생(忘我利生)을, 간탐 대신 희사원통(喜捨圓通)해야 된다"고 설했다.

〈1870~1948, 조선불교 교정(종정) · 동국대 전신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

만 해 스 님

중생구제의 보살행을 강조하고 불교와 정치의 불리론을 펴면서 스님은 참선, 선교관, 그리고 선사를 새롭게 이해했다. 마음을 맑혀 만물의 진상을 제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돈오'의 핵심이요, 중생구제를 위하여 불교적 언문이나 실천의 지침을 얻는 과정은 '점오'이니, 그의 선교관은 '돈오점오론'으로 볼 수 있다.

1914년 〈불교대전〉 발간 이후 설악산 오세암에서 피나는 선수업에 몰입, 설악의 대자연을 호흡하다가 문득 자신의 깊은 내면 세계를 관조하면서 '구름이 흐르거니 누군 나그네 아니며, 국화 이미 피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화두를 들었다. 1917년 12월 3일 밤 10시경 좌선 중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 무슨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의심 덩어리가 씻은 듯이 풀렸다.

〈1879~1944, 독립운동가 · 시인〉

한 암 스 님

선사이면서도 경학에 막힘이 없었고, 율사를 면모를 겸지한 스님은 1951년 국군이 북진할 당시 공비의 소굴이 된다하여 상원사를 소각하려 할 때, 장삼과 가사를 수하고 법당에 들어가 좌정해 끝내 방화를 막아낸 일화로 유명하다. 스님은 이곳 상원사에서 좌탈입망한 근세유일의 스님으로도 기록되고 있다.

스님은 1899년 어느날 성주 청암사 수도암에서 경허스님께 〈금강경〉의 한구절 "무릇 형상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형상있는 것이 형상 있는 것이 아님을 알면 곧 여래를 볼지니라" 라는 말을 듣고 안광(眼光)이 홀연히 열리면서 한눈에 우주 전체를 환히 들여다보았다.

1925년 서울 봉은사의 조실로 있다가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묄지언정 삼춘(三春)의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이듬해 오대산 상원사로 들어가 입적할 때까지 산문출입 없이 수행에만 전념했다.

〈1876~1951, 조계종 초대종정〉

동 산 스 님

"모름지기 공부하는 사람은 계행을 깨끗이 해야 한다. 더러 보면 계를 우습게 알고 부처님과 조사의 말씀을 믿지 않은 이가 있다. 분명히 말하건대 부처님이 그렇게 행한 일이 없고 조사 또한 그렇게 한 일이 없다."

스님은 입적에 들던 날까지 아침저녁으로 예불에 빠지는 일이 없었다. 만일 후학이나 대중 중에 예불을 거르는 사람이 있을라치면 곧바로"시주의 은혜를 축내는 나쁜 놈"이란 불호령이 떨어졌다. 또 아침이면 제일 먼저 빗자루를 들고 도량을 청소했는데, 오가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 비질을 하는 연유를 물으면 그 즉시 "국토를 맑게 하는 일이 곧 마음을 맑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백양사 운문암에서 구족계를 받은 지 10여년후 범어사 금어선원 동쪽 대나무 밭 옆을 화두삼매에 들어 거닐다가 문득 이는 바람에 대 부딪끼는 소리를 듣고 확철대오하고 용성스님의 인가를 받았다.

〈1890~1965, 조계종 종정 · 범어사 조실〉

효 봉 스 님

스님은 "부처란 청정한 법계를 더럽힌 도적이요, 생사고해에 빠져있는 중생이다. 법계는 본래 청정하고 평등한데 어찌 6도의 차별을 말하였으며, 일체중생은 다 위없는 열반에 들어가거늘 어찌 생사에 윤회한다는 법을 말하여 중생을 의혹케 하였던고"라고 설하는 등 역설적인 법문으로 대중을 교화해, 부처님의 법과 도가 멀리 있지 않음을 보여줬다.

26세에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한후 귀국, 10여년간 법조계에 투신.

"스님, 영가는 어떻게 천도합니까?"

우룡큰스님의

영 가 천 도

4×6판 / 160면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49재
법보시용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Ⅰ. 지성(至誠)으로 살자
Ⅱ. 불자의 살림살이
Ⅲ. 불자의 축원
Ⅳ. 불자의 기도
Ⅴ.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Ⅵ.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해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582-6612 · 팩스 : 586-9078

선재여행사(善哉旅行社)가 문을 열었습니다

귀명삼보하옵고,

월간 『법공양』을 발행하고 있는 불교신행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해외 불교성지순례를 전문으로 하는 선재여행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교계의 사부대중께 지면을 통하여 인사를 올립니다.

선재여행사는 단순한 해외여행을 하고자 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감동이 깊고 신행이 깃든 순례, 우리나라와 해외의 불교문화를 비교하면서 심도있게 살피고 참배하고 그 속에 깃든 불교정신을 음미해 보는 순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연 것입니다.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떠나는 사찰 단위의 해외성지순례, 불교단체 및 계모임에서의 성지순례에 저희 여행사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앙망하오며, 떠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인도 · 중국 · 일본 · 미얀마 · 티벳 · 네팔 · 태국 · 스리랑카 등 불교권 국가를 대상으로 삼아 뜻깊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여행이 되도록 모든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김현준 배상

※ 문의전화 : 선재여행사 (02) 582~6647~8
불교신행연구원 (02) 582~6613

메달로 나툰 20세기 고승 수행한담

20세기의 정신적 師表”


◇영호스님


◇만해스님


◇한암스님



◇동산스님


◇청담스님


◇경봉스님



◇고암스님


◇묵달스님



◇탄허스님



◇성철스님



◇월산스님

1925년 판사로서 최초의 사형선고를 내린 그 순간부터 자신과 사회구조에 대한 회의에 빠져 엿장사 등으로 3년간 방랑생활을 하다 금강산 보운암에서 석두(石頭) 화상을 은사로 득도했다.

‘절구통수좌’라는 별명을 들으리 만큼 불굴의 의지로 정진수행한 스님은 1930년 봄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1년6개월간 법기암 뒤 토굴에서 용맹전진 후 개오했다.

〈1888~1966, 조계종 통합종단 초대 종정·가야총림 방장〉

금 오 스 님

스님의 선지(禪旨)는 타고난 것이었다. 제자나 후학들이 화두를 드는데 소홀할 것 같으면 어김없이 불호령이 떨어졌다. 수좌는 화두 하나만 챙기면 된다며 다른 경을 보거나 율을 거론한다거나, 주력을 하는 따위의 행위를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일간 정진에 들어가면 회향을 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대중은 사정은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말로 되지 않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정진을 마치는 것이 최상의 자비라는 게 스님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법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일신의 안위를 초개와 같이 생각했다. 몰연 당대의 선지식이었던 수월(水月) 선사를 친견하기 위해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만주로 건너간 일화는 그의 구법을 향한 의지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잘 보여준다.

〈1896~1968, 조계종 부종정·선학원 조실〉

청 담 스 님

봉정암에서 머물고 있을 때의 일이다. 해제 시기인데도 마치 시계추와 같은 규칙적인 생활에 시기심을 낸 몇몇 도반들이 동안거 결제를 위해 떠나가야 할 날을 알려주지 않은 채 선정삼매에 빠져 있는 청담을 1주일분 정도의 식량과 함께 봉정암에 남겨두고 몰래 떠났다. 그 사이에 대설이 내렸고 길이 두절됐고, 꼼짝없이 굶어 죽을 지경을 맞았다. 1주일이 지나면서 스님은 굶주리면서 정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1주일이 더 지나가고 보름째 되던 날, 희유한 일이 일어났으니 당시 홍천군의 일본인 군수와 경찰서장의 꿈에 설악산신이 나타나 “지금 봉정암에 도인(道人)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 속히 가서 공양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이 같음을 기이하게 여겨 곧 인원을 동원, 눈을 헤치며 며칠만에 봉정암까지 올라갔다. 방문을 열어 젖히자 벌써 피골이 상접해진 한 도인이 좌선삼매에 들어 있었으니, 도(道)에는 갓길이 있을 수 없음을 잘 보여준 일화다.

스님은 33세 되던해 묘향산 설령대에서 3일 밤낮을 용맹정진을 하던 중 깨달음을 얻었다.

〈1902~1971,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조계종 통합종단 제2대 종정〉

경 봉 스 님

스님은 법문이나 게송을 내림에 있어 언제나 ‘자기 목소리’를 냈다. 대다수의 선사들이 흔히 중국의 조사어록이나 염송 등에서 게송을 차용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는 현실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스승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수좌들은 스님을 찾아 법을 묻는 일이 많았다. 스님은 80이 넘어서도 수좌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용맹정진을 하기도 했다. 특히 화두가 들리지 않아 고민하는 수행자가 찾아올 때면 “쇠가 아무리 굳어도 열이 3000도가 되면 녹는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인공에게 맹세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면서, 때때로 후학들에게 피골이 상접해 있는 석가모니의 고행상을 보여주면서 정진을 재촉하기도 했다.

1982년 7월17일 시자 명정스님이 “어떤 것이 스님의 참 모습입니까”란 물음에 “야반삼경(夜半三更)에 대문 빗장을 만져보거라”라는 유명한 임종게를 남겼다.

〈1892~1982, 통도사 극락암 조실〉

고 암 스 님

‘깨끗하고 온화한 자비보살’이란 이미지를 불자들 가슴속에 심어준 스님은 젊은 시절 바랑 속에 발우 한벌, 가사장삼과 옷가지 세벌 그리고 몇권의 경전을 넣고 삼천리 방방곡곡 찾아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스님이 이처럼 운수여정에 충실한 것은 훌륭한 스승을 찾아 정진하기 위함이었으며, 제자들에게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말고 유행(遊行)할 것을 가르쳤다.

스님은 특히 하심(下心)의 마음으로 한평생을 수행했다. 어느 사찰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공양주소임을 자청하였고, 물을 따뜻하게 데워 여러 스님들께 바친 적이 많았다. 아만심을 경계하고 스스로 하심하기 위해서 일부러 궂은 일을 자청할 정도로 겸손했다.

문하에 기라성 같은 제자를 두시고도 평생 손수 빨래를 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1899~1988, 조계종 제 3·4·6대 종정〉

묵 담 스 님

11세에 순오스님을 은사로 동진출가해 평생을 율사로서 수행한 스님은 “계율은 삼세제불이 출현하신 큰 법규이고 사부대중이 성위에 오르는 중요한 문”이라고 중요시했으며, 일생을 도제양성과 교화사업, 가람중수, 보시행단(布施行壇)으로 보냈다.

27세부터 전국의 사암을 주유하면서 법등을 밝혀 법사, 회주, 계사 등의 자격으로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게 불사를 권장했다. 불상조성 25회, 예수재불사 17회, 천도불사 9회, 가사불사 11회, 대승보살계 62회를 행하는 동안 비구(니)계, 고사계, 보살계를 받은 사람이 무려 1만9718명에 달했다.

36세인 1932년 양주 망월사 선원에서 하안거 결제시에 ‘정전백수자화(庭前栢樹子話)’라는 화두를 참구하다가 뜰앞의 노송을 보고 확연히 깨달았다. 교화과 선을 닦는 동시에 전법포교와 권선불사로 일생을 매진한 스님은 1981년 1월3일 문도들을 불러놓고 “부처님의 계를 스승삼아 공부하되 스스로 등불을 밝혀 세상을 빛내라”고 당부한 후 게송을 읊으신 뒤 단좌입적(端坐入寂)했다.

〈1896~1981, 조계종 제 5·6·7세 종정 및 태고종 제 3·4세 종정〉

자 운 스 님

스님은 “아첨하지 말라, 사악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교훈과 함께 “계율로 청정토를 삼아 보리심의 싹을 틔우는 인을 만들고, 예경하고 참회하며 지율지계로 정진하라”고 늘 강조했다.

1939년 4월15일부터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수행의 좌표를 얻기 위해 백일간 불수(不睡) 기도를 봉행하던 중 99일만에 문수보살로부터 계율 중흥을 위해 정진하라는 감응을 받은 후 율장을 연구·강설하고 국·한문의 율문을 널리 홍포했다.

‘계정일치(戒定一致)’ 수행을 제창한 스님은 1956년 해인사 금강계단에서 전계대화상에 추대된 이후 1981년 종단 단일계단이 형성될 때까지 약 30여년동안 전국 각 계단의 수계산림에서 비구(니) 3,186명등 수계제자 10만여명을 배출했다. 말년에는 일과로 ‘아미타불’을 10만번씩 염하면서 염불과 지계를 겸수했으며, 열반에 이르러 단정히 앉아 염불하면서 입적했다.

〈1911~1982, 조계종 전계대화상〉

탄 허 스 님

탄허스님은 후학들에게 자주 생전의 명예보다는 백년 천년 후에 살아 있어야 하고, 시주의 은혜가 무서우니 공연히 신세를 지지 말 것을 철저히 하라고 늘 강조했다.

1934년 오대산 상원사 한암스님과 우주와 인생의 근본 이치에 대한 서신문답을 하다가 출가한 스님은 입산 후 18년간 오대산에서 두문불출 참선과 간경으로 일관, 불교 최고의 경전인 〈화엄경〉의 진수를 터득하고 부처님의 근본종지를 확연히 깨쳐 한암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1953년 ‘탄허는 나의 아난이다’고 아끼던 한암스님의 유촉을 받들어 역경작업에 전념, 1972년부터 1983년까지 화엄학연구소장을 역임하면서 〈신화엄경합론〉 전 47권을 비롯한 수많은 저서와 역서를 남겼다.

〈1913~1983, 오대산 수도원장·중앙역경연수원 초대원장〉

성 철 스 님

1967년 한국불교 최초의 총림인 해인총림의 초대방장에 취임한 스님은 16년간의 생식, 10년 장좌불와(長坐不臥)와 법랍 일생동안의 산문불출(山門不出), 접견을 위한 3천배 정진 등 숱한 수행과 일화를 남기며 청빈 무소유의 일생을 살았다. 특히 언제나 ‘자신을 바로 보라’고 설했던 성철스님은 3천배를 통해 “일체중생과 남을 위해 참회하고 기도하라”고 강조했다.

선수행뿐 아니라 교학에 있어서도 스님은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30여년 동안의 설법을 모은 법어집 〈백일법문(百日法門)〉 11권을 비롯, 선림고경총서 37권을 간행했다.

성철스님은 평소 선원의 수행납자들에게 ‘잠을 많이 자지 말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간식하지 말라’, ‘마음닦는 사람에겐 책보는 것이 비상이다’, ‘해제중에도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는 5계를 강조했다.

〈1912~1993, 조계종 7대 종정·해인총림 초대방장〉

월 산 스 님

경허-만공-금오로 이어지는 선맥(禪脈)을 계승한 월산스님은 덕숭문중의 가풍을 안빈낙도(安貧樂道), 즉 ‘가난함을 즐기고 도에 즐거움을 붙이는 것’이라 하고, 자신의 가풍을 ‘하루 세 끼 밥 먹고 잠오면 잠자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역대 선지식들이 그랬던 것처럼 ‘평상심시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으로 일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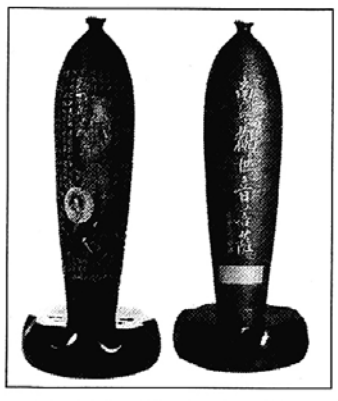
그러나 스님은 이처럼 참선을 중시하면서도 다른 선사들과는 달리 ‘다소 돌아가는 것일 뿐이지 경을 공부하는 것으로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등 어느 한 곳에서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의 삶을 놓치는 일이 없었다.

종단이 혼란과 위기에 처했던 정화나 개혁 당시와 같이 종단이 난국에 처했을 때는 현실에 적극 나서 난국을 헤쳐나가는 길을 제시했는가 하면, 총무원장을 맡고난 후 한 두 달만에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홀연히 자리를 버리고 떠나는 무착의 삶을 보여주기도 했다.

〈1912~1997, 조계종 제6대 총무원장·원로회의 의장〉

삼각산 황룡사
거산 화엄의 달마도
■작가 : 거산 박성열 합장
산방 02)375-7077 / 화실: 372-7016
모자쓴 달마도 시험 합격 승진

▲모자쓴 달마도 34.5×35
▲상반신 달마도 35×68
▲전신 달마도 35×103

관세음보살 감로병

의장등록 제75586호
전체높이 : 790mm
감로병높이 : 695mm
받침높이 : 95mm
▶가격: ₩500,000
관세음보살님은 우리들 중생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며 자비를 베풀어주는 절대적인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 자비의 결정체로서 모든 중생을 동등한 선상에서 아무 조건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며, 그런 까닭에 어떠한 중생이라도 당신의 명호를 지성껏 외우면 기필코 구해 주시겠다고 서원을 세우신 거룩한 보살님입니다.그러므로 참된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이 감로법우를 내려 중생의 고뇌의 불을 껴서 청량을 얻어 해탈케 하시니 그 감로의 법우가 반야심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로병의 모양에 관세음보살님이 남순동자에게 감로수를 쏟아주시는 모습을 새기고 아울러 반야심경을 새긴 것입니다.(양각)
선우상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93-7
Tel : (02)338-1076,1033 FAX : 02)338-4714

손 양면자수 불교미술 탄생
양면수란?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새기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자수기법

관음도(37×83)

어락도(25×35)

인물도(25×25)

연꽃(25×25)

달마도(25×25)
■작업소요기간 : 10일 ~ 100일이상
(수작업인 관계로 규격에 따라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양면슈리 사용 받침대 포함 ※
※관음도·지장도·십수도등 주문제작 가능※
※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오랜시간 불심의 손끝에서 수만 수십만번의 섬세한 자수작업으로 한땀 한땀 수놓아져 새겨진 놀라운 자수작품입니다.
▷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관음의 가피력이 불자님의 소원을 기필코 성취시켜 드릴 것입니다. 관음도
▷ 더러운 진흙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연꽃을 불교에서는 보리심·청정 무구한 불성을 상징합니다. 연꽃
▷ 영정, 인물자수는 후손들에게 소중한 가보가 될 것입니다. 인물도
▷ 물고기 두마리는 부부금실이 좋다는 의미도 있으며, 자녀들에게 귀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어락도
▷ 신비스러운 기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는등 건강과 부와 명예를 불러주는 힘이있다고 합니다. 달마도
▷ 관음도를 구입하시는 분께는 달마도를 함께 드립니다.
흔치 않은 불교미술 명품의 소장자가 되십시요.
불자님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명 화 자 수
전시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6-6 살롬빌딩 3층
전화 : 02)3446-5090/ H.P : 011)327-5094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가을
그리움의 계절인가.
잔잔하게
부서진 파도는
은빛노을 속으로
가을을 안고 온다.
솜털 구름처럼
하얗게 피어오르는
여린
갈대숲 사이로
가득히 밀려오는
그리움 하나
그대의
투명한 눈망울이
가슴으로 와
보고픔은
그리움으로 남는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5호 탑골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뒷편호원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2)2275-5592~3
핸 드 폰 : 018-277-5592

짧지만 길고 굽었지만 곧은 길

가람의 장면들 13

99 건축문화의 해 THE YEAR OF ARCHITECTURE

범어사 진입로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은 일제 강점기 이후 급성장하여 역사가 없는 도시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부산의 모체가 되었던 동래지역은 조선시대 도호부가 설치될 정도로 비중이 있는 도시였고, 무엇보다 신라 고찰인 금정산 범어사가 있어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범어사는 해동 화엄종의 종조, 의상대사가 화엄10찰의 하나로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화엄과의 10대 사찰이 대개 그렇듯이, 국방의 목적도 겸한 전략적 사찰이었다. 10만의 왜구들이 동해안을 침범하여 신라를 위태롭게 할 즈음에, 금정산 밑에 범어사를 세우는 왜구들이 물러갔다는 창건설화가 전한다. 또한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는 서산대사가 이 곳을 사령부로 정하고 승의병들을 모집했다는 구국의 현장이기도 하다.

군사적으로 전략적인 사찰들은 대개 높은 산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그래야만 적지대의 적군들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고, 방어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범어사 뒷산에는 금정산성이 쌓여져, 범어사는 동래 일대의 중심 산사이기도 했지만, 금정산성 수호의 병참기지 역할도 했으리라 여겨진다.

이처럼 높고 급한 경사지에 사찰이 자리잡으면, 전략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일반 신도들이 출입하기에는 매우 불리하다. 아무리 전략적 사찰이라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불교의 성지로서 신도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했고, 이런 점에서 높은 곳에 위치한 산사들은 매우 불리한 입지적 제약이 있었다. 또한, 조선시대 산사들은 늘상 유림 양반들의 행패와 수탈에 시달려야 했다. 고성 옥천사와 같이 담과 건물을 높게 쌓고 문을 걸어 잠그면, 외부의 행패로부터 보호받을 수는 있지만, 범어사 같이 대중들이 빈번히 출입하는 사찰은 그나마 불가능했다. 또, 깊은 산중에서 가람의 성스러운 영역을 표시할 구조물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저런 필요 때문에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산문들이다. 산문들은 흔히 선불교의 영향이라고도 말해지나, 사상적 배경보다는 위와 같은 필요성이 더 강했던 것 같다. 가람의 경계를 뜻하며 속계와 성소를 구별짓는 일주문, 33천 가운데 사천왕천을 뜻하며 가람의 수문장 역할의 천왕문, 또는 금강역사들의 금강문, 진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설파하는 불이문 등. 조선시대 가람의 입구부에는 많은 산문들이 겹겹이 세워져서, 가람을 상징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성스러운 장소로서의 이미지를 얻는데 성공했다. 성스럽고 소중한 곳은 늘 겹겹이 싸여져야만 한다.

그 가운데서도 범어사의 진입로는 뛰어난 구성을 하고 있다. 수십 동의 건물들로 가득한 대가람이지만, 범어사의 건축적 핵심은 바로 그 진입부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낮은 담장 적막함 빚어내고
두줄 가로수 길의 수평 넓혀
종교·건축·철학 깃든 '한국미'

우선, 3칸 돌기둥의 일주문부터가 범상치 않다. 보통 사찰의 일주문은 단칸이지만, 이곳은 3칸이다. 일주문을 지나면 계단 위로 천왕문이 나오며, 천왕문에 올라서면 멀리 불이문이 나타난다. 이곳이 바로 진입부의 클라이맥스이며, 한국 불교건축이 성취한 가장 뛰어난 명장면 가운데 하나이다.

천왕문과 불이문 사이에는 아무 것도 없이 오로지 길 한 다. 이 길을 위해 나즈막한 담장을 쌓았고, 길 양옆으로 쭉 뻗은 나무들을 심었다. 그리고 바닥을 세 개의 얕은 단으로 나누어 점점 높아짐을 강조한다. 그 뒤에 불이문이 있지만, 뻥 뚫린 문 뒤로는 끝도 모르는 계단만이 계속될 뿐이다.

사람 키보다도 낮은 담장은 이 공간을 보호하려는 목적보다는 적막한 길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건축적 장치다. 그리고 길의 랜드오름을 강조하기 위해 양옆에 줄지어 교목들을 심었다. 높은 가로수 옆은 길의 수평적 확장을 도와주며, 효과적으로 불이문에 도달하기 위한 시각적 장치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즈막히 상승하는 바닥의 단들은 수평적 길이 수직적으로 변환하기 위한 예비단계임을 암시한다. 그리고는 가파른 계단으로 연속된다. 이 곳에는 수평감과 수직감이 교차하는 공간적 율동이 있고, 교목의 그늘 사이로 밝게 빛나는 음영의 어우러짐이 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북적대도 이곳만은 조용해지는 신비한 적막이 있다.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길은 그다지 길지도 않고 똑바르지도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짧은 길은 3단으로 자르고, 양옆의 낮은 담장이 시각적 길이를 확장한 것이다. 또한, 3단에 놓여진 세토막의 길들이 약간씩 어긋나며 휘어져 있다. 그러나 그 분절의 효과 때문에 전체적으로 곧아 보인다. 짧지만 길고, 굽었지만 곧게 보인다. 한국적 미학의 극치다.

이 황홀한 가람의 진입로는 비단 범어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합천 해인사의 감동적인 진입로, 통도사의 휘어진 진입로, 그리고 이름없는 산사 어디에도 발견할 수 있는 고즈넉한 길들이 있다. 조선시대 가람의 주인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그리고 지극히 건축적인 길들이다.



◇한국사찰의 진입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범어사 진입로. 천왕문에서 불이문까지의 길에는 수평감과 수직감이 교차하는 공간적 율동이 있고 음영의 어우러짐이 있다. 3단에 놓여진 세토막의 길들은 약간씩 어긋나며 휘어져 있어 짧지만 길고 굽었지만 전체적으로 곧아보이는 한국적 미학의 극치를 보여준다.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법등을 밝히는 것은 불자의 의무이자 필수조건이다. 법보시는 가장 수승한 보시이며 포교의 가장 기본적인 불사이기 때문이다. 최근 본사가 펼치고 있는 '사찰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에 불서를 모아 보내자는 법등 밝히기 움직임이 불자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번지고 있다.

쌍계사 승가대 도서관 개설

한국불교연 정병조원장 불서 1千여권 보시
연말 시설 확장…전산화 준비도 한창



◇정병조 원장(오른쪽)이 쌍계사 교무 월호스님에게 불서를 전달하고 있다.

4일 한국불교연구원에서 작지만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이 승가대학 학인들의 면학을 위해 쌍계사에 불서를 기증한 것. 정병조 원장은 이날 직접 교직생활을 하면서 모은 불서가운데 1차분 110종 221권을 쌍계사 승가대학(학장 통광스님)에 기증했다.

이날 기증된 불서는 주로 학술서와 석·박사 학위 논문과 경전류 등으로 불교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인들에게 요긴하게 쓰여질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기증식은 정 원장이, 소장하고 있는 전문불서를 승가대학에 기증하고 싶다는 내용을 본사에 전해옴에 따라 이뤄졌다. 정원장은 "불교학의 요람인 승가대학에 반드시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기증식을 계기로 많은 불자들이 법등 밝히기에 적극 동참하고 모든 승가대학에 도서관이 설립돼 학인들의 면학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조 원장은 연말까지 1천여권의 불서를 더 전달할 계획. 또 "많은 책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분류가 잘 돼야 한다"며 "전문 사서를 파견해 도서관으로서 기본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지원도 약속했다.

한편 쌍계사 승가대학은 올 연말 준공되는 유물전시관 2층에 대규모 도서관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다. 이를위해 현재 쌍계사는 학인들이 볼 수 있는 전문 불서류에서부터 일반불서까지 다양하게 불서를 구입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컴퓨터 3대를 구입, 전산화를 위한 기초 준비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사찰도서실이 단순한 참고열람실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불서를 비치 도서관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쌍계사의 자구책이다.

이날 도서를 전달받은 쌍계사 교무 월호스님은 "젊은 학인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불교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다"며 "기증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잘 활용하겠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불서를 모아 사찰에 도서관을 꾸미자는 불자들의 원력은 이번 기증식을 계기로 새로운 물결을 이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apia.com)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읽은불서·새책 한권씩 절로 보내자

현대불교신문은 올 한해 동안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월1회 기획기사를 통해 도서관과 불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실 만들기·운영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아울러 도서실 만들기를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우리절에 불서 보내기' 운동도 펼칩니다. 모든 불자들이 다 읽은 불서 또는 새로나온 불서 한권씩을 다니는 절에 법공양 한다면 많은 절들이 도서실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주지스님을 비롯 교계인사, 신행단체, 불자 여러분이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참안내
①도서실 만들기에 뜻이 있는 주지스님들은 본사 캠페인팀과 상담해 주십시오.
②불자 여러분은 소속 사찰에 읽은 책 또는 새책을 보내거나 본사 캠페인팀과 법공양을 의논하시면 됩니다.
●상담전화: (02)737-8881 출판부장
후원: 조계종 포교원,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협찬: 교계 출판사
(사찰도서실 법공양 불서 30% 할인)

현대불교신문사

부처님을 향한 마음
대·한·불·교·예·술·원



제주도 보광사 불상·닫집

오랜 전통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작품만을 고집해온
대한불교예술원이
불교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佛事 시공 전문업체
●조각부 - 불상, 사천왕, 산신상, 목탱화
●목공부 - 수미단, 닫집, 경탁 외
●건축부 - 전통 건축, 현대식 건축
(초절약형) 임시법당
●석공부 - 불상, 석등, 부도, 탑
●화공부 - 단청, 탱화, 담채



서울 석림사 목탱화 법당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불사에 관련해 문의 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예술원
대표 한성용 합장
공장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무봉리 545-5
TEL : 02)930-1681, 0357)542-1681FAX : 0357)543-3296 H.P : 011)336-5200
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수성동 원당빌딩 201호
TEL : 02)736-9948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집착을 놓으면 苦소멸 道가 됩니다

우리가 모습으로 친다면 그저 이 선원에 이 한자리지만은 마음으로 친다면 이 한자리를 우주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음을 크게 쓰시면 큰 것이고 작게 쓰시면 작은 것입니다. 작게 쓰고 크게 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크게 쓰면 일이 크게 벌어지고 작게 쓰면 작게 벌어져요.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대로 움죽거리게끔 돼 있거든요.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자리가 이어진 것은 과거라고 칠 것도 없지만 과거의 인연으로 미래의 인연을 만들고 미래의 인연으로 인해서 또 현실의 인연을 둘 아니게 만드는 길입니다.

질문할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하실 때도 어떠한 큰 거를 해야겠다 적은 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마십시오. 인간이란 생활 속에서 항상 더불어 같이 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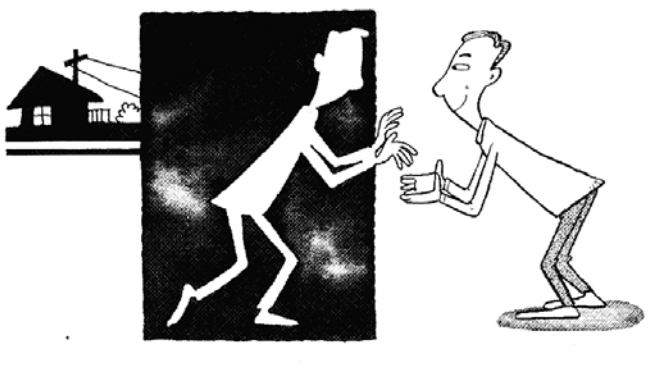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고생통해 생명의 가치 아는것 '자기진화'

주인공은 자기주인이자 空 했다는 뜻

苦의 원인과 道의 이치

문 큰스님, 법체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선원의 신도 박규환입니다. 저는 늘 큰스님의 크고 높으신 가르침에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苦)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고를 만나야 하고 그 고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생로병사와 고의 원인은 집착에 있고 이를 멸하면 도에 이르고 해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중생들은 바깥이나 안에서 오는 고의 경계가 끊임없이 나타나서 여기에 집착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큰스님의 가르침대로 놓고 관하면서 공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놓고 관하면 고의 원인이 밝혀지는 원리와 도에 이르는 이치를 저와 대중을 위하여 설해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옵니다.

답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고 살아나간다면 팔자운명이니 뭐 이런 것에 끄달리며 살겠지요. 그러나 이 마음공부를 하고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자기고 마음을 허탕하게 쓰는 것도 자기입니다. 마음공부를 하다 보면 옳고 그른 것, 하지 않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다 알고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고다 고가 아니다 하는 것이지 고가 본래부터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고라고 한 것은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승화시키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막다른 데를 들어가 보지 않았다면, 그 처참하고 갈 길이 없어서 펄펄매고 이렇게 해보지 못했다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때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 모든 것이 자기를 공부시키는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그걸 안다면 끄달리지 않게 되고 끄달리지 않음으로써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고(苦)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생각을 하면 문득문득 어려운 시절도 많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처참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로서는 처참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도 감사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봤으면 지금에 와서 여러분이 고통스러워 하는 걸 알 수도 없거니와 알지 못하는 반면에 내가 그 고통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눈도 깜짝거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마음이 하는 짓이거든요. 마음이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고 마음이 즐거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지진이 나서 수만 명이 죽고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러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고통은 하나도 없단 얘깁니다. 그 즉시에 죽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고통이 고통이라고 하니까 고통이지 고통은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니 없고 있고를 모두 둘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선도 악도 둘로 보지 말라 이 소리죠. 그러니 그것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 들은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으로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각자 제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음파로 통해서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마음 공부하는 분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마음공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모든 허공에서도 두루두루 음파로 통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화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 그 마음 하나 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공부하시다보면 이 다음에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진화력을 가지게 되고 또 진화를 하되 모습도 아주 보기 싫은 걸로 하지도 않고 마음도 잘 해가지고 나오고 또 둘 아니게 착하게 길을 잃지 않고 여여하게 살게끔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 마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주인공에다 기쁘게 놓으세요.

'확연히 드러난다' 뜻 궁금해요

문 스님께서는 일체 모든 것이 근본자리에서 들고 남을 굳게 믿고 놓고 가는 것을 참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홀연히 혹은 확연히 드러난다 함은 무슨 까닭인지 가르침 주십시오.

답 둘 아니게 들고 나는 그 자리를, 그걸 한자리라고 합니다. 한자리라 하면 하나의 개별적인 한자리가 아니라 포괄적인 한자리죠. 거기에서는 과거로부터 수없이 자기를 진화시켜온 장본인이 바로 홀연히 자기와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하게 돼야 몸 속에 있는 모든 의식들도 전부 거길 따라서, 즉 말하자면 항복을 한다고 하는데 그 뜻은 한마음으로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쓰는 데마다 그게 한마음이 돼 주니까, 내가 일일이 마음을 써서가 아니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는 걸 내 마음으로 보고 듣고 알고 그럴 때에 여기서는 벌써 다 알고 그거를 행해 나간다는 얘깁니다.

즉 말하자면 들이고 내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가운데에 홀연히 자기가 스스로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기를 리드해가고 정신계와 물질계를 둘 아니게 굴리게끔 길을 인도하는 거죠. 다 인도하게 되면 자기도 없고 스승도 없고 모두가 없이 자유권을 얻는다는 얘기죠.

'하나가 된다' 무슨 뜻인지요

문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 일체가 주인공의 나툼이라면 모두가 주인공의 모습일진데 하나가 된다함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답 마음내는 사람과 마음을 내고 움죽거리는 사람이 둘입니까? 하나죠. 하나니깐 그 하나 속에서 자기를 발현해 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들 자기의 모습이 자기인 줄 알아요. 정신계의 보이지도 않고 뵐 수도 없고 가눌 수도 없는 그런 데는 생각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진짜는 그 보이지도 않고 뵐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거기에서 자기를 리더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와 나와 둘 아니게 상봉한다면 서로 이렇게 뜻으로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자기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행하는 나는 시자인 것입니다. 심부름꾼이에요. 자기 심부름꾼을 진짜로 공부가르쳐서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뼈아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비난을 해요. '아이그, 뭐 그까짓 것…,'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둘이 아니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한마음이 된다면 이 세상을 다 한데 합쳐도 하나로 구성돼서 하나로 돌아가고 나중엔 그 하나도 없게 됩니다.

지금 지구에 많은 일이 벌어지는 것도 이 마음이 문제예요. 물질세계에만 치우쳐 정신세계를 몰라라 하기 때문에 같이 이어지질 않아서 문제가 일어나고 길을 제대로 걷지를 못하죠.

무심으로 행하는 도리

문 '나'가 없음이 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심으로 행하는 도리에 밀

☞ 14면으로 계속

고통도 즐거움도
마음이 하는일
마음쓰는대로
고가 있고 없으니
고라고 생각말고
항상 주인공에다
기쁘게 놓으세요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 - 긴 깨달음

작은 이야기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여기,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1권 ❁ 행복 의 문을 여는 이야기
제2권 ❁ 사랑 의 꽃을 피우는 이야기
제3권 ❁ 수행 의 강을 건너는 이야기

행복·사랑·수행·지혜·죽음이라는
삶의 다섯 가지 주제를,
불경(佛經)과 고서(古書)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보배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새로이 조명해 봅니다.
'바라만 봐도 복이 오는' 아름답고 귀한 변상도(變相圖)와 함께
이야기 하나하나에 깃든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노라면,
'하나뿐인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미래 엮음
200쪽 내외
각권 4,500원



② 빨간책 ① 노란책 ③ 파란책

오색시리즈(전5권)
제4권(하얀책) 『지혜의 길로 이끄는 이야기』
제5권(까만책) 『죽음의 재를 태우는 이야기』
가 곧이어 출간됩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면 출판사로 연락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한세
전화 : 02)3219-6441 팩스 : 02)653-4611

부처님, 제발 용서하십시오.
화제의 신간
함재수 법사와 함께 가는 인과응보 여행



저자
함재수 법사

모든 죄를 불사르고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깨달음을 얻고
번뇌에 갇힌 모든 중생들에게 감동을 주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신국판 정가 9,000원

과거·현재·미래세에 걸쳐 알게 모르게 쌓고 지은
업장(業障)을 과거·현재·미래 삼세(三世)의
모든 부처님께 이렇게 참회합니다.
'부처님 제발 용서 하십시오'
적어도 이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업(業)을 스스로
뉘우치고 부처님 회상(會上)에 나아가 참회 하십시오

◇제 1장, 하늘이 슬퍼할 열 가지 죄
◇제 2장, 저주받아야 할 열 가지 죄
◇제 3장, 용서받지 못할 열 가지 죄
◇재 4장, 개도 용서못할 열 가지 죄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제발 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부처님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지을 수 있는
마흔 가지의 죄목을 일일이 조목조목 설파하였다.

관음독송경 시리즈
※법보시용 주문은 특별 할인하여 드립니다.

우리말 금강경	102쪽/ 값 3,000원	우리말 백팔대참회문	80쪽/ 값 2,500원	불교 성가집	385쪽/ 값 6,000원
한문 금강반야바라밀경	102쪽/ 값 3,000원	우리말 지장보살본원경	338쪽/ 값 6,000원	어린이 찬불가	22쪽/ 값 4,000원
우리말 불설아미타경	66쪽/ 값 2,500원	우리말 원각경보안보살장·팔양경	86쪽/ 값 3,500원	불교성전	328쪽/ 값 6,000원
한문 불설 아미타경	73쪽/ 값 2,500원	예불천수경	83쪽/ 값 3,000원	천수경	286쪽/ 값 5,000원
우리말 천지팔양신주경	57쪽/ 값 2,500원	관세음보살보문품경	71쪽/ 값 2,500원	불교문답	286쪽/ 값 2,000원
한문불설천지팔양신주경	60쪽/ 값 2,500원	우리말 지장경	239쪽/ 값 5,000원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B/D 3층 T.921-8434 F.929-3470 관음출판사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더불어 사는 세상…혼자 사는 사람 없어

☞ 13면에서 계속

음이 갈 수 있는 올바른 가르침을 주십시오.

답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더불어 주고 받고 삽니다. 더불어 살지 혼자 사는 사람 없어요. 입는 것도 더불어 같이 입고 먹는 것도 더불어 같이 먹고 일체가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둘 아니게 실천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둘 아니라고 하느냐. 분명히 줬고 분명히 받았는데 어찌해서 둘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러겠죠.

전깃줄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력이 들어왔을 때는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전력이 끊어졌을 때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양면에 전깃줄을 이어야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듯이 이것은 서로 주고 받을 때 한 순간 이 마음이 즉 말하자면 정신계가 둘 아니게 이어진단 얘깁니다. 찰나에 이어지니깐 찰나에 주고 받은 예가 없단 얘기죠. 찰나에 주고 받은 예가 없다. 그리고 함이 없이 살고 있다. 삶이 없이 살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방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머슴을 살면 집은 자기네 집이 아니죠. 자기네 집이 아니니 자기네 맘대로 할 수가 없고 주인 맘대로 하죠.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대로 했다면 자기 마음대로 한 건 아니죠. 그랬듯이 주인이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는데 듣는 순간, 주는 순간,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대신 내가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한 찰나찰나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이 없이 하게 된단 얘기죠. 그래서 자기 속에서 한생각이 나서 이걸 해야겠다 하면 그것도 함이 없이 하게 되구요. 남이 주는 거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사이가 없고 그 상대방도 준 사이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 둘이 아니게 실천이 되느냐. 각자 모습은 다르게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 둘 아니게 실천이 되게끔 된다면 일일이 생각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뭐 떨어졌다가 붙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자기 뿌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있는 데에 자기 뿌리가 있다구요.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게 뭐를 줘도 상대방도 자기 뿌리를 가지고 있고 나도 내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 뿌리와 내 뿌리가 한데 합쳐버려요. 합치게 돼 있어요. 텔레비전의 전원을 끄면 안나오고 전원을 켜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자재해라 이 소립니다.

처음에는 서투르지만 그게 둘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서툴러도 하다보면 물리가 터지게 되고 자꾸 자꾸 늘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생각하는 자체도 용이하게 되고 유유하게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악한 거나 선한 거나 둘로 보지 마라.' 이랬죠. 그것은 이 모두를 합류화 시키는데 있는 겁니다. 이 몸뚱이도 나 하나로만 보지 마라. 수천 수만 개가 이 몸 속에 살아있다.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자 내 생명들이다. 그러니만 너 하나 모습만 보고 너라고 하지 말라 이 겁니다.

이게 참 말로는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둘 아닌 도리를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는 그 얘기는 내가 할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이 그대로 마음놓고 생각 없이 '이것 좀 잡숴보세요.' 이러고 줬을 때도 둘 아닌 줄 알아라 이거죠. 그걸 생각을 일일이 해서가 아니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둘 아닌 줄 안다면 주고 받은 것이 저절로 스스로에게 댓가가 가요. 가는 줄 모르게 가고 오는 줄 모르게 온단 말입니다.

인과 응보를 모른다면 이 큰 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전세계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지도 모르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서 죽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미나 벌레들의 살림살이 보셨어요? 벌레 둥우리가 하나 있는데 만약 삽으로 딱 흙을 파게 되면 그냥 쫙 땅이 갈라지면서 땅에 묻히기도 하고 다리도 끊어지고 목도 끊어지고 숨이 막혀 죽기도 하죠. 이런 벌레들의 생활이나 우리 살림살이나 뭐이 다릅니까.

그래서 차원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오계를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했죠. 남의 생명도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라. 또는 내 물건과 같이 생각하라. 내 아픔같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도 그저 이런 벌레들이 꾸역꾸역 나오면 그냥 두면 좋을 걸 아무 생각없이 그냥 탁 쳐서 죽이고 일을 벌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산이 헤어지고 죽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바로 자기 문제로 된다는 걸 잘 몰라서 그러죠.

그래 놓고서는 그걸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해결해야죠. 자기가 고통을 받아보면 모든 생명들이 다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를 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가 진화되는 과정이며, 살아있으면서도 진화가 되고, 생산이 되고, 길을 찾고, 걸림없이 길을 걷게 될 때에 비로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모든게 인연대로 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모든게 인연대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 남의 탓 할게 없어요

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해도 이런 공부를 해서 포괄적인 생각으로서 둘 아니게 생각한다면 다 건질 수 있습니다. 죽여도 건지는 거고 살려도 건지는 겁니다. 사람이 한철만 살고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한철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끝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죽었어도 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 생각을 잘할 때에 어떤 때는 종자가 덜 생기게 하는 이유도 있는 거죠. 집은 조그만데 식구가 너무 많게 되면 그 집이 터질 것 같으니까 종자를 열 개 스무 개를 낳아야 될 텐데 그냥 하나로 묶어서 낳는다 이런 것도 되구요, 이런 것도 실천입니다. 모두가 실천이에요.

그리고 내가 항상 그러죠. 자식을 낳아놓기만 하면 자식인 줄 알지 말라구요. 이건 원수도 같이 태어나고 악연도 같이 태어나니깐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자기가 한 것 대로 속 썩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탓을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전에 상원사에 있을 때 일입니다. 공양주로 계시던 분이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자손들은 지금도 살고 있어요. 벌써 10년도 넘었나 봅니다. 어느 해에 큰 비가 와서 산이 전부 뭉그러지고 터지고 해서 군인들이 천막을 치고 자다가 전부 죽었어요. 산사태가 나서 논이 그냥 다 메꾸어지고 집이 다 무너지고 그랬어요. 그때 신문에도 크게 났었죠. 그랬는데 그 집하고 그 집 논만 그냥 됐어요. 딴 데는 다 뭉그러지고 그랬는데 그 집만 그냥 됐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우연일까요. 우연이라는 건 없거든요. 이게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온다 하더라도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못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어느 혹성에를 찾아갔는데 말입니다. 어떤 분은 허황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럼 그냥 어느 집이라고 합시다. 어느 집을 찾아갔는데 말입니다.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뜻으로 통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또 그런 데를 찾아갈 때는 그쪽의 모습대로 찾아가야죠. 여기의 모습으로 그냥 찾아가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만물이 모습을 바꿔서 이렇게 해가도 손색이 없다는 얘기죠. 나쁘게 하는 일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는데 이 공부 안하는 사람들이 거길 찾아갔는데요. 받아들이질 않고 '너 여기 다시 오면 죽어.' 이러고 도로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치가 바로 이 마음에는 내가 없는 데가 없느니라 이랬기 때문에 차원이 있구요. 또 고생을 해야만이 사람의 가치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시키는 거지 정말 고생을 하라고 고생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고생을 해야만이 사람 사는 이치를 알고 불쌍한 이치도 알고 잘못하면 고를 받는다는 것도 알고 또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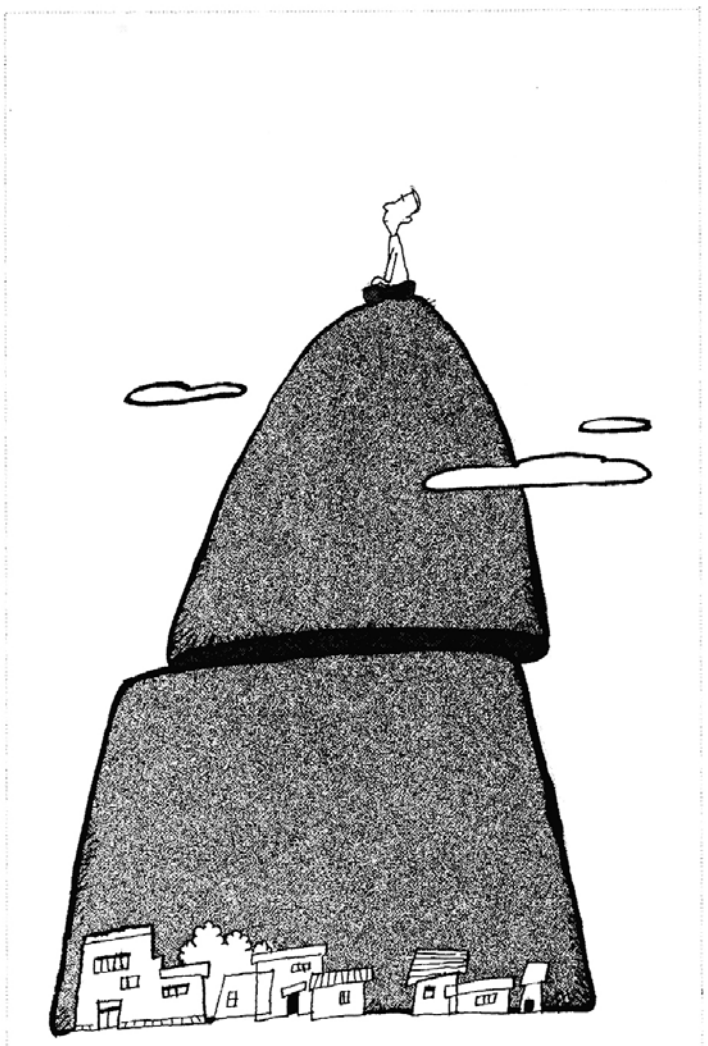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부처님을 조성해 놓은 것도 우리가 그런 이치나 똑같습니다. 불이 난 집에서 어린애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그 집에서 영 나올 줄을 모르거든요. 그걸 몸이라고 보죠. 그러면 그때 '얘, 너 좋은 거 사줄 테니까 빨리 나오너라.' 하고 아이를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건지신다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나를 믿어라, 부처님을 믿어라, 또 뭐 관세음보살을 믿어라, 또 뭐를 믿어라 이런다면 그건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를 이끌어 가는 자기의 주장자들을 믿으라는데 어떻게 안믿습니까. 주인공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자불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주장자라는 것도 이름이고 불성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만 굳이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주인이자 모든 게 공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두가 방편이긴 하지만 주인이라 하면 자기인 줄 알고 빨리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되죠. 내가 살아야 공부도 하는 거지 내 몸뚱이가 죽고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합니까. 또 한철 다시 태어났어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게 또 문제죠. 이런 공부할 수 있는 한도량에 한마음으로서에 이렇게 만나기가 참 어려운 문제죠. 시대를 좇아서 딱 만나기가. 그러니 지금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죠.

여자는 성불할 수 없습니까

문 부처님께서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남의 생명 남의 아픔 자기것으로 생각 모습은 다르나 마음은 둘 아니게 실천

답 그것이 왜 그런 방편이 생겼느냐 하면 그 당시에 출가한 비구니가 궁중에서 살던 사람이어서 아만도 많고 애정도 많았기 때문에 그걸 깨트릴려고 방편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거죠. 그러나 아난이 다시 물었을때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그런 계율을 바꾸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모습은 다르지만 마음의 근본은 다 똑같으니까요. 뿌리가 똑같듯이 생명이 똑같듯이 마음의 근본은 다 똑같다구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좁은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늘이 종자라면 땅은 그 종자를 기르는 산하대지가 되는데 어찌 그 산하대지를 버리고 종자를 기를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건데 말입니다. 이 세상이 적다면 아주 적지만 크다면 어마어마하게 큰데 마음들을 그렇게 먹으니 언제 자기 몸을 털고 일어서겠습니까. 언제 모든 걸 포괄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가 그 속에서 훨훨 털고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자기도 없고 모두가 없게 되죠. 없는 그 가운데서 그냥 여여하게 자유스럽게 배출할 수 있고 승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 공부하는 데는 여자 남자도 없고 가난과 부자도 없고 늙고 젊고도 없고 그래요.

엊그저께 내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느 처사님이 돌아가신 얘기 말입니다. 그 분은 여기 다니시지 않으셨어도 부인이 이 집에 가면 절에 와서 공부한 이야기를 매일 해드렸답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는 실천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리니 자기가 어느 때 갈 것도 알고 자식들 괴롭히지 않고 자유스럽게 가셨죠.

한 순간에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10년이 됐는데도 딴 소리를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한테는 10년이 됐어도 당신은 단 하루도 안됐다고 그러죠. 여기 온지 단 하루도 안됐다구요. 우리가 요만한 거 하나라도 잘 알아야 실천을 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말하자면 수 억만 명을 죽였어도 수 억만 명을 살리고 또 거기서 체로 쳐서 거르고, 걸러서 열 개를 한데 뭉치려면 뭉치고 스무 개를 한데 뭉치려면 뭉치고 그래서 하나를 만들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지구가 집이라면 그렇게 엉뚱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사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몸뚱이가 내 집인데 내 집을 망가뜨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망가뜨리는 것도 마음에 따라서 망가지거든요. 그냥 애탄기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발발발발 하고 가다보면 뭐 기능이 다 막히죠. 막히고 병이 나도 마음에서 고장난 것 마음으로 풀려고 하지도 않구요. 그냥 곧바로 가서 잘라내고 온통 야단법석들을 하죠.

그러니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 고통이라는 것도 생각 하나 잘하면 모든 것이 멸할 수 있는 거예요. 고라는 건 집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니까 그 집착을 놓는다면 멸하게 되고 그러면 그냥 도가 된다구요.

그렇게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간단한 거를 실천으로 옮겨서 점차적으로 없애기가 참 어려운가봐요. 그냥 한꺼번에 뭉쳐서 놓아버릇하세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수롭지 않은 말같지만요 세상에는 그렇게 많이 벌어지거든요.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아주 고통을 주려고 나왔는데 말입니다. 고통을 주려고 나왔는데 고통을 아무리 줘도 고통을 받지 않거든요. 고통을 받지 않으니까 그 악연으로 나왔던 것이 스스로가 자기대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니까 착해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오는 고통을 다 받고 있으면 상대 인연이 얼마나 고소해 하겠습니까.

사람 사는데는 참 별의별 일이 다 많고 별의별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하는데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딱한 일이 여간 많지 않죠. '저 사람은 그냥 눈감았다 하면 저절로 그리로 들어가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될까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훨훨 털고 일어나서, 내 하나가 일어나는데 수만 명이 일어나고 수만 명이 일어나는데 이 우주가 다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걸 아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 몸 하나 잘못된다고 해서 그게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식구들을 사랑하고 내 몸 속에 들은 생명들을 사랑한다면 내 몸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의 시자를 위해서 내가 꼭 벗어나야만 시자들도 따라서 다 진화되겠구나, 성불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라구요.

여러분 모두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 공부들을 하시느라고 앨 쓰는데 보이지 않는데서 저절로 상이 내릴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얼마나 큰 상입니까.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9년 9월 19일 셋째주 정기법회에서 법문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이 책은 역사적 인물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참 모습과 그의 가르침을, 그가 살고 간 역사적인 삶의 현장에 되돌아가 재조명함으로써 보다 생생하게 부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오늘을 사는 모든 이에게 삶의 참된 뜻이 무엇이며, 참된 삶의 실현을 위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관음출판사 ☎ 02)921-8434



불교성서

홍순철 지음
값 30,000원

날마다 좋은날은…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벗님들과
옛 스님들께서 남기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
삶 가꾸는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서 전하는 책입니다.

도서출판 날마다 좋은 날
☎ 051)466-4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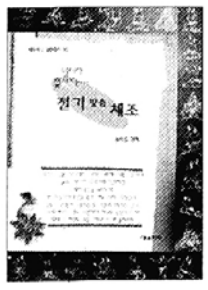
월 간
날마다 좋은날

성재도 편집
값 1년회원 10,000원

건강을 선물합시다.

절기마다 기운의 흐름이 다르고, 그 흐름에 따라 양생법(養生法)이 다르다.....
신선들의 무병자수체조는 근육이 아닌 정신과 경락을 단련하니 그림과 함께 동작을 익히고, 몸들이 설명을 본다.
송나라의 신선 진희이선생이 창안함에 뒤게 이황선생도 친히 그려가며 즐겨 수련한 8가지 동작가 유기가결!

대유학당 ☎ 02)2232-8383



절기맞춤 체조

윤성철 편저
값 7,500원

찬란한 우리의 문화를 꽃피운 전통불교의 모든 것한국불교의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잡대성한 것으로서 20만 수천 매라는 방대한 원고량을 검토, 수정, 정정을 거듭하여 완전무결하게 다듬은 불교사전의 결정판이다. 우리나라의 문화, 사상, 예술, 문학, 교육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친 사전으로서의 완결판인 불교대사전은 5천여 항의 진수만을 골라 일반인은 물론 전문인들이 불교를 연구하는데 손색없는 사전이다.!

명문당 ☎ 02)733-3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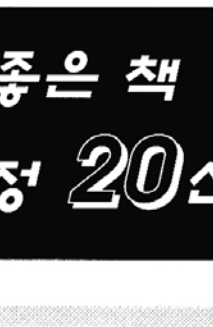


불교대사전

한국불교대사전 편찬위원회 엮음
전7권/ 값 350,000원

"현대 과학의 경계를 뛰어넘어 우주의 지성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밝혀진 생과 사 의 비밀, 세계적 각자들의 깨달음의 본질, 신비 체험의 비밀의 열쇠, 예고의 소멸과 완전 무외 깨달음에 이르는 경로와 시인선 행법이 흥미롭게 소개되는 은하계의 완시경전. 세상에 잠복하는 무명의 붓다들이 갖는 40가지 특징, 그들을 삭발하는 여오의 괴적적인 몽참력과 예언."

모색 ☎ 02)765-7438



폐허의 붓다

무묘앙에오 지음
박취산 / 조성애 옮김
값 12,000원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 불교 강의

만법귀일(萬法歸一). 선(禪)에서의 모든 물음은 하나로 귀착된다. 너는 대체 누구냐?
『무문관』은 〈그 대답될 수 없는 물음〉(無門)을 향한 선의 전형적 〈접근〉이다. 이 분 아닌 분을 노크하여 선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는다.

여시아문 ☎ 02)737-0695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형조 지음
값 6,000원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 속에는, 특히나 법구경이나 수타니파타 등의 초기 경전에 는 불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교훈적이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금언 들이 많이 있다. 이 책은 그 방대한 경전과 고승들의 어록, 문집에서 금옥같은 명구들만을 뽑아 엮고 있다.

민족사 ☎ 02)732-2403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성우, 석지현 엮음
값 5,000원

"중국의 선불교는 독특하다. 인도의 불교가 논리적이라면 중국의 선불교는 직관적이다. 지극히 비논리적이면서 정확하고 뚜렷하다. 싱싱하고 활기차다. 생명력이 넘쳐흐른다. 막힘이 없고 걸림 없다. 항상 넉넉하다. 여유가 있어 좋고 당 당해서 더욱 좋다. 그들에 있어 진리는 항상 열려 있는 진리이다. 일상 생활 그 대로가 진리의 아우러진, 둘이 될 수 없는 하나이다. 그 열려 있는 진리와의 만 남을 위해, 중국의 선불교와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저자의 말에서)

밀알 ☎ 02)529-0140



이항봉의 열린마음
生活禪,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항봉 지음
값 8,500원

과거 비비시불로부터 석가모니불에 이르는 7불로부터 시작해서 1조 마하가섭 이후 선종의 초조에 이르는 28조 보리달마를 거쳐 후대 52조에 이르는 제불제조(諸佛諸祖)에 이르는 성인들의 깨달음을 전기형식으로 엮은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바로보인 ☎ 02)522-0122



전등록 1-5

문재현 옮김
값 18,000원

"부처님 말씀 전하기"
⋮
다섯해

현대불교 창간 5주년
새롭게 태어납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5주년

불서출판과 함께 합니다.

불서출판과 함께 합니다.

원도 산물의 오두막집에 기거하고 있는 법정 스님이 76년 발간한 에세이집 「무소유」 개정판.

이책이 아무리 '무소유'을 말해도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

-김수환추기경-

범우사 ☎ 02)717-2121

무소유

法頂 지음
값 6,000원

좋은책 선정 20선

불서 전문 출판
불교용품기획 제작

보안출판사
☎ 051-255-5675

늘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살아있는 진리 탐색

부처님의 말씀인 〈대장경〉과 여러 고승대덕들의 참된 가르침을 작지만 알차게 엮었습니다. "태양은 언제나 밝은데인간들은 낮과 밤을 보며,허공은 본래 텅고남이 없는데 비온 뒤의 하늘에는 무지게가 걸린다. 이와같이 부처님의 법음은언제나 한결같은 짜여있는 진리를 드러내나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에게 속아서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한다." 좋은 책 좋은만남

부다가야 ☎ 051)865-4383



즐겁게 열어가는
지혜문 행복문

덕진스님 지음
값 4,400원

인생의 깊은 울림을 읽는다.

책 갈필마다 삶의 향기와 지혜, 인생의 깊은 울림이 담긴 『여든 살의 연꽃 한 송이』는 일생 동안 학문의 길을 걸다가 불교라는 신념체계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정년퇴임 후 대자연에 귀의하여 구도의 길을 걸으면서 써내려간 『두메산골 앉은뱅이의 7 원』에 이은 두 번째 수상집이다.

불광출판사 ☎ 02)420-3200



여든 살의
연꽃 한 송이

이남덕 지음
값 8,000원

생활속의 화두참선

이 글은 지은이가 나름 찾아 떠났던 여행, 선방에서의 여행기록으로 아직 불교와 인연하지 못한 분들에게 피부에 와닿게끔 수행일기 형식으로 써내려간 것이다. 마치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더하기를 가르치듯 현실감 있고 자상하게 화두참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불광출판사 ☎ 420-3200



초보자를 위한
화두참선 수행기

조정연 지음
값 7,000원

기도성지 순례를 통해 감동을

이 책은 간절하게 기도하던 한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되는 전국의 유명한 영험 기도처36곳을 소개하고 있다. 영축산 통도사 적멸보궁을 비롯한 5대 적멸보궁, 강양 낙산사 홍련암을 비롯한 관음 기도성지, 철원 보개산 심원사를 비롯한 지장 약사 문수 기도성지, 청도 운문사 사리암을 비롯한 나한 기도성지, 서울 삼각산 도선사를 비롯한 새로운 기도성지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 신비로운 체험담 이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절의 역사, 문화재, 절을 찾아가는 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불교시대사 ☎ 02)723-1679



한국불교
기도성지

정성운 외 지음
값 7,000원

보다 높은 불교 수행으로 나가는 길

이 책은 이따사로 알려져 있는 인도 다르마의 큰스승 디팡까라 슈리쥬냐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다. 여기에 간추려져 있는 가르침들은 다르마의 수행자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누구든 출등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이 가르침은 그저 하나의 지적(知的) 이해 자료로써 접근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나날의 생활과 행동 속으로 흡수하여 사는 사이에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때라서 가장 근엄하고 조심스럽게구도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바꾸기』는 매우 유익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불일출판사 ☎ 02)02-733-5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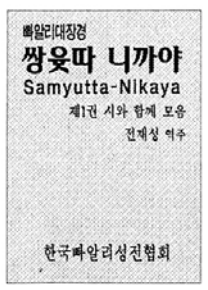
마음바꾸기

게쉬 가망 마르세아 지음
박영철 옮김/ 값 3,500원

한국빠알리대장경
국내 첫 출간

쌍윳따 니까야의 성립시기는 기원전으로 훨씬 소급해 올라가며 이른바 第一結集에서 그 모태가 형성된 것이다. 이 빠알리 초기 경전은 발전된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부처님의 가르침 원형을 담고 있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0502)321-8437



쌍윳따 니까야
1, 2, 3

전재성 역주
값 1세트 65,000원

아함경에서 벽암록까지 잇는다.

공도리(空道理)에 대해 바르게 알기를 원으로 세운 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개념적 해석을 탈피하여 생활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空)의 실상을 여실히 깨닫게 하였다.

삼앙출판사 ☎ 02)762-5166-7



가치있는 삶의
지혜를 얻는 반야심경

고목 지음
값 7,000원

퀼른에서 불어온 깨달음의 향기

'거지 성자'와의 만남은 마치 "깊은 어둠 속의 한 줄기 새벽빛으로 전해오는 영혼의 울림" 같은 것이었다. … 불자들이 이 책을 진지 하게 읽으며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 우리가 희망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 도법스님(실상사 주지)의 불교신문 컬럼 중에서 -

선재 ☎ 0502)212-3450
(0502는 평생번호 표시)



거지성자

퀼른의 성자 페터와
함께 한 7년

황석영 추천 / 전재성 지음
값 7,500원

세상사에 대해 서술한 산문집.

도인은 길을 묻지 않는다. 누가 봉원을 기로막나, 산들린 칭와대, 서울가요, 이중에 못실겠다, 전통은 무너지고, 이 시대의 지도자는? 등의 글을 묶었다.

솔과학 ☎ 02)929-9787



이승의 감투는
저승갈때 짐이 된다

현백림 지음
값 7,500원

연 속에 충만한
그러나 너무도 은밀하여
미처 눈치챌 수도 없는
만물 상호간에 흐르는 사랑,
서로 돕고 살려주는
자연생태계 112가지
은혜로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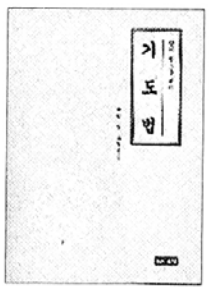
만물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신슬래 지음
값 7,000원

솝리 ☎ 02)723-2996

영가를 위하는
가장 훌륭한 일은…

이 책은 누구라도 쉽게 49재 영가천도를 위한 의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먼저 49재와 천도재의 의의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영가천도 기도문, 기도법, 독경, 그리고 49재 천도재를 준비하는 마음자세들을 수록하였다. 특히 매 7일마다 드리는 기도문은 절에 가지 않는 날에도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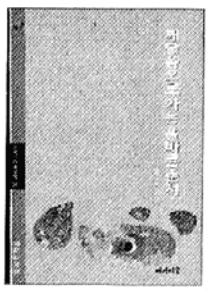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법

회암스님 지음
값 6,000원

여래출판사 ☎ 02)730-8976

옛날 인도에서 부처님처럼 존경을 받던 스승 아티샤는 소승과 대승을 망라한 『보리도등론』을 결집하였고, 티베트의 스승 옹카빠 또는 그뒤를 이어 『보리도차제』라는 책을 만들게 된다. 그 뒤 티베트에서는 이 『보리도차제』에 의거한 여러 경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책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도 위의 경전에 의거하여 선정이나 지혜, 공성 등 누구나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만 간추린 것이다. 이 경전들을 망상하듯 읽다 보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머리말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펠 스님 편역
값 4,000원

여시아문 ☎ 02)737-0695

- 지장참부경 • 지장예법
- 발원문 • 지장왕보살지혜심경
-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 정근송
- 축원문 • 지장청 • 지장경약찬게
- 지장예찬문 • 지장예참문
- 염송다라니 • 지장천도의식
- 무상계 • 법성게 • 무드라와노래



지장불교 공양차제법

석용산스님 찬술
석선선 스님 엮음
값 6,000원

열린마음 열린세상
☎ 051)625-2253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 교수인 저자가 한국 사찰에서 참선수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며 불교전통을 가진 동아시아 의 다른 나라들의 그것과 비교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파란눈 스님의 한국 선 수행기

로버트 버스웰지음
김종명 옮김
값 10,000원

예문서원 ☎ 02)925-5914

명의(名醫) 허준(許浚)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 기타 종합한방의서 비방수록

동서의 의학이 서로 교환된 뒤에는 서양의학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동의보감이 현재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자랑하는 중국 명대(明代)의 이시진(李時珍)이 쓴 본초강목이나 여타 한방의서에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는 허준 선생의 치밀함과 집념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동의보감을 기초로 해서 'TV동의보감'을 300회 넘게 방송하게 된 연출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행운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황인영



TV 동의보감

황인영 엮음
값 10,000원

우리출판사 ☎ 02)313-5047

죽음과 환생사이의 영혼을 제도하는 밀교와 정토의 가르침

죽음에 다다랐을 때 어떠한 현상이 보이며,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내생에 무엇으로 태어날 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죽음 뒤에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지를 그때 어떻게 해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해탈하기 위하여 살아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적고 있는 것으로 중국과 티벳의 불교책 가운데서 정토신앙의 왕생 해탈법과 밀교의 중음신 해탈법을 정리한 것이다. 중국 정토종의 큰스승 열 분의 삶의 자취를 정리하여 함께 수록하였다.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장스님 엮음
값 6,000원

우리출판사 ☎ 02)313-5047

이제는 집에서도 온 가족이 손쉽게 법회를!
모든 불자들을 위한 가정법회 안내서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5계 수지문 낭독, 찬불가 성구 및 해설, 발원문 사홍서원 신행활동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삶의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될만한 내용을 이함부경전에서 가려뽑은 성구와 그 의미를 드러내주는 해설, 축원이나 감사는 물론 각종 행사나 절기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기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작성된 발원문. 온 가족이 날짜와 요일을 정해놓고 혹은 특별한 날에 가정법회를 진행한다면 훌륭한 불자가정은 물론 삶의 지혜와 교훈,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정법회

이학종 편저
값 10,000원

운주사 ☎ 02-3672-7181

각범혜홍 승려(중국,1071-1128)가 깨달은 사람들의 생각과 말,행동을 모아 엮은 인물 조명기. 무주조산본적선사, 여주풍혈연소선사,천복승고선사 등 42명을 상권 여 싣고 광혜원련선사, 앙상행위선사 등 39명의 선사를 하권에 담아 각 승려의 일생,사상을 들려준다.
전2권.



선림승보전 (상)(하)

혜홍각범 지음
값 각권 18,000원

장경각 ☎ 02)744-1541

"부처님 말씀 전하기"
⋮
다섯해

현대불교 창간 5주년
새롭게 태어납니다

책방 여시아문
창간 5주년

불서출판과 함께 합니다.

불서출판과 함께 합니다.

벽화는 불교가 전래된 이래 전해져 내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나 사건들 중에서 특히 중요하고 교훈이 될 만한 것들이 선택되어 그려진 것들이다. 약 300여 점의 불화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핵심적이고 알기쉬운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이 책은 무심코 지나쳤을 불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줄 것이다. 석가모니일대기, 부모은중경,지장보살과 지옥,팔상도에서 과생된 벽화,심우도, 벽화에 나오는 동물들, 십이지신, 관세음보살 효법신장과 천인,성문과 보살,고승과 선사,설화 등의 주제로 되어 있다.



재미있는 벽화이야기

권영한 지음
값 12,000원

전원문화사 ☎ 02)704-1626

좋은책 선정 20선

현대의 지식인들은 무식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무식으로의 여행이다. 계속 무식해지고 무식해져서 무식이라는 낱말조차 쓸일 수 없을 때 진의가 드러나리라



꿈에서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 (1,2,3)

성내경 지음
값 15,000원

중명출판사 ☎ 02)2636-6873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담고 있는 천수경을 읽는다.

이 책은 천수경을 해설하기 전에 일반인들이 어떤 입장, 어떤 생각으로, 이 경을 접해야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를 먼저 설명하고, 점심때, 윤이삼점등 불교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상을 열거 경전들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또한, 이 책은 경전의 유래, 경전이 설해진 장소, 경전을 설한 이유 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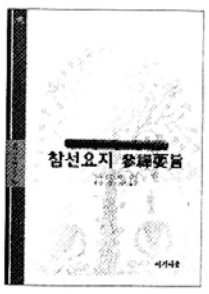
깊은뜻이 담겨있는 부처님말씀 천수경

천 명 일 지음
값 8,000원

지혜의 나무 ☎ 02)730-2211

선(禪)은 가장 궁극적인 일이며, 모든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이다. 이 일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갈이 소멸해 버린 자리이며, 생각으로는 미칠 바가 아니다.

-참선요지 서(序)에서-



참선요지 參禪要旨

허운(虛雲)화상 법어
대성(大晟)스님 옮김
값 5,500원

여시아문 ☎ 02)737-0695

퇴마스님, 귀신과의 싸움

귀신쫓는 성안 스님의 퇴마 이야기와 마음 다스리기 오랜 지장기도와 기공훈련으로 귀신을 다루는 힘을 얻은 성안스님 7년여 동안 귀신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수많은 영혼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된 인간의 생과 윤회, 영혼의 비밀을 생생하게 밝힌다. 부록은 잡귀를 쫓고 수맥을 없애는 퇴마 테이프



말썽꾼 귀신도 내 말은 듣지요

성안스님 저
값 7,500원(테이프 포함)

청하출판사 ☎ 02) 702-1660

차는 우리에게 멋과 여유 그리고 차선(茶禪)으로까지 이끌어 주는 영물(靈物)

차기 있는 삶, 차와 함께 하는 삶은 언제나 멋과 여유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차는 읽은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 향을 속에 건강과 웃음과 덕이 스며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 본정(淨)·중(中)·동(動)이 어우러질때 그 멋과 여유가 더욱 드러난다. 이 책은 이연자씨가 차를 가까이 하면서 얻은 생활의 지혜이다. 이연자씨는 말한다. "차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욱 많아지지만 창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주는 영물(靈物)이다" "차가 들어있는 음식, 차가 들어있는 음료, 차가 들어있는 모든 것은 차향만큼이나 그 정신이 향기롭다.



차가있는 삶

이연자 지음
값 7,000원

초롱 ☎ 02)738-5791,730-0235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님

역대 눈밝은 선지식들의 화두 짓는 방법에 대한 글들 중에서 비교적 일반인들이 알기 쉽고 구체적인 것들을 엮은 책. 성철·참선하는 법, 청담·화두는 이렇게 잡아가라, 만공·나를 찾는 법, 한암·참선에 대하여, 서암·화두 참구법, 숭담·활구 참선법, 법룡·간화선지도법, 박산무이·처음 화두 잡는 사람을 위한 마흔 아홉가지 등이 실려 있다.



화두 짓는 법

편집부 엮음
값 7,000원

토방출판사 ☎ 02)722-4588

한국밀교를 일깨운 중흥조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의 가르침

(心)은 곧 불(佛)이요, 불은 곧 심인고로 불법은 심의 법이라, 불법은 체요, 세간법은 ◎E자가 되나니, 체가 곧으면 그림자도 곧고, 체가 굽으면 그림자도 굽는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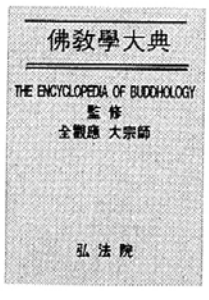
佛法을 體요 世間法은 그림자라

편저자 : 지현(장응철)
값 10,000원

해인행출판사
☎ 02)913-0753

불교대사전(상, 하)

총 65,000여 개의 항목을 수록하고 있는 이 사전은 그 방대함과 현대적 표현이특징이다. 용어의 채집에 있어서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등의 중요한 불교문헌 들을 널리 섭렵하고 있으며, 또한 그 각국의 민간신앙이나 제방에서 쓰여지고 있는 용어들까지 수록하고 있다. 특히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벳트어 등의 원어 를 표시하여 설명의 정확을 기하고 있다 표현에 있어서는 문장을 간결하고 명이 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설명으로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불교대사전 (상, 하)

길상 지음
값 220,000원

홍법원 ☎ 02)734-7614

무의식적인 진화는 인간으로 끝난다!

물질은 전체적으로 무의식적이다. 한 사람의 뇌다는 전체적으로 의식적이다 인간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지옥의 변방(limbo)'라는 하나의상태 속에서 산다. 더 이상 그는 과거의 '그'였던 것이 아니고, 아직은 앞으로 그가 될 수 있는 '그것'도 아닌 것이다. 더 높은 의식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선택한 극소수의 사람들 바로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오쇼는 '비의의 심리학'에 담겨 있는 장의들을 들려준다



비의(秘議)의 심리학

오쇼 지음
이하정 번역(李荷淨)
값 8,000원

황금꽃 ☎ 02)711-4227

영가 천도의 묘법과 기도하는 이의 마음 가짐 등을 제시

기도성취의 원리와 불보살의 가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행할 수 있는 기도의 기본 원리와 방법,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거나 특별한 경우에 행하는 기도법등, 다양한 기도법을 제시하고있다.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 지음
값 3,500원

효림 ☎ 02)587-6612

"3천옥불 봉안 신심 북돋아"

관문사 창건 1돌 맞아 주지 운덕스님



"관문사는 불자 여러분들이 신심을 키우고 기도수행하는 매머드 종합불교회관입니다. 창건 1주년을 계기로 기도정진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수행처로서, 또 불교문화를 익히고 관람할 수 있는 도심포교당으로 문호·공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난 6일 창건 1주년을 맞아 3천옥불(玉佛) 점안법회를 봉행한 천태종 서울 관문사 주지 운덕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관문사가 동시통역시설의 국제회의실을 갖추고 있는 만큼 범종단적으로 국제회의를 많이 유치하고 각종 문화행사도 계속 열겠다고 밝힌다. 외국인 불교지도자들을 비롯 관문사를 참배하는 사람들마다 이 시대에 걸맞는 사찰이라는 평가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힌 운덕스님은 "관문사를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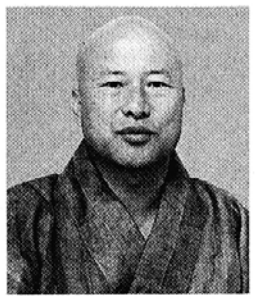
관문사 5천여 신도들이 재정을 비롯 사찰의 모든 일을 내집 일처럼 애정을 갖고 잘 해주어 고맙다는 스님은 저번 폭우때 한마음으로 자원봉사를 나섰던 것처럼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도량으로서 문을 활짝 개방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관문사내에 불교전시관도 마련하고 사물놀이, 서예, 꽃꽂이회, 전통무용, 다도강좌 등을 운영 불교문화 창달에도 이바지하는 도량으로서 오탁악세를 불국정토로 바꾸어 가는데 앞장서도록 이끌어가겠다고 밝힌다.

한편 6일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열린 '삼천옥불점안 및 창건1주년 기념대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을 비롯 종단스님들과 관문사 신도, 내외귀빈등 6천여명이 동참 축하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 법음전하는 모임 '풍경소리' 대표이사 성운스님

"자비의 말씀 시민들에 전파"



"불교의 당면 과제는 포교의 현실화입니다. 구호만 거창한 포교는 오히려 불교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죠. 장경 속 불법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풍경소리'의 활동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포교의 신선한 시도입니다."

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 관계자들의 권유로 무주상의 마음으로 대표이사직을 수락한 성운스님(삼천사 주지)은 "살아 움직이는 포교를 위한 젊은 청년 불자들의 아름다운 발의가 포교 일선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운스님은 "9월 15일 총지종과 서울지하철법우회의 도움으로 1백15개 역사에 4백60개의 '자비의 말씀' 게시판 설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지방청도청 등으로 게시판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부산, 대구, 인천 지하철 역사와 공항, 터미널, 빌딩 엘레베이터 등 대중이 많이 활용하는 공공장소에도 '자비의 말씀' 게시판을 설치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불법을 접하고, 마음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비의 말씀' 포스터를 축소한 '엽서형 자비의 말씀'을 제작, 일반인 및 전국 학교에 배포해 학생들이 교도소와 군장병들에게 위문편지를 보낼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접 포교를 극대화 하는 각종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성운스님은 또 "수혜 대상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포교를 실시하기 위해 풍경소리는 지역, 계층, 학력 등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접근방식의 '맞춤포교'를 연내에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교차로

18일 쌍계사 주지 진산식



통광 쌍계사 주지는 18일 오전 11시 쌍계사 대웅전에서 제16대 주지 진산식을 갖는다.

중앙승가대 총장 초청법회



법산 동국대 정각원 원장 스님은 12일 오후 4시 정각원에서 교직원 및 학생, 일반신도들을 대상으로 중앙승가대 총장 현성스님을 초청, 법회를 연다.

'비판불교' 비판세미나



종림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스님은 19일 오후 2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비판불교의 비판적 검토' 제5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흥렬교수(이화여대)가 '비판불교에 대한 서양철학 입장에서의 접근'을 주제로 발표한다.

청송감호소에 라면 전달

만오 포항 용주사 주지는 신도회와 함께 8일 운동회를 연 청송 제1보호감호소 재소자들에게 라면 1백상자를 전달하고 위로했다.



정광사 종합불교회관 낙성



영제 천태종 울산 정광사 주지는 18일 삼존불 봉안 및 종합불교회관 낙성식법회를 봉행한다. (052)277-7100

구룡사 진신사리 봉안

원봉 대구 구룡사 주지는 15일 구룡사 대웅전에서 부처님진신사리 봉안 및 만등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30분부터 1부 점안식, 11시부터 2부 대법회및 진신사리친견, 3부는 오후 6시부터 점등식을 봉행한다.

정토회 대구법당 이전법회



법륜스님은 2일 정토회 대구법당 이전 및 봉불점안법회를 봉행했다. (053)744-3025

美 버클리大서 강연

박완일 한국사회교육연구원 원장(前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은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버클리대학교에서 한국학센터 및 불교클럽 초청으로 '불교는 어디에 있는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청담정보통신고' 신입생 모집



이근우 청담종합고등학교 교장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정보통신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돼 학교명을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로 변경하고 200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0333)691-8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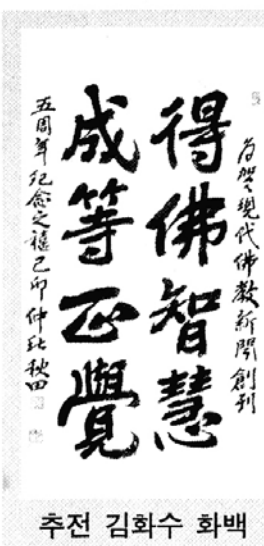
'민주통일복지국민련' 개소식



고준환 민주통일복지국민연합회장(경기대 교수)은 2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경기빌딩 106호 사무실에서 창립기념 개소식을 열었다. (02)362-4060

故 안순진 보살 49재

故 안순진 정각노인대학장의 49재가 21일 오전 10시30분 청계사에서 거행된다. (02)386-3878



추전 김화수 화백 창간5돌 축하휘호

"득불지혜 성등정각(得佛智慧 成等正覺) :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무상등정각을 이루리라"

〈법화경 수기품〉



추전 김화수 화백은 지난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서 그림을 그려 무료보시한 공로로 최근 일본의 문화진흥회가 수여하는 '99 국제예술문화상과 훈장을 받았다.



전국산악인련 통일기원 대법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손현수)는 3일 안동 홍은사(주지 혜욱)에서 홍은사 창건2주년기념 및 남북평화통일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대학진학을 포기한채 자신의 간을 급성 간경화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부친(오영수,47)에게 이식해 회복시킨 오강민군(19세, 경기도 부천시)에게 제1회 효행상과 부상 1천만원이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암 前조계종 종정, 정동호 안동시장, 권정달 국회의원, 전국 30여개 지역 불교산악회 회원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광주·대구사원련 '화합' 대법회

광주·대구사원주지연합회는 6일 광주 무각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대구사원주지연합회 회장 원명,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천운, 동화사주지 성덕, 송광사주지 현지, 최동원 제9교구신도회장, 박상규 국민회의새연등회장, 이용택 대구·경북새연등회장, 고재유 광주시장 등을 비롯 1천5백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합동법회를 개최했다.

대구사원련스님들과 신도들은 법회후 광주 금남로와 전남도청을 방문하고 망월동 묘역을 참배, 희생자 천도재를 봉행했다.



실천승가회 '불교운동사' 출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는 1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50여명의 회원 스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7주년 기념법회 및 〈한국현대불교운동사 3(10.27법난편)〉 출판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식에서 의장 청화스님은 "10·27법난이 일어난지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역사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자료집은 불교자체에 불교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관음종 노유은성어린이집 개원

관음종이 서울 광진구로부터 수탁한 구립 노유은성어린이집 개원식이 7일 거행됐다. 이날 개원식에는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지섭(관음종 총무부장) 화암(관음종 감찰부장)스님 등 종단 관계자와 금명수씨(어린이집 원장) 등을 비롯해 나종한(구의원) 최종덕(시의원) 임연식(새마을 지도자협의회장)씨 등 지역인사를 포함해 2백여명이 참석했다. 노유은성어린이집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역사회 탁아교육에 이바지하게 된다.

제5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의 정령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내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5회째를 맞았습니다. 가슴에 담아 두어온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 게재됩니다. 2000년에 발표되는 신행수기 공모에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원고지 30매…마감 12월18일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마감: 1999년 12월 18일
△당선작 발표: 2000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4162
△시상내용
◇ 대상(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우수상(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천태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관음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 상장, 부상
(순금 행운의 열쇠)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성 명 서

- 불교자주권 수호와 조계종단 정상화를 촉구하며 -

지난해 발생한 조계종사태이후 점차 안정되어 가는듯한 조계종단에 지난 10월1일과 2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의 조계종 총무원장 부존재확인소송 판결과 총무원장직무정지 가처분신청판결로 인해 또다시 조계종단 분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한국불교계는 물론 일반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작금의 조계종단 문제는 한국불교와 국가 전체의 문제로서, 더 이상 조계종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아래 한국불교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불교의 자주권은 어떤 경우라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금번 사법기관의 판결은 조계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깨고 새로운 종단분규와 한국불교계의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결과를 낳고 있다.

더욱이 한국불교의 전통성을 인정받고 있는 종단 대의기구가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의 대표자를 재판부가 임명한 것은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종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종권을 흔드는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사법기관에서 불교문제를 사법 심리할 경우 신앙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종교의 사회성과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사태는 막아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육화의 대화합을 생명으로 삼는 우리 불교계가 폭력집단으로 전도되는 듯 비춰지고 있음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조계종 사태로 인해 조계종단은 물론 한국불교가 대내외적으로 명분을 잃었고 국민들과 사회에 큰 혼란과 피해를 주었던 점을 뼈속깊이 되새기고, 대참회와 진정한 대타협을 반드시 이루어서 민족정신을 향도하는 불교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 낼것을 2천만불교도는 강력히 희망한다.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한다.

역사적으로 한국불교는 나라와 민족정신의 지주로서 국민정서순화와 문화창달의 제역할을 다해 왔으며, 민족을 지키고 조국을 보전하기 위해생명을 바치는 순교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으로서 조계종단은 역대 선조사스님들의 행업을 본 받아 종단의 위상에 맞는 승단을 이루고 21세기 한국불교의 중흥과 사회선도를 위해 용맹 정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부대중이 대화합을 이루고 불교적 대안을 모색하여 불교 위상에 걸맞는 명예를 회복하고 부처님의 대승정신을 바탕으로 이 사회에 자비광명을 드리워 중생구제와 불국정토 구현에 앞장서는 종단으로 거듭나기를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1999년 10월 8일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 일동**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홍인곡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전운덕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	김성초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이홍파
대한불교	보문종	총무원장	정혜일
대한불교	일승종	총무원장	김혜정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주운경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정경식
대한불교	원융종	종정	배일공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송무진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총지화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전남정
대한불교	용화종	총무원장	이법덕
대한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이대화
대한불교	본원종	총무원장	이효성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유청송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한학봉
보국불교	영불종	총무원장	이청봉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윤일오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이혜공
대한불교	열반종	총무원장	김혜곡
대한불교	미타종	총무원장	이월정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신혜안
대한불교	진언종	종리원장	손금광

※본 성명은 10월 7일 10시 30분에 개최된 제3차 임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발표하는 것임.

"날짜 물은후 禪床에 올라…"

20세기 불교 그 현장 그 인물 〈1〉

한암스님 좌탈입망 〈촬영 김현기스님〉

20세기가 저물어간다. 민족사의 질곡만큼이나 부침을 거듭했던 한국불교계의 지난 20세기, 교계의 화제가 되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그때 그 현장 그 인물을 다시 조명한다. 현대불교신문 창간5주년에 맞춰 20세기 불교의 한 단면을 점검하는 이 기획은 연재되면서 당시 가려진 이야기 다 못 드러낸 일화들을 짚어 오늘의 교훈으로 삼는다. 〈편집자 주〉

6·25때 텅빈 오대산 지키다 열반
정훈장교 현기스님 촬영 3일후 다비

죽음이 범부중생에게 가장 큰 공포와 괴로움이 되는 만큼 고승들의 마지막의 순간이 어떠했는가는 불자들의 큰 관심사가 되어왔다.

거꾸로 서서 입적했다는 당나라 등은봉선사, 관계 선사는 몸을 태울 화장나무를 미리 준비해 그 위에 서서 열반했고, 보조국사는 제자들과의 백문백답을 마친 다음 법상에서 내려와 마루에 앉아 그대로 입적했다고 한다. 구전이 아니라 실제 사진으로 전해오는 한암스님의 좌탈입망 모습은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6.25전쟁중 오대산 100리 안쪽으로는 국군 작전지역으로 월정사와 상원사를 포함한 모든 사암과 민가들이 텅텅 비었고, 사람들은 모두 2개월여전 피난을 떠났다.

오직 군작전상 소각하기로 되었던 상원사를 단신으로 지켜낸 한암스님만이 상원사에 2명의 사미와 공양주보살이 머물러 있을 뿐이다. 1951년 3월22일 가벼운 병에 걸린 한암스님은 시자에게 물었다.

"오늘이 음력으로 2월14일이지?" 라고 말한 후 가사와 장삼을 입고 청량원 선상(禪床)위에 단정히 앉아서 열반에 들었다. 근세 고승으로 유일하게 좌탈입망(坐脫立亡)한 것이다.

이 순간 강릉8사단 정훈부대 장교이자 육군소위로 복무중인 당시 35세의 김현기스님(현재 83세·원효정사 주지)이 지프로 사진사와 함께 도착됐다. 그리고는 사진사에게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촬영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빛이 적어 사진을 찍을 수 없자 스님을 열반자세 그대로 안아 안방으로 모셨다. 너무나 가벼웠다. 그리고는 대청문을 활짝 열었다. 빛도 빛이지만, 도인의 열반상을 천지만물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해서 20세기 유일하게 좌탈입망의 순간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 남게된 것이다.

"당시 직무상 늘 사진사를 대동하고 보도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지프를 타고 상원사 아래를 지나는데 상원사 사미승이 황망히 어디론가 가는겁니다. 그래 물었더니 한암스님께서 편찮으셔서 약을 구하러 간다는데 말이 됩니까. 전쟁중인데 불가능하지요. 그저 가만히 있을수 없으니 무작정 나선거라 싶었고 나는 그길로 상원사로 갔던 거지요."

현재 경산 자인면 우체국 뒤 원효정사에서 주석하고 있는 김현기스님은 만공·용성스님과 함께 당대 최고의 선지식으로 추앙받고 있던 한암스님의 마지막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을 복(福)이라고 표현했다.

"한암스님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참선삼매에 든채 계셨던 것입니다. 좌탈입망이란 것이 참아서 되고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반 3일 뒤 군인 30여명을 차출해 인근 소나무를 베고 지프에서 기름을 빼 그 불로 한암스님을 다비했다. 그리고 49재때는 열반모습을 사진으로 모셨다고 한다.

19세에 서호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직지사 선방에서 한철 안거 끝에 조실 금포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현기스님은 교학을 배우고자 수덕사로 갔고, 거기서 1년동안 월산스님(前 불국사조실)과 채공 공양주를 살았고 다시 만공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는 마곡사로 시봉으로 따라갔다.

마곡사 강원에서 고송스님(현 파계사 조실)과 함께 수학했고, 이어 안변 석왕사에서 대교를 마쳤다. 그후 일본으로 건너가 3년만에 임제학원 전문학교를 졸업했다. 귀국과 함께 대각사와 선학원에서 머물며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육사교수를 역임했고, 33년간 경북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교육계에 헌신했다.

원효정사에는 현기스님이 체험한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이 비석과 주련에 글귀로 새겨져 빛을 발하고 있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당시 강릉 8사단 정훈부대 장교였던 김현기스님은 한암스님의 좌탈입망장면을 사진사에게 촬영토록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다. 현기스님이 한암스님 열반사진을 보이며 당시를 설명하고 있다.

원주불청 18년째 교양대 운영

지역불심 일구는 '청보리'

졸업생 7천여명 신행단체 이끌어

부처님의 진리를 잘 받들어 신행·전법·포교의 첨병 역할을 다하고 있는 청보리들이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원주불교청년회(회장 원건상·오복떡집 대표). 오는 11월 창립 20주년을 맞는 원주불교청년회는 불교의 사각지대인 원주지역에 보리의 싹을 틔우기 위해 18년 전부터 매년 단기 불교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친목, 신행, 봉사 등의 활동을 주로 하는 여느 청년회와는 달리 원주불교청년회는 지역불교활성화란 대의를 표방하면서 묵묵히 황소걸음을 걸어 왔다. 이같은 청보리들의 원력이 새 천년을 앞두고 하나씩 열매를 맺고 있다.

불교교양대학을 이수한 불자들이 원주지역 불교를 이끌고 있는 주도세력으로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교양대학을 이수한 불자들이 성불원 성불회, 시청법우회, 여성불교회, 한국통신불자회, 정각회 등 8곳의 신행단체를 창립한 것은 물론 원주지역 사찰 및 직장직능 신행단체를 이끄는 선봉자로서 모범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불교교양대학을 이수한 불자들이 청년에서부터 노보살까지 7천여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불교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괄목할 만하다.

원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원주불교청년회 불교교양대학은 지역 불교활성화 및 신행활동을 위한 모태로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원주불교청년회는 11일부터 15일까지 법웅사 대적광전에서 제18기 불교교양대학을 운영한다. 이번 불교교양대학에서는 성전암 철웅스님의 '무한성의 구현', 자광스님의 '하나인 세계', 현진스님의 '깨달음의 길', 도신스님의 '찬불가를 통한 포교의 방향제시', 최봉수교수의 '근본불교에서 본 불교의 정체성' 등의 강의가 저녁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진행된다.

원주불교청년회 원건상회장은 "불교교양대학을 통하여 청·장년층 포교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기존 불자님 및 회원들의 발심교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며 "지역불교활성화와 높은 불교지식을 체계적으로 높여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원주불교교양대학에 수학하는 불자들이 법웅사 대적광전에서 학업에 정진하는 모습.



학교에 나툰 진신사리탑

능인중고 제막식
불사리 15과 봉안

조계종립 대구 능인중고등학교은 9월 28일 오전10시 본관앞 뜰에서 부처님진신사리 3층석탑〈사진〉제막식을 봉행했다.

이 사리탑은 지난 8월과 9월 각각 정년퇴임한 이규곤교장과 전천호행정실장이 3년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올해 능인학원 개교60주년을 맞아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탑은 기단부를 포함, 총7.42m높이의 3층석탑으로 탑신에는 능인학원이사장 근일스님이 인도수상으로부터 기증받은 불사리15과가 가로5cm 세로4cm 높이5cm의 은으로 된 사리함에 넣어져 봉안됐다. 근일스님은 "건학이념을 좇아 건립한 진신사리 3층석탑을 볼때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길을 생각하자"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동양최대 아미타불 건립

총화종 홍천 연화사에…높이 36m

홍천 연화사(주지 화담)는 1일 동양 최대 아미타대불(높이 36m) 점안봉불식〈사진〉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화종 종정 동광스님, 총무원장 남정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했다. 이번에 봉안된 아미타대불의 몸안은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은중경과 극락도 지옥도를 친견할 수 있으며 1층에는 열두 부처님이 탱화로 조성돼 있다. 이날 주지 화담스님은 인사말에서 "날로 효를 잃어가는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청소년들에게 효사상과 부처님법을 가르치기 위해 이곳을 청소년 수련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부산 양정청소년회관 청소년 소극장 개설

사단법인 불국토가 운영하는 양정청소년회관(관장 범산)에 청소년 전용 영상관 양정청소년소극장이 개장돼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개장한 양정청소년소극장은 청소년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지원 2억원을 투입하여 회관내 7층 전층을 활용해 꾸며졌다. 168평 규모에 230석의 시사실인 시네마홀, 영상편집실, 녹음실, 분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양정청소년회관 소극장은 영상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테마영화 상영회, 영상창작캠프등 다양한 행사들로 청소년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서는 포교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봉인사 자광전 개원 법정스님 초청 법문

남양주 봉인사(주지 적경)는 24일 오전 10시 법정스님 초청 자광전 개원법회를 개최한다. 자광전은 3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3층규모 총건평 250평이다. 문의 0346) 574~5585.

사명대사 389주기 추모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는 5일 초읍 어린이대공원 사명대사 동상 앞에서 호국정신 계승 사명대사 열반 389주기 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스님, 안상영 부산시장 등 4백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육법공양, 차공양, 영상재와 사명대사 행장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세계유일의 불교종합 월간지
불교저널 10월호 발간

대담 재가불교와 신도교육
목정배 VS 김경기

긴급진단 나쁜 연기를 조작하는 유전자 조작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현재 홍광원
유전자 조작 식품 와다나베 유우지

스승예찬 우리 스님, 광덕 스님 혜담
선의 가정들 조주의 평상심 박경훈
시사칼럼 이런 사람이 보살이다 윤청광
참선여행기 송광암 3박 4일 여름수련회 김창현
만화 선의 사상 채지충

철저분석 ch 32 침몰하는 불교텔레비전
불교텔레비전(btn)이 위태롭다. 그러나 누구도 뾰족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발만 구르고 있다. btn의 설립배경과 운영과정, 현재 드러난 문제점과 향후의 발전방향을 철저하게 파헤쳐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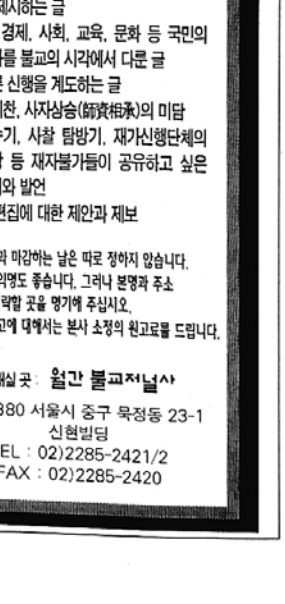
해외불교특집
러시아 불교의 어제와 오늘
속보 태국 불교 믿음과 돈 모으기 사이에서 줄리앙 기어링
속보 "나는 결코 법복을 벗지 않겠다" 담마차요 인터뷰
신진교단에 정부철퇴
일본불교 / 일련정종에 부는 검은 바람 나카다 미쯔히코

제언 미래의 한국불교에 바란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 균형 이뤄야 윤원철
사부대중의 불교로 거듭나자 공종원

세계문화 유산속의 불교유적
불가사의한 석조건축, 자바의 보로부두르 불교사원 배기동

군포교 21세기 군포교의 나아갈 방향 최명준

선사연구 금오 대선사의 생애와 가르침



신국판 / 240쪽 / 가격 7,000원
(1년 정기구독료 70,000원)

현대 불교사 감상 석굴암 대불 유치환 / 종 신석초 / 궁거워 최남선
연극 만석승 놀이 김홍우 영화 리틀 붓다 문학산 뮤지컬 팝만대장경 목호찬
건강과 명상 명상이 명약이다 데니스 코데이
이 가을을 풍성하게 하는 책 나는 아직도 스님이 되고 싶다 / 종경 / 오디세이 3000 / 달라이 라마, 예수를 말하다
화제의 책 우르의 예수 단편소설 무탕트의 밤 이정범 / 소생 법기

구독신청 전화 (02)2285-2421~2 팩스 (02)2285-2420

투고를 기다립니다

월간 「불교저널」은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불교종합잡지입니다. 독자와 함께 만드는 열린 편집을 위하여 건전한 비평정신을 바탕으로 한 각종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시, 소설, 수필, 동화 등 불교문예작품
2. 불교시사논평, 한국불교의 현안을 비롯해서 21세기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글
3.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국민의 관심사를 불교의 시각에서 다룬 글
4. 올바른 신행을 제도하는 글
5. 스승예찬, 사자상승(師資相承)의 미담
6. 신행수기, 사찰 탐방기, 재가신행단체의 활동상 등 재자불가들이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와 발언
7. 기타 편집에 대한 제안과 제보

•글의 분량과 마감하는 날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필명이나 익명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명과 주소 전화 등 연락할 곳을 명기해 주십시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본사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 월간 불교저널사
100-380 서울시 중구 묵정동 23-1 신현빌딩
TEL : 02)2285-2421/2
FAX : 02)2285-2420

"5년간 삶의 길라잡이"

창간독자 인터뷰 **이수환** 월곡중교장

"신문 펼치면 마음 다스리는 지혜 가득"
일주일내내 읽고 또 읽고…영구구독

"아내가 병으로 누워있는 등 상황이 몹시 안 좋을때 마침 창간된 현대불교신문을 만났습니다. 지면 곳곳을 채우고 있는 감로수와 같은 부처님말씀에 감동을 받아 그때부터 제 삶의 길라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나 괴로울 때 신문을 펼쳐들고 그안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94년 10월15일 창간호 아니 그 이전 창간준비호부터 5년째 한주도 빠짐없이 '현대불교'를 보고 있는 창간독자 이수환(52·월곡중학교 교장)거사는 신문을 구독하고는 말에 들어 아예 영구독자가 돼버렸다.

이 교장은 "사시(社是)로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내건 것이 참 좋았습니다. 현대불교가 나오기 전에도 불교계 신문을 읽었지만 종단 정치와 스님들의 활동에 비중을 많이 두었던 것같아요. '현대불교'는 신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풍부해 우리같은 재가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신행을 도와주는 등 처음부터 돋보였습니다"고 5년을 회고했다. 이교장이 특별히 관심깊게 보는 난은 '수행한담', '불심시심', '과학과 불교' 등.

남들은 월요병을 말하지만 이교장은 신문이 도착하는 월요일이면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하여 가슴이 설렌다. 신문이 도착하면 일주일 내내 읽을 거리가 된다. 큰스님들의 법문은 물론이고 좋은 기사는 다시 읽을 수 있게 밑부분에 줄을 그어가며 세심히 읽는다. 감명깊은 기사를 오려 모으기도 하고 연재물은 연재물대로 종류별로 나누고, 시의성 기사는 기사대로 스크랩해 만든 스크랩북만도 13권.

매주 신문에서 얻는 유익한 기사를 메모지에 적어 들고 다니면서 끊임없는 되새김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자료로 쓰기도 하고, 친구들이나 자식들에게 전해주기도 한다.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교육관을 갖게 되니까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사람됨을 가르쳐 주는 스승이 되고자 하고 현대불교신문은 이런 교육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교장은 바쁜 업무 틈틈이 현대불교신문에 안내된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 구산선문 참선기행에도 따라가 참선도 해보고, 생명나눔캠페인에도 동참하며 신심을 북돋고 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신문이 불교계는 물론 세상을 읽는 정겨운 창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이수환 교장은 창간정신이 10년, 20년뒤에도 고스란히 지켜지고 언제나 독자들과 함께 하는 진정한 부처님법 전달자가 되어주길 당부하며 창간 5주년을 축하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매주 월요일에 도착하는 '현대불교'를 일주일동안 읽고 또 읽는 이수환교장. '현대불교'기사를 모은 스크랩북이 5년동안 13권이 넘는다.

뉴스 & 뉴스

김포 장애인보호센터 수탁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고산)은 지난달 말 경기 김포시에서 위탁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수탁하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18세 이하의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주간보호와 더불어 재활훈련, 사회적 응훈련, 놀이 및 교육활동, 취미생활, 사회통합훈련 등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한명우기자

관음종 창종 35주년 법회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4일 총본산 묘각사에서 창종주 태허스님의 탄신 95주년 다례재와 관음종 창종 3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다례재와 기념법회에는 관음종 종정 스님과 홍파총무원장 등 종단 스님들과 신도 등 5백여명이 동참했다.

이경숙 기자

조동종 새종정 지명스님



조동종 총무원(원장 학봉)은 1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종단간부스님 47명이 동참한 가운데 총정추대위원회을 구성하고 제3세 종정에 윤지명스님(청련사 주지·사진)을 추대했다. 또한 이날 승정원장에 한춘담스님(마하사 주지), 승정원 부원장에 최원봉·장수한 스님, 호법원장에 최호산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한편 조동종은 8월 14일 입적한 전 종정 운파스님의 49재를 1일 등촌동 용천사에서 종도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했다.

이경숙 기자

조계사 보살계 수계산림

조계사(주지 지홍)는 19~21일까지 3일간 경내에서 보살계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한다. 19일에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참여하는 '온가족 1080배 철야정진법회'가 대웅전에서 열리며, 20일에 오후에는 조계사에서 탑골공원까지 거리를 청소하는 '보살 실천 대회'를 갖는다. 또 19~21일 3일동안 점심공양시간에는 108명의 불자들이 참여하는 '108명 발우공양'이 설법전에서 진행된다.

한명우 기자

심인당 2곳서 경노잔치

진각종 서울 밀교심인당(주교 회정)과 대구 시경심인당(주교 지광)은 9월 30일과 1일 각각 경노잔치를 베풀어 소외되고 외로운 노인들을 위로 격려하고 무료건강검진도 펼쳤다.

이경숙 기자



◇2003년 개원될 동국대 일산 불교종합병원 조감도.

동국대 불교종합병원 착공

14일 고양시 식사동에…2003년 초파일 개원예정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14일 오후2시 고양시 식사동 병원 건립부지에서 의과대·한의과대 부속 불교종합병원 착공식 및 축하공연을 가진다.

LG건설이 시공할 병원은 총 3만여평 부지에 건평 2만7천여평의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로 2002년 10월 건물 완공에 이어 2003년 부처님오신날 개원한다. 병상은 한방과 양방이 2:8로 적절히 배분되며 △성인병과 노인병 전문 클리닉 △진료시스템과 연계된 종합건강센터 운영 △환자중심의 의료 복지시설 및 진료체제를 갖춘 국제의학전산망 개통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국대는 병원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자비의 벽돌 한장쌓기 운동', 대각전에 원불을 봉안하는 '만불봉안조성 사업'과 후원의 밤 행사, 동국사랑저금통갖기운동 등을 펼쳐 410억여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했다.

최근에는 ARS 7000-119(1통화에 5천원)를 개설, 1달만에 1천여통의 전화가 걸려오는 성과를 거뒀다. 병원건립 기금 조성사업에 동참자를 위해 △정기건강진단서비스 실시 △진료비 감면 △주치의 배정 △입원 우선권 △영안실 이용 혜택 △49재 봉행 등의 각종 예우방안도 마련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직지사앞 상가신축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김천 직지사(주지 녹원)는 일주문앞 상가신축과 관련, 9월20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맞서 대지 소유주이자 건축주인 곽모씨도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김천지원에 제기함으로써 양자간의 공방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직지사는 소장에서 "산문앞 건축허가는 76년 정부가 시행한 '사찰주변환경 정비사업'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1천6백년된 고찰인 직지사의 문화적 가치는 공익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곽씨는 98년10월 943평의 소유부지중 300평에 대해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김천시는 건축법 제8조4항에 의거 산문앞 음식점건립이 사찰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해오다 이 법안이 지난2월 폐지되자 7월1일 허가를 내주었다.

직지사는 11일과 28일 각각 직지사 경내에서 열릴 예정인 조계종 구족계수계산림법회와 제7회 보살계 수계대법회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윤호 기자

김제-구미시청 불자회

동서화합 교류

경북 구미시청과 전북 김제시청 공무원불자들이 정기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동서화합에 앞장서고 있다. 김제시청 공무원불자회인 연우회(회장 배경춘)는 구미시청 불자회(회장 신영근) 초청으로 2일과 3일 이틀동안 구미시를 방문해 춘향전을 관람한뒤 3일 금오산 법성사에서 동서화합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연우회는 이어 금오산등반을 한 뒤 신라최초의 사찰인 도리사와 신라불교 발상지인 도개면 모례정을 순례했다. 구미시청불자회도 연우회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9일과 10일 김제시를 방문해 금산사에서 합동법회를 봉행한 뒤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이윤호 기자

상주에 승려노후시설 세운다

예천 연꽃마을 빠르면 내년착공

경북 상주에 스님들을 위한 대규모 노후복지시설이 건립된다. 현재 스님들을 위한 노후복지시설은 사실상 없는 형편이어서 이번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승려노후복지발전에 새로운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법인 예천 연꽃마을(이사장 정안)은 최근 경북도에 승려노후복지시설 보림원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 등을 포함한 시설신축인가서를 접수시키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예천 연꽃마을은 이를 위해 상주에서 40분 거리의 하남면 평온 2리에 이미 5만여평의 대지를 확보해 놓았으며, 경북도의 신축인가와 국고지원 예산편성 등은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 또는 2001년 상반기에 공사에 착공할 방침이다.

예천 연꽃마을은 스님 1백50여명과 일반인 등 모두 2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스님들은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안스님은 "84년 예천 연꽃마을을 설립해 불교복지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줄곧 스님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보림원이 건립되면 승려복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천태종 복지재단 정부인가

괴산에 대규모 복지타운 건립계획

대한불교 천태종은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대한불교 천태종 복지재단(이사장 운덕스님)'을 인가받았다.

사무실을 서울 관문사에 둔 천태종 복지재단은 향후 △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수탁, 운영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회복지연구, 출판, 교육 상담 및 후원사업 △ 장학사업 △국제구호 및 협력사업 등 복지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특히 천태종은 재단 설립을 계기로 충북 괴산군 증평에 확보된 2만5천평 대지에 대규모 복지타운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천태종 복지재단 이사장 운덕스님은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고 노령인구가 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복지사업이야말로 꼭 필요한 일"이라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유마선원 토요수련회

불교수행의 정수를 알고 싶으십니까?

→ 여기 **금강경 공관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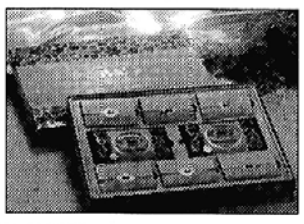
· 수행지도 : 유마선원장 적연 **이제열** 법사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 교 통 편 : 유마선원 전철 - 3호선 화정역 1번출구 덕양우체국 앞
버스 - 신촌 921(좌), 영등포82(좌), 서울역 907(좌)

· 문 의 : 0344-967-9122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얼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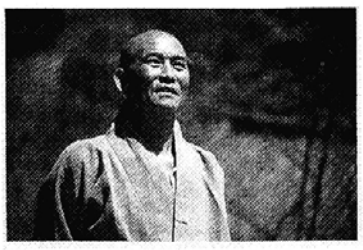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 檀화 花'





"웨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향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체험사례 저희 금단화를 복용하여 주신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드셨던 분들의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이 많았지만 지면상 우선 효과를 본 두 분만 먼저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 남편은 10년 이상된 만성 B형 간염 보균자였는데 2월부터 금단화를 복용한 후 이번 8월 초에 종합검사를 해 보았더니 간염균이 아예 없어졌다고 합니다.
의사는 지금은 회복기에 있다고 하였는데 저희 가족은 신기하여 믿을 수가 없을정도였습니다. 늘 남편의 피곤해 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는데 이제 건강한 모습을 보니 그저 기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파구 잠실동 승현엄마)

저희 남편은 혈압이 너무 높아 7년째 병원에 다니며 체크를 받고 약을 늘 복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금단화를 복용한 후 4개월만에 혈압이 정상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이후 이제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선생님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저도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늘 신경통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통증을 전혀 느낄 수 없고 몸 상태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제 금단화는 저희 부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삼동 김인숙)

◐ 상담문의 ☎ (02) 3437-8282 ◑

동양 최대규모의 대웅전, 세계를 향한 포교의 전당으로 도약하는

제주 약천사 를 찾아서 …

"동양 최대규모의 대웅전, 세계를 향한 포교의 전당으로 도약하는 약천사" 를 찾아서 서귀포시 대포동 소재 도약샘(道藥泉)의 원류를 아름에 안고 드넓은 잔디밭 너머 검푸른 빛의 태평양 자락을 거머쥔채 대웅전이 하늘을 떠받치듯 우뚝 솟아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아래 조용하면서도 단정하게 정돈된 나한전이 있고 수백 미터의 지하에서 솟아 나오는 도약샘의 용출수는 유유히 흐르다 단이 져 있는 곳에 이르르면 무심히 삼단폭포로 변하여 시원한 물기둥이 된다. 한곳으로 모여들어 수로 따라 흐르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오고 감이 마치 인간의 삶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한다.

불사 기간동안 풍문에 떠도는 소문도 많았는데 그 진위도 파악할겸 해서 약천사를 찾았다. 필자가 약천사를 방문한 날이 때마침 신도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탐라 다우회의 다도사범과정 수료식이 있는 날이었다. 은은한 다향에 취해 현실을 잊고 잠시나마 자신을 반조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 늘 마시는 차와 향임에도 아날 따라 그 맛이 사뭇 달랐다. 왜 그랬을까? 성공스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한국 불교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 하여 그렇지 않았나 싶다.

다음은 소문의 진위에 대해 주지스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사실에 대해 가감없이 정리해 보았다.

- 이처럼 사찰규모가 큰 사찰에서 주지 소임을 맡아 보시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대웅전 규모가 동양최대라 할 수 있고 본존불인 비로자나 목불상 역시 문화재급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어떠한 동기로 이러한 대작 불사를 하게 되었는지요.

성공스님 : 약천사를 창건하신 혜인스님께서는 저에게는 은사스님이시기도 하지만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무언가 당신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큰 뜻을 품고 계신분이지요.

스님께서는 이미 제주도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선견을 가지시고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포교할 수 있는 사찰이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천사 창건을 위한 원력을 세우시고 1987년 초에 대원의 대웅전 기공식을 가졌지요. 그후 10여년에 걸친 불사 끝에 지난 96년 음력9월에 불사에 동참하신 전국의 불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대웅전 낙성법회를 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작불사를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크셨을텐데요.

성공스님 : 물론입니다. 그러나 스님들이 경제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스님께서 당신의 세우신 원력을 성취하시기 위해 성심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무슨일을 하든지 일심으로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이지요.이는 오로지 신심있는 전국의 불자여러분과 재일동포 및 해외동포 불자 여러분의 정성과 기도 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0 여년이 넘는 불사기간 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수 있습니다. 낙성식을 보게된 소감은 어떠하셨습니까?

성공스님 : 한마디로 불자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3만여평이 넘는 도량내에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 하셨으니까요. 아마도 이 시설은 향후 1세기 이상 그보다도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 희망을 심어주며 궁극적으로 모든 불자들이 깨달음의 길로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간에 꾸준히 나돌고 있는 약천사 부도설, 타 종단으로 넘어갔다는 설, 부채에 눌려 혜인스님께서 해외에 도피 중이라는 설 등등 여러 가지 소문들이 무성한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성공스님 : 허허 허.... 그런걸 보고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아 그런 소문 좀 있기로서니 뭐 대수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어음이나 당좌를 사용하지 않으니 부도날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은사스님께서는 조계종 승려이신데 조계종승려가 조계종을 떠나서 어디 가서 설것이며 국내외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정성으로 이루어진 불사인데 누가 어느 종단으로 넘긴단 말입니까?

또 부채에 눌린다니 무엇이 눌린다는 말입니까?

혜인스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국제 포교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 도피는 무슨 도피입니까? 그 구업들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불사 기간동안 수행자들이 세속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일부 인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다가 뜻대로 안되자 좋지 않은 소문들을 의도적으로 내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약천사는 아무 일 없이 건재해 있는데 헛소문 생겨나 공연히 선한 불자들에게 의구심만 심어주고 있어요. 보시다 시피 은사스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열심히 포교활동 하며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허허허.....

-그렇군요. 종단등록이 상당히 늦게 되었는데 그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성공스님 : 예, 그 문제로 종단으로부터 오래 전부터 권고를 받아 왔는데 약천사의 입장을 모르고 공연한 오해들이 있었나 봅니다. 약천사의 법당 낙성식은 96년에 했으나 행정행위인 건축물 사용허가는 98년 초에야 났지요. 그때 바로 서류등을 갖추어 종단 등록신청을 냈는데 그게 아마 지난해 5월경이 될 거예요. 그런데 종단사태가 발생하여 종단 업무가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일년여가 지난 후 사태가 안정이 되고 해서 서둘러 등록을 마치게 되었지요. 불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도량인데 종단에 등록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부적인 사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신 분들이 일부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모두다 종단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님께서 조계종단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시며 단타깝다는 표정으로 필자를 바라 보셨다.)



-공연한 오해로 인해 발생된 여러 가지 유언비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셨겠습니다.

성공스님 : 마음이 불편할 것까지는 없고 중생심으로 판단하고 오해하는 것이 안타까웠지요. 어차피 후세 사람들에게 다 남기고 갈 것들인데 무슨 욕심이 있고 집착이 있겠습니까? 우리 불자들은 이런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혜인스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불사를 마무리 하셨으면 사찰운영을 하면서 권히 지내셔도 좋을텐데 그렇지 않은 것은 무소유의 실천인가요?

성공스님 : 소유다 무소유다 구분 지을 필요가 없지요. 한평생 산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인데 무엇이 소유이고 무엇이 무소유이겠습니까? 현재에 사람의 돈으로 살고 있으니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신과 도든 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몸 하나 가지면 그게 소유의 전부라 할 수 있지요. 돈 명예 등 현상적인 것은 모두다 허망한 것이라고 금강경에서도 잘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세속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무소유요 실천이지요.

-혜인 스님께서 외국에 오래 머물러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일부 불자들이 사찰운영과 관련된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스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십니까?

성공스님 : 각자의 판단은 자기 기준으로 하니까요. 사실이나 아니냐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스님께서 국제포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요. 무슨 일이든지 인연이 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신상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하여 하는일이 아닌 이상 이러 저러한 여론을 의식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걸 의식 하다보면 정작 할 일을 다 못할텐데 그렇게 낭비해도 좋을만큼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지난해 11월 약천사 주지 소임을 맡고 취임한 이래 어린이 법회 운영 및 유치원 설립 등 어린이 포교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특별한 소신이라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공스님 : 어린이를 대상으로 포교를 한다는 것은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법회는 모든 불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야 할 과제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유년시절의 잠재된 경험이 한국불교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것입니다. 또한 유치원설립은 사회복지차원에서도 종교단체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설립을 계획하게 되었고 준비도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불교의 발전을 바란다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포교활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어찌면 이 일이 기성 불자들의 당연한 책임일 것입니다.

-예,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린이 포교는 필수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끝으로 향후 약천사의 불사 계획을 포함한 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지요.

성공스님 : 불사야 생활속에서 항상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오는 음력 9월15일에 나한전 봉불식을 마치고난 후에도 오백나한을 모시는 불사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요 8만불을 모시는 불사도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사들은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것이고요 앞으로 약천사를 흥융한 기도 도량이 되게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나아가 한국 불교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대담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님은 오는 음력 9월 15일 법당 낙성 3주년 기념 및 나한전 봉불식 법회가 종단 등록 후 처음 갖는 법회라 여늬 법회보다도 그 의미가 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하직인사에 합장하셨다.

필자는 약천사의 취재를 마치고 떠나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신선한 청량감이 가슴에 와 닿았다. 한라산의 정기가 약천사에 이르러 도약샘(道藥泉)에서 분출되고 혜인 스님의 원력과 성공스님의 의욕 넘치는 열정이 극락도량의 청정한 기운과 함께 잘 어우러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마 "道藥泉"이 있어 사호가 藥泉寺 인가보다. 앞으로도 약천사가 끊임없이 발전하여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데 더욱더 정진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어 돌아오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만약 약천사를 방문해보지 못한 불자들이 있다면 단 하룻밤만이라도 묵으면서 정진기도를 해보시라 도약샘(道藥泉)의 정기로 개달음을 얻으리라.

마하 반야바라밀

대담 : 김보균
Email-hoyhoun@komet.net

100만배 기도일화 유명



회주 혜인스님

약천사의 오늘을 있게한 회주 혜인스님은 56년 경북 동화사에서 일타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혜인사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대구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수선안거 이래 10안거를 성만하고 70년대 제주 양진사 선원에서 선원장으로 제방 납자들을 가르치는 등 수행에 몰두해 왔다.

스님은 71년 혜인사에서 무릎이 터지고 쓰러지면서 100만배 기도를 이뤄내 신도들의 환희심을 불러일으킨 일화로 유명하다.

"큰스님의 뜻에 부합하는 전국의 불자들의 정성과 기도원력이 동력이 되었습니다."



주지 성공스님

저의 은사스님이신 약천사를 창건하신 혜인 큰스님께서는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무언가 큰 일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가 제주도가 국제 자유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에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까지도 포교를 한다는 일념으로 약천사 창건 원력을 세웠습니다.

동양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법당에서 보듯이 엄청난 대작불사를 성취하기까지는 우선 혜인 큰스님의 원력이 가장 큰 힘이 되었으며 큰스님의 뜻에 부합하는 전국의 불자들과 해외동포 불자들의 정성과 기도원력이 동력이 되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룩한 약천사는 이제 중생들의고통을 덜어주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부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법당낙성 3주년 기념식 및 종단 등록기념법회 (및 나한전 봉불식)

모시는 글

귀의 삼보하옵고

본사 회주스님이신 **혜인 큰스님**께서 이땅에 부처님의 성전을 건립코자 원력을 세우시고 불사를 시작한지 10여년이 넘는 동안 국내외의 신심깊은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도원력에 힘입어 지난 96년 9월 동양 최대의 법당낙성 회향법회를 가진 뒤 만 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큰스님께서는 불자 여러분의 온갖 정성으로 이룩한 성전을 종단에 헌납코자 98년 5월경 조계종단에 등록신청을 출원하였으나 종단사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외적 요인 등으로 인해 1년여가 넘도록 종단 등록을 못하다가 종단사태가 정리된 최근에야 종단등록 신청이 수리되어 지난 5월 종단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법당낙성 3주년 기념식 및 나한전 봉불식과 어린이를 위한 공연행사**를 봉행 하오니 전국의 불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동참하시어 제주 약천사에서 성불인연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마하 반야바라밀

불기 2543년 10월 일

일 정

10월 22일 오후 6시

6:00 저녁예불
7~11시 법문
①철웅 큰스님
②혜국 큰스님
보살계수계: 혜인큰스님

11시 영가천도재
<오전> 4:00 새벽예불
6:00 아침공양
8~9시 나한전 봉불식

· 낙성 3주년 기념식 ·
10월 23일 오전 9시

기타공연

- 동국실내 국악단 연주
- 조경자씨 판소리(심청가 눈뜨는 대목)
- 김하정씨 한량무, 승무
- 약천사 어린이 사물놀이 공연
- 약천사 탐라다도회 육법공양
- 박경숙씨 "신칼대신 무"

불사 동참안내

- 영가보살계 1위 - 오천원
- 보살계수계 - 일만원
- 영가등접수 - 일만원

송금방법

31-01-058513(제주은행)
예금주 : 약천사

댄스그룹 "신화"가 약천사에 옵니다.

어린이를 위한 초청공연

10월 24일 댄스그룹 '신화'

10시 30분 ▸ 공연
무료 ▸ 신화 소장품 선물 추첨
▸ 선물추첨(CD, TAPE) 100명
▸ 기념촬영(추첨)
▸ 참석자 브로마이드 증정(30,000명)

10월 31일 개그맨 강호동
11월 7일 개그맨 김경식
11월 14일 개그맨 박수림

★ 시간 - 매주 일요일 10시 30분

■ **협력업체** : 협력업체를 이용하시면 값싸고 편하게 제주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 서울 선재여행사 02-582-6647~8 · 반야여행사 02-730-0020
- 부산 우진항공여행사 051-635-6333
- 대구 무궁화관광 053-423-5501~5
- 제주 대자연교통(교통편 문의처) 080-996-9999, 011-699-3348

대한불교 조계종 **약천사** 회주 慧印 주지 性空 합장 · 전화 064)738-5000 · 팩스 738-5022



뭇 생령의 눈동자 만나 화엄십지 꿈꾸노니

현대불교 창간5주년 기념의 노래

고은



다섯 눈 푸르리라

여기 다섯눈 노래 있어라 5안송 있어라

어느새라고 놀라지 말자
하루하루 지칠 줄 모르고 걸어서
때로는 숨차게 달려서
오늘 현대불교 다섯해 맞이함에
어느새라고 새삼 놀라지 말자
땀 흘렸다
눈물 흘렸다
몸 식을 겨를 없었다
오로지 만년의 지혜 펼쳐
이 세상 저문 가녘마다 다가가
함께 밤이면 호롱불 피고저
함께 낮이면 길동무 되고저
함께 춥고 눈보라치는 날이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마음속 모닥불 지펴 왔다

그리하여 으시시 추운 봄날
내 눈에 종달새 소리 내려왔다
지그시 눈감져
내몸의 눈이었다 육안이었다
함께 어둠이면
호롱불 아니어도 좋아라
어둠속 눈 감고
오손도손 정겨웠다
그러다가 소스라쳐
지난날 살았던 하늘에서
내 눈이 내려왔다
다 보였다
그때의 뒷모습 보였다
천안이었다

함께 슬기롭고 어리석었다.
함께 서로 번뇌의 나날이었다.
어느날 이 세상 덧없음과
나 없음과
너 없음을 보았다.
휑뎅그레 공을 보았다.
혜안이었다.

그러는 동안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갔다
다섯 해 맞아
여러 진리의 얼굴 보였다
왜 이다지 묶여있는데 자재로운가
왜 이다지 분별 차별인데 평등인가
돌아갈 곳 없이
앞 세상이 크고 멀다

현대불교 다섯해 동안
육안청정상
천안청정상
혜안청정상
법안청정상
불안청정상을 노래하여
눈마다 눈동자 살아나니
온세상 두루 빛나리

사장실이 편집실이 되고
국장실이 기자실이 되고
기자 하나하나가 회사가 되고
직원 하나하나가 임원이었다
이러구러 다섯 해동안
여러 눈 번갈아
바다의 숱한 고기들 눈동자와 만나고
산과 들 짐승의 눈동자들
무릇 뜰 끝 이슬의 눈동자들
어중이 떠중이 인간계
뭇 생령과 망령들의 눈동자와 만나
너 없이
나 없고
나 없이
너 없어라
여기 화엄상즉
여기 화엄십지 꿈꾸노니
우리 현대불교 다섯살에
고개숙여 바라노니
다섯 눈 푸르러
세상의 구석구석 날아가거라

〈시인 · 본지논설고문〉



그림 · 조향숙

"幡 더 이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많은 사찰에선
저희 회사에서 제작된 전통 의식구로 각종 행사 및
재의식이 장엄하게 치뤄지고 있습니다



인로왕번 아미타번 오방번 원앙생번

번의종류
- 인로왕번
- 아미타번
- 지장보살번
- 삼신번
- 시왕번
- 칠여래번
- 보고번
- 항마진언번
- 도명존자번
- 우독괴왕번
- 원앙생번
- 구병시식번
- 용왕(방생번)
- 영가번

사찰에 꼭 필요한

(연) 輦幡 (번)

장엄합니다 / 화려합니다 / 섬세합니다

시연(侍輦)은 각종 재(齋)를 해결고 불교의 각종행사 및 의식을 거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장엄의식 용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한데 어우러져 영혼천도 의례의식을 보다 장엄하게 장식하는 예술적 작품으로서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천도재, 49재,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각종행사

※ 전화주시면 카다로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불교전통 幡그대로를 재현하였습니다"

불보살의 위덕과 무량한 공덕을 나타내는 번(幡)은 화려한 공단과 섬세한 자수로 전통의식 번(幡)그대로를 재현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한데 어우러져 불교의 각종 행사에 꼭 필요한 장엄용품 입니다



삼신번 보고번 지장보살번 항마진언번

한국불교전통공예

서 울 서울특별시 중앙구 방우2동 515-44
전 화 (02)494-4890/1
영 남 경남 울산 광역시 남구 삼산동 1467-8
대표전화 (052)258-2813

"새천년 정신문명 이끄는 진리의 수레"

5 1994-1999 현대불교 창간 5돌

현대불교신문 창간 5주년을 맞아 불교계는 물론 종교계와 함께, 정부등에서 축하메세지를 보내왔다. 해외의 불교단체에서도 메시지를 보내와 창간 5주년을 축하했다. 각계의 지도자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 종교간의 화해와 협력, 사회 발전을 이끄는 목탁이 되어주길 당부하는 한편 더욱 정진해 신뢰와 권위를 지닌 신문으로 발전하길 기원했다. 〈편집자 주〉

중생에 감로법음 주는 포교사



탄성 조계종 원로의장

현대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변화 그리고 그 변화 속도의 빠름입니다. 그렇다보니 어떤 때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시간에 몸을 맡기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절실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불자들의 신심을 강화하고, 혼돈하는 중생들에게 감로수를 뿌려주는 법음입니다. 정진하길 기원합니다.

대중교화 · 사회정화에 큰 몫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그동안 한국 불교언론의 창달과 발전에 그 선도적 역할을 해오면서 사회정화와 대중교화에 정진해온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1세기에도 변함없이 한국불교의 발전은 물론 사회와 대중에게 희망을 주고 안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비의 포교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 가리는 정론지 기대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다가올 21세기의 불국정토 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느 한 종단이나 한 분야에 편향되지 않는 열린 눈으로 한국불교 전체를 조망하며, 불교의 발전을 위해 전념해온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불편부당한 가운데 옳고 그름을 가려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옳은 것은 더욱 북돋아주는 정론지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대정신 선도할 희망의 복전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

금강같이 굳은 믿음과 정진으로 창간 5주년을 이어온 '현대불교'는 우리 불교계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창간 5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초발심으로 지향해온 불교의 대중화운동에 앞장서온 것은 참으로 위대한 여래정신의 소산이라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다변화된 시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널리 전해 불교가 새로운 시대의 정신문화를 선도할 중심으로 부상하기까지 현대불교가 앞장서줄 것을 기대하며 희망의 복전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사바서 피안으로 가는 길잡이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현대불교신문을 펴면 오늘의 한국불교를 볼 수 있다. 공평하고 정확한 불교사회의 언론을 읽을 수 있다. 생동하는 불교계 소식과 보살행원의 선지식을 만날 수 있다. 5년여의 짧은 시간에 한국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세계화의 초석을 놓았다. 마음공부로 현대사회의 안목이 되고 차안의 사바에서 피안의 정토로 건너는 신문이 되기 바란다.

기쁘게 권하는 자랑스런 신문



광우 전국 비구니회장

현대불교신문, 법의 향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권할 수 있는 신문이라고 자부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의 지난 5년은 우리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심깊은 현장을 글로 옮겨 불교를 신행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불교에 현대불교신문이 있음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불자들에게 사랑받는 신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중공의 터전 불교발전 기여



서돈각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5년동안 모든 중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신행에 보탬이되는 수승한 가르침을 펴기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앞두고 현대불교신문은 불교를 위한 공의의 장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기를 당부합니다. 현대불교신문만의 고유한 색깔을 바탕으로 다시 창간의 정신으로 돌아가 더욱 좋은 신문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삶의 가치 일깨우는 목탁 축원



정진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현대불교신문 창간 5주년을 맞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만능주의 사조에 휘말려 영성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현대불교신문이 불자들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사회의 목탁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간 화해 · 협력 이끌 안내자



김동완 한국기독교교회협 총무

종교는 희망을 위해 있습니다. 일치와 화합의 차원에서 통일, 인권, 생태계 회복 등은 종교인이 앞장서 구현해야 할 가치입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정신은 궁극적인 선입니다.현대불교신문이 종교간의 화해와 협력을 드높이는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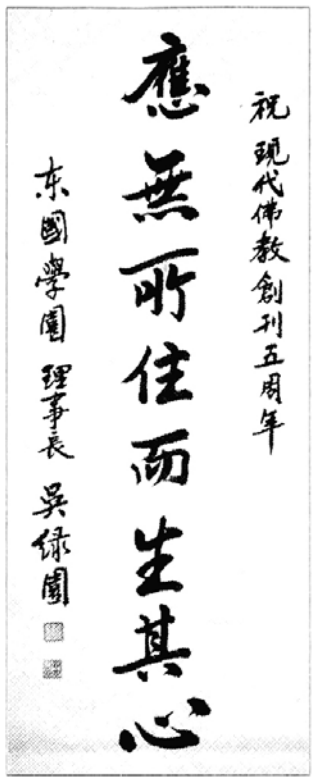
부처님법으로 화합의 장 펴길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지난 94년 10월 15일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라는 큰 뜻으로 창간한 이래 현대불교신문은 부처님의 정법을 이 땅에 널리 펴는데 크게 기여하여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갈등을 극복하여 국민화합을 이루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현대불교신문이 불교계의 힘을 모으고 지혜를 결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녹원스님 축하 휘호

◇금강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으로 "응당 그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어다"라는 뜻으로 들자는 모름지기 어떤 일을 도모하는 자신의 마음에 생색을 내려는 마음을 갖지말고 청정하게 자신을 깨끗이 비운 심경으로 남을 위해서 시혜(施惠)하라는 의미.

불교의 생활 · 현대 · 세계화 지속



송석구 동국대학교 총장

1600년의 전통을 지닌 한국불교를 오늘에 되살리려는 현대불교의 높은 사명감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사상의 근원으로서 한국불교는 한국인의 자존심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불교의 현주소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대에는 새옷을 입고 새롭게 태어나야 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불교신문이 표방한 한국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는 새 천년의 화두로 삼아 더욱 정진있기를 기대합니다.

불자의 알권리 충족시켜줄 신문



백창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사회의 발전의 모습은 그 사회의 언론의 자주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불교의 미래도 불교언론의 현재 모습을 보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추구하는 현대불교신문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며 불자들에게 참된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정론지로서 그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2천년대에도 등불될것 믿어



박광서 재가연대 공동대표

현대불교는 이제 나이 다섯밖에 안된 신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우리 불자들에겐 익숙해져 있고 기다려지는 신문이다. 편안하지만 느슨하지 않고, 중도적이지만 결코 무디지 않은 붓끝이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기 때문이리라. 2천년대 불교언론의 등불이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해외서 온 메시지



▲상가라시타(FWBO 회장 · 영국)=영국의 모든 불자들을 대표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불법을 전파하는 현대불교에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현대불교가 세계적으로 불법과 평화를 전파하는 대업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지지를 보냅니다.

▲츠생 왼갈(티벳망명정부 외무보좌관)=인도의 티벳망명정부는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저희 정부가 가상공간에 개설한 티벳센터와 현대불교신문의 부다피아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 양국의 불교 발전에 공헌하기를 바랍니다.

▲그램 리올(남부웨일즈불교우의회 회장 · 호주)=한국인 친구에게서 한국사회와 불교전통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불교적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현대불교가 이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페마 쵸드론(캄포선원장 · 미국)=현대불교의 창간5주년을 축하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통하여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고 21세기의 비전을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찰스 뮬러(토요가쿠엔대 교수 · 일본)=현대불교가 한국불교도뿐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을 위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잘 이해시킬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확신합니다. 5주년을 축하합니다.

▲필립 글래스(연극인 · 영국)=신행의 길잡이 및 포교

"세계로 열린 불교정론지 평화와 불법 온누리 펴길"

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현대불교의 창간 5주년 소식을 접하고 무척 기뻤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불법을 전파하는 것은 곧 대중을 항상시키고 복지를 이루며 세계를 구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현대불교의 성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프레드 울프(켐폰 호케 사원 불자 · 독일)=한국에서 불교문화가 창달하는데 이바지해 온 현대불교의 창간 5주년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대불교의 편집자와 독자 모두의 깨달음을 기원하며, 현대불교가 평화와 행복에 커다란 기여를 하리라 확신합니다.

▲다난자이 차반(위빠사나 연구소 수석연구원 · 인도)=현대불교신문의 창간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에서의 현대불교신문은 사부대중을 포교하며 세계평화와 번영을 이끌기 위한 안내자로서 성실히 노력해 왔습니다.

▲비하돌 사카야(불교학연구소 소장 · 네팔)=창간 5주년 소식을 접하니 먼저 말과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치심 영원토록 전하여 중생을 교화함에 다함없길 기대합니다.

▲마사코 에마 와타나베(일본문화교류센터 연구원 · 일본)=청정한 법음을 온누리에, 일본문화교류센터를 대표해 축하드립니다. 한국불교 세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귀신문의 창간 5주년을 축하합니다. 지속적으로 부처님의 등불이길 기원합니다.

▲리드 말콤(캘리포니아대 교수 · 미국)=인터넷으로 귀사의 신문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한국어 실력이지만 매호마다 질적으로 충실한 내용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아 세계로 열린 불교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현대불교 창간 5주년 새롭게 태어납니다

언제나 '새로운' 부처님 가르침!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전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5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종정 영산 일공

원로원장 황 법 운 승정원장 송 보 인 고시위원장 최 법 신

총무원장	최 법 륜	종의회 의장	조 성 관	각시도 종무원장	
총무부장	장 채 승	부 의 장	김 인 관	인천광역시	장 체 승
사회부장	임 보 광	사정원장	민 성 운	충청남북도	김 체 의
재무부장	박 대 월	포교원장	조 성 견	강 원 도	류 무 송
교육부장	이 체 원	문화원장	김 선 진	경상북도	손 지 관
포교부장	주 체 법	중앙비구니회회장	박 대 월	경상남도	최 천 호
총무국장	이 체 인	종정 사서실상	임 체 관	전라남북도	이 정 광
규정국장	박 체 성				
사업국장	강 체 도				

▶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704-39 전화 : 02)857-5094 / FAX : 02)859-1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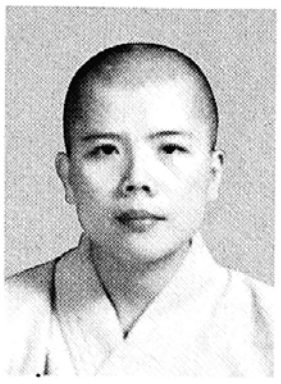
5 1994-1999 현대불교 창간 5돌

외국인이 본 한국 불교언론

울타리안에 있는 우리가 아닌, 바깥 외국인이 본 한국불교언론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한국에 와서 한국불교를 배우고자 한 이들은 말과 글을 배우기 위해, 또는 말과 글을 배우면서 교계 신문들을 읽고 불교방송과 불교TV를 즐겨보곤 했다고 한다. 이들중 러시아인인 블라드미르 티코노프 교수와 박사과정을 밟고있는 대만비구니 유과스님의 눈을 통해 한국불교언론의 위상과 그 역할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대중교화 역점 포교전문지돼야"



유과스님
동국대 불교학박사과정 · 대만

> "단순보도 보다 비불자 발심 신심키우는 기사에 비중"

1938년부터 줄곧 한국에서 공부하며 현대 · 불교 · 주간 · 법보 신문, 불교방송, 불교TV 등을 접해오면서, 한국의 불교언론이 종단의 대소사(大小事)와 스님들의 활동을 보도하는 데 많은 시간과 지면을 할애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법문 · 문화재 · 청소년 등과 관련한 기사도 다루고 있지만, 대만의 불교언론과 비교하면 한편으로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다.

대만 불교언론매체는 한국과 비교해 월등히 많다. 대만에는 불교계 공중파TV가 2개, 케이블TV가 2개가 있으며 신문과 회보의 수는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두 나라의 불교언론들이 종단이나 사찰로부터의 재정 지원에 힘입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보도 내용은 사뭇 다르다.

한국의 불교 언론에서는 종단 행정, 사찰 불사, 스님 행적, 단체 활동, 논문 소개, 불교관련 정부정책 등의 내용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사건과 현상 보도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우선 순위가 문제이다.

언론이라고 해서 모두 부정의 척결자료 심판자일 수만은 없다고 보며 또 독자들이 신선하고 충격적인 기사만을 탐하는 경향이 있다고는 해도 불교계 언론이 대중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일만을 능사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불교언론은 포교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매체라는 생각 때문이다. 포교란 비불자들을 불자화하고 불자들의 신심은 증장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에 언론은 불자들의 신심을 지키고, 비불자들의 발심을 돕는 그런 내용을 우선적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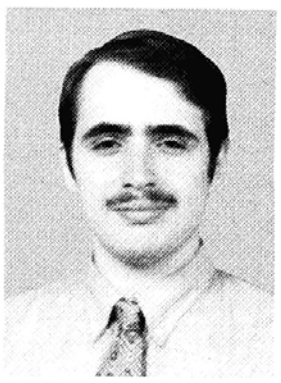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에서 매주 게재하고 있는 '신행 캘린더', btn의 '부처님 수첩' 등은 불자들의 신심을 다질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한다. 원력을 세운 불자 소개며 고승들의 법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리해설 등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대만의 불교언론에서 선호하는 보도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자제공덕회의 케이블TV는 불교사회복지 관련 보도가 많아 자비행을 원하는 불자들에게 호평받고 있으며, 광명세계의 공중파TV는 프로그램 막간을 이용해 10~20분 가량 고승법문을 방영하고 있는데, 스튜디오를 벗어나 대청마루, 넓은 바위, 길 위에서 스님들이 설하는 생활법문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신심이 깊은 불자라면 어느 나라에 살던지 찾는 것은 똑같다. 따라서 한국의 불교언론들은 대중들의 발심을 유도하고 신심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찾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리=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종교언론도 눈치보면 설곳 없어"



블라드미르 티코노프
경희대 교수 · 러시아

> "선지식의 법어 더많이 싣고 타종교 교리도 소개했으면"

나는 주마다 현대불교신문을 비롯한 몇 개의 교계 신문을 꼬박꼬박 본다. 이들 신문은 교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알림으로써 불자들의 단결을 기하는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경전, 불교미술 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대중화하고 고승들의 법문과 상담을 통해서 불자들의 신심을 자극하고 신행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불교 관련 논문을 소개하는 것은 다른 신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귀중한 정보이다. 나는 불교관련 인터넷주소를 소개한 고정란을 꼭 챙긴다. 이 정보는 불교학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문을 보면서 한국의 불교언론이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었다. 종교는 본래 초현실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비세속적인 것이다. 교계 신문에서 이 세상을 초월한 듯한 느낌을 주는 옛날의 선시나 효봉 · 구산 · 법정 스님들과 같은 현세 선지식들의 뛰어난 법어, 참선 체험에 대한 수행자들의 글을 좀더 많이 실었으면 한다. 인사 동정이나 종단 행정 등에 대한 현실적인 보도가 없을 수야 없겠지만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교계신문에서는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그리고 현재의 말법 세상에서 종교는 불교 기독교 등으로, 불교도 대승 소승으로, 대승불교도 중국, 한국, 일본 불교 등으로 각각 나누어져 있지만 진리는 하나이다.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편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교계 신문일수록 오히려 기독교나 힌두교 자이나교 등 타종교의 교리를 더더욱 알뜰히 소개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근래 한국의 주요 종교로 급성장한 기독교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기독교의 신성한 수행자들을 도반으로 대승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교회에 다니든 절에 다니든 남에게 베풀 줄 알면 선업이 쌓인다는 의식을 교계신문 독자들이 가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교계 신문에는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들이 과연 있는가?

신문의 가치는 다른 무엇보다도 비판 정신에 있다. 더군다나 한국불교의 근 · 현대사와 오늘날의 교계현실이 왜곡과 번질, 세속화 등으로 점철돼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비판을 더욱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 시대 승려들의 친일 행각, 해방 이후의 국가와 정치인에 대한 승단의 지나친 의존, 승풍의 부재, 승려의 계율 무시 등은 언론의 비판을 받지 않고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계 신문들은 교단의 친일 행위와 같은 예민한 문제들을 과연 다루는가?

눈치로 사는 언론은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한다. 불교 언론들은 앞으로 보다 초세속적이고 포용적이며 현실비판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현대불교신문이 서비스하는 인터넷 '부다피아(www. buddhapia co.kr)' 홈페이지 초기화면. 불교언론은 각사마다 전자신문에 큰 관심을 보이는 등 뉴미디어 포교기반을 다지고 있다.

불교언론 5년전과 5년후

빠른 속도로 '매체의 질' 향상

불교언론을 말하면서 투자규모의 빈약과 관리능력의 부재를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한때는 "언론매체를 사유화하고 또는 사목적화의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이러다보니 공정한 보도, 전문인력의 양성, 불교발전을 위한 신문의 역할 수행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현대불교신문은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태어나 불교언론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왔다. 이에 현대불교신문 창간 5돌을 기점으로 5년간 불교언론의 변화와 5년 후를 전망해 본다.

현대불교 창간 당시인 94년 교계에는 불교, 법보, 주간, 대한불교 등이 주요 언론매체로 자리잡고 있었다. 이들 신문은 12면 발행에, 대부분 세로쓰기 편집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출가자 중심 또는 주요 종단의 행정 뉴스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또 불교 · 법보신문은 PC통신 천리안에 기사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했다.

이 즈음부터 신문의 외형은 물론 내용에 이르기까지 '경쟁'의 개념이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했다.

16면으로 출발했던 현대불교가 97년 4월 늘어가는 불자들의 지적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20면으로 증면을 단행하자 곧바로 주요 교계신문들은 잇따라 12면에서 16면으로 증면했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은 같은 해 10월 24면으로 다시 증면하면서 변화를 시도했다.

창간 때부터 한글세대까지 교계신문 독자로 상정한 '젊은 불교'를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담은 전면 가로쓰기 편집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교계 신문들도 제호의 크기와 형태변화를 꾀하면서 가로쓰기 체제로 전환했다. 또 현대불교의 4개면 컬러편집도 컬러면 2개에 그쳤던 교계신문들의 변화를 유발시켰다.

신행 · 포교지를 표방하고 큰스님 법석이나 다양한 신행활동은 담은 기사는 곧바로 교계 신문들에 영향을 끼쳐 다른 교계 신문들도 큰스님 법석난을 신설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했다. 또한 교계 최초로 '전자신문' 시대를 연 95년 3월 현대불교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의 개설은 현재 불교, 법보신문이 인터넷 신문을 구축하게 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이외에 현대불교가 펼친 각종 문화사업은 교계신문이 문화 포교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성태용 교수(건국대 철학, 우리는 선우 지도위원)는 "교계신문은 현대판 대중공사"라며 "현대불교신문의 창간으로 교계신문은 공의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의 막중함을 부여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지난 5년간 교계 언론이 이뤄온 괄목할만한 성장은 이후 불교언론이 어떤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가를 제시한다. 차세대 전자매체로서의 '전자신문'은 교계언론은 물론 불교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보다 편리하고 고급화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독자들의 요구는 지금보다는 훨씬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교계신문은 인터넷이라는 무한공간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 각 사마다 뉴미디어를 신행 · 포교의 기반으로 삼을 것이다. 이미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독자 분포는 젊은층, 불교에 관심있는 예비불자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도기능보다는 신행 · 수행 · 지상강좌 등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는 지면으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를 위한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종 불교문화사업 등으로의 다양한 기능 확산으로 언론매체가 불교문화센터로서 그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면 가로쓰기 · 신행페이지 증가
전자신문등 뉴미디어 포교 가동

원용진 교수(동국대 신문방송학과)는 "교계신문 스스로 자신을 세우기 위해 디딜 첫발걸음은 대화가 가능한 독자를 찾아나서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김병규 문화일보 전 편집국장은 "생활기사든 정치기사든 경제기사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용광로에 넣어 용해시키고 새로운 시각으로 도출해내 독자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5년 후 교계신문은 이같은 지적과 주문에 얼마나 충실했는가에 따라 독자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정성운 · 한명우 기자
(swjung@buddhapia.com)

서북 황토 토종 오가피농장

"한줌의 오가피는 한마차의 금옥을 갖는 것보다 낫다" - 본초강목(P 1732)

· 황토흙에서 10년이상 자란 무공해 오가피 ·
· 유기농법에 의한 생명력이 가득찬 오가피 ·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MBC 9시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에 보도 ("오가피 알아봤더니 숲가피") 에 따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 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황토 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고시준비생에게 탁월한 효과 보장.
※여성중앙 9월호 (P636) 다이어트 최고의 작품으로 소개. (경희대 육창수 박사)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와 오가피의 효능에 관한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 제 품 오가피추출액, 묘목분양
♣ 전화문의시 전국 택배 배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서북오가피직판장
♣ 전 화 : 0333)682-503, 8588, 682-4965(농장)
FAX : 0333)682-5034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myhome.netsgo.com/baeghj/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탄생!



· 피라밋 이글루형 황토방 규격
표준형 : 49m²

◐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 황토방을 순수 황토만을 사용한 이글루형으로 시공함으로써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내부공간
◐ 전통방식의 구들시공으로 황토의 장점을 최대화
◐ 정신 및 신체건강을 위한 최적의 황토방
※ 황토주택시공 및 황토 흙벽돌 판매

대륙건축 황토방 사업부
대표 이 성 우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530-3
TEL : 0335-336-6563
FAX : 0335-338-8923
H.P : 011-9680-5055

현대불교 창간 5주년 새롭게 태어납니다

언제나 '새로운' 부처님 가르침!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전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회 주 혜 성
주 지 광 복

대중일동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TEL : 종무소 02)993-3161~3 / FAX : 02)993-3164

1994-1999 현대불교 창간 5돌

불교언론의 새 지평 열었다

현대불교신문사 5년 연표

년 도	내 용
93년 12월13일	'현대불교' 신문 정기간행물 등록
94년 7월	현대불교신문사 사옥 '한마음불교회관' 개관
94년 8월23일	불교전문책방 '여시아문' 개점, 다원 '녹수청산' 개점
94년 10월14일	현대불교 창간 기념 리셉션 하야트호텔 그랜드볼룸
94년 10월15일	'현대불교' 신문 창간
94년 3월2일	출판사 '여시아문' 등록
95년	여시아문 소식지 창간호 발행 창간 1주년 기념 기획-제1회 신행수기 공모(이후 매년 실시중) 4대 총림 방장스님 친견대법회(10.14-11.1) '전국 전통사찰 안내지도' 제작 보급
95년 10월16일	교계 최초 전자게시판 부다피아(BBS) 개설, 시연회
96년 1월3일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현대프로덕션 발족
96년 4월1일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 개설, 인터넷 사이트 부다피아 서비스 개시 중·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사유상 보급운동 전개
96년 5월	책방 여시아문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96년 5월14일	가족과 함께 '경주남산' 순례/아빠와 함께 남한산성 걷기 대회
96년 10월16일	2주년 기념 제2회 신행수기 공모
96년 10월23일-29일	책방 여시아문 '사보의 세계로 초대' 전시회
96년 10월30일	100호 기념 기획사업 수미산 문학기행-무욕도 간월암 참배
97년 4월2일	20면 증면
97년 5월 1일	한계좌 1천원 '그늘진 곳에 법보시 운동' 전개
97년 7월	봉은사에서 재활용 알뜰시장 새싹불자 무료도서보급 1만2천권 사찰/단체 독립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동 전개
97년 10월1일	24면 증면
97년 12월29일	본사 김광삼 사장 '문화유산의 해' 기념 불교문화테마기행 성료로 조계종 총무원장 감사패 받음
98년 2월28일	현대불교신행수기 당선자 모임 신수회 결성
98년 3월4일	pcs 포교기금 소쩍새마을에 첫전달
98년 4월1일	현대불교신문 검색-열람서비스 가동
98년 4월26일	제1기 명예기자 29명 선발
98년 4월29일	부다피아 인터넷 통신 LG 채널아이에 불교정보 독점서비스 개통
98년 6월17일	현대불교신문 교계 최초로 기사실명제 및 이메일 ID 표기
98년 7월23~25일	제1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 개최(이후 매년 1회 실시중)
98년 12월16일	TV인터넷 불교정보사업 시작:인터넷TV에 불교정보 독점제공
98년 12월30일	현대불교신문 1구좌 1천원 법보시운동 5만구좌(누계) 돌파
99년 1월6일	제4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발표
99년 2월27일	2월 문화인물 '혜초' 기념음악회(진각종 공동주최) 제2기 명예기자 선발
99년 5월10일	부다피아에 교리·교육·세무·의학·법률 등 5개 상담코너 개설
99년 5월17일	20세기 고승 16인 기념메달 제작 보급 착수
99년 5월19일	사이버 붓다 제작, 99 불교예술대전 '사이버법당'에서 공개
99년 6월8일	불교전문 사이버 백화점 '몰 부다피아' 제1회 우수 사이버몰 시상제도에서 전문분야 우수사이트에 선정

현대불교 5년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데생용 반가상 보급
불교문화 테마기행
혜초음악회 개최
교계 첫 정보센터 개설



◇IMF위기극복을 기원하며 범종단 전국순회법회로 국민적 관심속에 열린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1994년 10월15일 신행지라는 차별성으로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은 16면 가로쓰기를 선보이며 최대 지면·최고 부수 발행으로 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경영 편집제작 등 각 분야에서 진보적인 시각과 도전으로 '앞서가는 신문'의 이미지를 확립하면서, 교계 신행풍토에 새 장을 제시했다. 특히 일반불자들의 수행을 실천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으며, 불교의 사회화를 위한 각종 기획과 비전 제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불교계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는 문화 진작은 불교 위상 제고에도 톡톡히 역할했다.

특히 불교계 처음으로 독자적인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설립해 불교정보화의 새 장을 열었다. 창간 1주년 되는 95년, PC통신 불교전자게시판을 가동했고 1년후 인터넷을 통해 불교종합정보를 전세계 네티즌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은 전통문화 계승과 맞닿은 불교문화 전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이를 지면에 반영 교계 여론을 선도했다. 96년 4월부터 전국 일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미술교재로 데생용 석고모형 미륵반가사유상을 보급했다. 이 운동을 통해 1년동안 전국 306개 초·중·고·대학교까지 확대 보급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종교를 초월한 전통문화 교육 운동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불교문화테마기행을 개최한 본사는 1년 동안 통도사를 시작으로 내소사 석굴암 부석사 해인사 운주사 등 특징적인 불교유산 순례를 가졌다. 불자들은 물론 비불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그 여세로 98년에는 문화체험학교를 신설, 쌍계사 차축제, 용성스님의 발자취를 찾아서 등 주제가 있는 순례기행을 시도했다. 이어 올해는 가지산문, 실상산문, 동리산문 등 각 선문을 찾아다니며 참선을 맛볼 수 있는 구산선문 참선기행을 갖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은 실천불교활동에도 앞서가는 언론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 주었다. 해방이후 최대의 국가적인 위기라는 IMF 상황에서도 현대불교신문은 지면을 통해 국민들에게 참회를 통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으며, 구체적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순회 '국난극복 참회대법회'를 8차에 걸쳐 개최해 현대적의미의 호국불교 의지를 드날렸다.

또한 99년 2월 문화인물로 선정된 〈왕오천축국전〉의 저자 혜초스님을 기리는 창작국악교성곡 혜초 음악회를 진각종과 공동으로 개최해 불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한편 불교계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면서 간과되어지고 있는 어린이포교에 대한 현대불교신문의 관심과 지원은 역력했다. 불교의 미래를 책임져 나갈 어린이를 위해 97년 7월에는 도서출판 동쪽나라와 공동으로 '새싹불자 무료 도서보급운동'을 펼쳐 어린이불서등 1만2천권을 전국 사찰과 관련단체에 보내기도 했다.

본사는 창립부터 꾸준하게 불교의 사회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95년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를 시작으로 '우리는 불자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불자의 집' 가정용 차량용 스티커 보급 캠페인을 벌였다. 96년 '새싹불자를 키우자', 97년 '참회의 삶을 살자' 98년에는 '작은 실천 큰 기쁨'이라는 캠페인을 전개해 각계의 호응을 얻었고 올해는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치자'를 통해 종단 문화 학술 복지 문화재 등 다양한 분야의 불교계 현안문제를 지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근세100년 고승 16분의 기념메달을 한국조폐공사와 공동으로 제작해 보급하면서 20세기를 뜻깊게 마감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은 큰스님들의 덕화와 사상을 기리면서 21세기를 열고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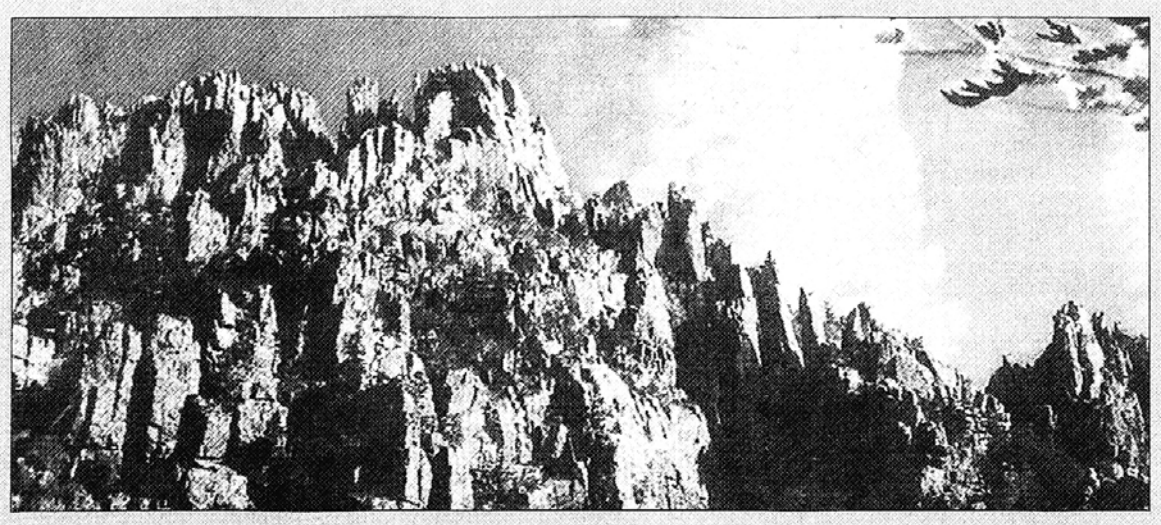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사옥 한마음불교회관 개관식. 대행스님, 고은시인, 김광삼사장의 모습이 보인다.



◇새싹불자에게 불심을 심는 어린이포교의 상징 여름연합캠프.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을 보내드립니다



• 현상공덕향 특별할인가 5,000원 (개당)

불사판촉용 및 보시용으로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하여드립니다.
※ 1~2개 주문시 등기료 구매자부담, 3개이상 구매시 판매자부담

• 판매원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 Tel: 02)732-1522 · Fax:02)737-0697
·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http://mall.buddhapi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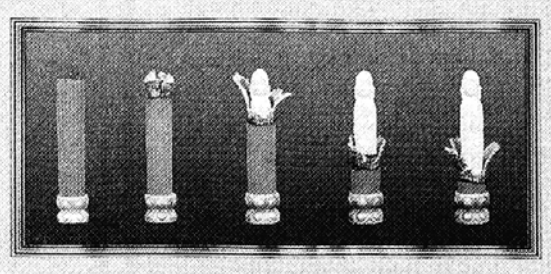
• 제조원 : 금 성 통 상 (전국대리점 모집)
· Tel: 051)324-3731 · Fax:051)324-3733

마하몰 경품대잔치

• 행사기간 : 1999. 9. 8 ~ 11. 22
• 응모기간 : 1999. 11. 30 까지
• 추첨 및 발표:
1999년 12월 3일자 , 현대불교신문게재
• 응모방법 :
행사중 「현상공덕향」을 구입하신후 포장지에 금박인쇄 되어있는 「현상공덕향」을 오려서 우편엽서에 붙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하여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마하몰 앞

◆경품내용
· 대상 : 1명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 여행권 2매)
· 1등 : 2명 (고승기념메달 8개/세트)
· 2등 : 3명 (고산다기 및 다기함/세트)
· 3등 : 5명 (고산다기/세트)
· 4등 : 10명
(문구암스님 법음, 범패집 각 1질)
· 5등 : 50명 (참선명상방석 각1개)
· 마하몰상 : 200명(법성게걸망 각1개)

"수험생 입시성취 기도를 위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구입처 · 서울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02)732-1522, 견지불교사 02)739-3032 · 대구 : 불광불교용품사 053)421-4768, 마하몰 대구지사 053)768-8008, 대구불교방송 사업팀 053)427-1011 · 부산 : 십장원 051)646-6255, 마하몰 부산지사 051)634-5114, 관음불교 051)808-5655, 대성불교사 051)332-0289, 부다가야 051)865-4383, 부산불교전시관 051)632-7393 · 광주 : 마하몰 광주지사 062)375-9966 · 대전 : 대전불교사 042)257-0318 · 전주 : 전주불교전시관 0652)282-7054 · 창원 : 경남불교전시관 0551)295-8911 · 진주 : 마하몰 진주지사 0591)747-0106 · 밀양 : 부용불교사 0527)352-3756 · 속초 : 광명불교사 0392)631-7907 ※ 전국 유명불교 용품점 및 사찰내 용품점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 "회독률 1위"

1994-1999 현대불교 창간 5돌

5년만에 교계 대표적 정론지 '우뚝'

참신한 기획·취재 읽기쉬운 지면 편집 정보화시대 선도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지향하며 태동된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5돌을 맞아 열독률·회독률·가독률에 있어 수위를 선점, 신행포교 전법의 새문을 활짝 열었다.

'2천만 불자의 대변지'라는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출범한 현대불교신문은 '1주일 동안 살아있는 신문'으로 폭넓은 독자층을 형성, 5년만에 교계의 대표적 정론지로 급부상했다.

이같은 평가는 5년의 역사가 대변하고 있다. 불자들사이에서 '현대불교신문을 모르면 교계소식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신행의 길잡이로서 불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을 정도로 대중화됐다. 여기에 전 지면을 통해 게재되는 참신한 기획물과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분야를 불교적 시각에서 제시해 기존 교계 신문의 구독한계를 한단계 뛰어 넘어 일반 대중을 독자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대불교신문만의 독특한 제작방향은 산간오지의 암자에서부터 도심포교당은 물론 타종교의 성직자, 관공서 등에서도 구독할 정도로 기존 교계 신문과 차별화된 넓고 두터운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밖에도 참된 삶의 길을 여는 고승 대덕스님의 사자후, 풍부한 신행자료, 불교적 가치관을 제시하는 칼럼과 불자세상보기, 독특한 시각의 출판 건강 생활정보란을 통해 세상 읽는 눈과 읽는 즐거움 제공, 삶의 고뇌를 참된 수행으로 극복하는 체험담 등이 독자배가에 큰 역할을 했다. 이에따라 현대불교신문은 한번 보고 버리는 신문이 아니라 한주일 내내 두고두고 돌려가며 읽는 신문으로 회독률은 일간지보다 탁월하다. 회독률은 신문 1부를 몇명이 보느냐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신문에 대한 관심도와 기사효과 여부를 알려주는 잣대이다.

특히 교계신문이 신앙심의 증장과 포교를 주요한 발행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높은 회독률은 곧 문서포교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회독률은 곧바고 법보시로 이어지고 있다. 혼자보기 아까운 신문으로 이웃과 함께 돌려보거나 아예 이웃에게 법보시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 이같은 사례는 현대불교신문의 풍부한 신행자료로서 가치와 높은 신뢰도를 짐작할 수 있는 단면이다.

이와관련 이영자씨(주부·경기도 구리시)는 "현대불교신문이 성별 연령별로 특화된 지면을 구성해 다양한 독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서 법보시로 부족함이 없는 신문이다"며 "군대간 아들이 있는 군법당에 법보시 했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독자층 확보와 입체적 언론 형성은 현대불교신문만이 지니는 최고의 강점. 아시아권을 물론 미국 독일 등 5대양 6대주 3백여 독자들이 매주 현대불교신문을 애독하고 있다. 또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정보센터 운영과 영상사업 등도 함께 펼쳐 한국불교의 세계화와 정보화를 선도하여 입체적 언론사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하나 더 있어서 좋은 신문'으로 당당하게 출발했던 현대불교신문에 대한 평가가 창간 5년만에 명실상부한 2천만 불자의 대변지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인류의 담보이자 희망인 불교의 언론을 선도할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5주년을 맞아 보다 넓은 안목으로 무소의 뿔처럼 더욱 정진한다는 초발심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현대불교 55
불심모아 청정국토 가꾼다
"한국산업발전의 견인차 — 효성중공업"


현대불교
남-북 합작 제의

◇94년 10월15일 창간호(사진위)와 97년 10월1일 24면 증면호.


현대불교신문 지구촌 구독현황

지구촌 곳곳서 '현대불교' 읽는다

교포들 "꼭 필요한 신문"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불자들에게도 현대불교신문은 읽히고 있다. 가까운 중국 홍콩을 비롯해 일본, 호주, 영국, 독일, 아르헨티나, 미국, 캐나다, 우르과이, 브라질,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전세계 15개국 각지에서 신문을 받아보고 있다. 현재 한글판만 제작되기 때문에 외국인 독자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못하지만 해외 교포들 사이에서는 꼭 필요한 신문으로 사랑받고 있다.

북미주의 경우 토론토 지사에서 본사로부터 신문을 일괄 받아 다시 개별 독자에게 발송하고 있었으나, 신문을 더 빨리 받아보고 싶다는 현지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월부터는 본사에서 직접 발송하고 있다. 일본에 사는 한 보살은 매호 20여부씩 홍법원에 법보시를 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홍법원에서 신문을 받아보게 된 한 교포는 법보시인 줄 모르고 본인도 무료로 신문을 보내달라고 본사로 전화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외에서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정보 친선 교류를 위해 현대불교 구독자끼리 연락망을 구성하고 싶다는 독자도 나서는등 현대불교신문이 교민을 연결해주는 구심점이 될 가능성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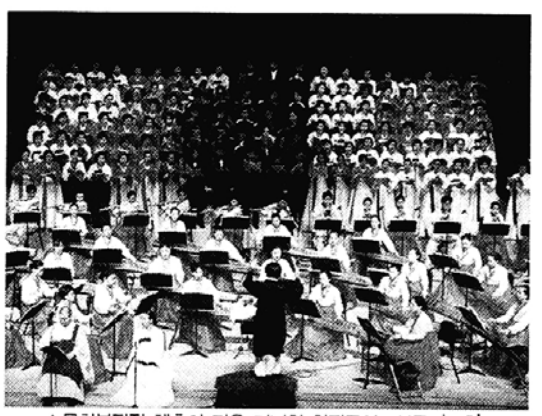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이 가장 많이 발송되는 국가는 미국 일본 캐나다 순이고 아르헨티나가 그 뒤를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세기를 마감하며 고승 16인 기념메달을 공동 제작 보급한 한국조폐공사 이석복감사가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메달세트를 기증하고 있다.


◇민족정신 선양을 위해 전국 중·고교에 데생용 미록반가상 보급운동을 펼쳤다.



◇매년 실시하는 신행수기공모는 신행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정평을 받고 있다.


◇문화부지정 혜초의 달을 기념한 창작국악교성곡 '혜초' 공연.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秘)"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 괘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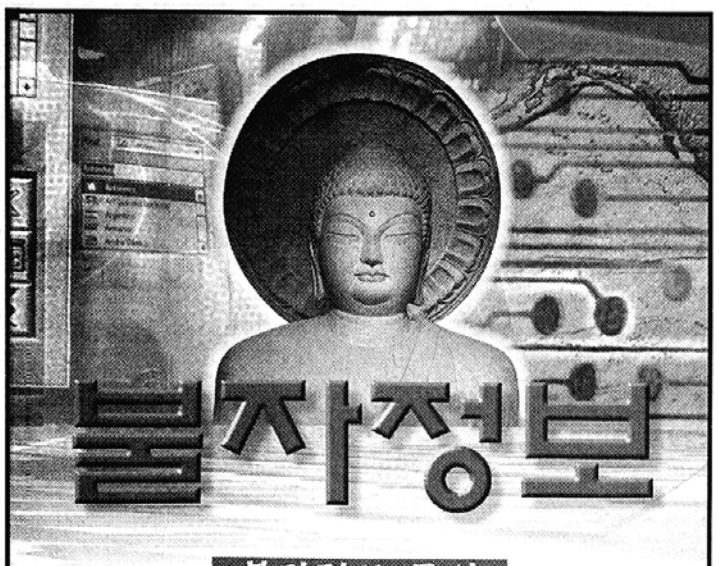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갑상선 · 간질 당뇨완치
한국불교태고종 **서산사**
주지 한진성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전화 0667)761-5799
H.P 011)696-4848
팩스 0667)762-2204

건강과 행운의 목걸이
▶잠을 통 못 주무시는 분
▶이유없이 몸 아프신 분
▶종일 온몸이 나른하신 분
▶정신집중이 필요하신 분
▶노약자, 사업이 부진하신 분
▶기타 운세의 호전을 원하시는 분
02)734-2118
011)239-6817

神 문제 神 환자
역학 · 신통
대전 (042)
672-2243
016)
495-2243
法 惠

수삼(參) 도소 매매
금산수삼센터
017)
242-4765
〈불자님만 공급함〉

체질식 =무병장수
100%
체질분류비법
(난치병 상담)
미타암
0552)
582-6013

강좌

정/성/활/인/방
손끝의 활 · 인 · 술
· 십분할인 · 신체의 썩은 탁기를 없애 고밝은 정기를 들여보내는 천연 활인법
정성활인술을 받으시면…
▶몸이 시원하고 가벼워진다
▶얼굴색이 달라진다
▶입맛이 바뀌어진다
▶눈의 생기가 돋는다.
02)518-2453/ 016)695-8388

최면-견성지도 수련테프 판매!
1,생물 = 생명(?+기록물)+물질(육체)
(1).?; 자유자율성, 不生不滅, 능동, 無形무게부피無
(2).기록물(업); 경향(습관)성, 有生不滅, 有形, 무게부피無
(3).물질(육체); 법칙성, 부자유, 수동타율, 生滅, 有形무게부피有
2.견성; 볼래야 볼 수 없는 ?을?이 본다.
3.?을 보아 병과 운명을 고친다.
4.만성난치병/금연 금주/ 악습비만체질교정/학습력강화
박민수 침선 교육원 (062)251-2733
http://minsoo zen.pe.kr 017)609-9068

구인

공양주 보살 구함
02)359-7317

공양주 보살 구함
· 정토사
0338)
771-8209,8210

스님지망생,법사구함
본사찰은 유치원. 학원을 운영하며 도심포교의 진력하는 포교도량으로, 주지스님도와 포교에 매진하며 공부할 젊은 인재를 구함.
군필한 30세 미만 고졸이상 성실한자. (인천소재)
017)321-4883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11)
9715-4366

함께 근무할 종무원을 구합니다.
1. 근무처 : 혜원정사
2. 구비서류: 이력서 1통, 주민등록증
3. 연령 : 30대(남)
4. 운전면허증, 컴퓨터필수 (부산시내거주자), 불교단체근무 유경험자 우대
051)866-7771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기타

건강에의 신비! 준전玉山家(옥)
고혈압 당뇨, 간경화, 폐암, 관절염, 두통, 정력부족 기타 성인병환자들이 이 옥을 활용하고 효과를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의학적 **자연치유!** 건강상태에 따라 옥제품과 사용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주)대일광업 서울중앙판매소 玉山家 (02)777-0105

단청불사 무료상담
문화재 등록증 있음.
작은 평수의 건물을 선정하여 지역마다 한곳을 무료로 해드릴 예정임.
넓은 평수는 저렴한 가격에 해드림(현재 접수중)
0572)633-1517
011)802-1517

절터 · 묘터 유실수부지
서울 서초구 원지동 산 4-76
◆임야 15,000평
◆공시지가 6억
◆급매가 3억
011)512-3730

전통범패 불교의식 모집
(기초반 · 중급반)
■강의내용:
예불, 아침쇳송, 저녁쇳송
상단축원, 중단작법태공,
도량석, 도량게, 복청게,
천수바라 태징 찍는 법,
북치는 법, 관음의식, 현자계
※개인지도 가능
0351)865-4893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항상 피곤하신 분
술을 자주 드시는 분
간염, 당뇨병, 고혈압, 체질개선
정력증강, 손발냉증, 변비, 요통등…
■가격 분말 230g 39,000원
환 250g 45,000원
동양물산(주)
02)832-0742 / 011)381-8157

승복을구합니다.
강원에서 공부하는 학인으로 사정으로 승복을 맞춰 입을 형편이 못됩니다.
어떠한 승복이더라도 보내주심면 감사히 입겠습니다.
보내주실곳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218-23 (우: 480-102)
박호연 거사

철학관 수강생 모집
02)
962-9871
자비원

사찰안내

포교당 안내
◆위치 : 서울 은평구
◆부지 : 2층 30평(법당, 방1개, 주방)
◆시설일체 양도(본존불, 탱화포함)
◆가액 : 합 2500/30만원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근교
◆부지 : 약 1000평(대지 740평, 임야250평)
◆시설일체 양도(본존불, 탱화포함)
◆법당: 30평 / 요사 : 40평
연락처: 02)389-7880 / 019)390-6110

사찰 안내
◆위치: 충북 ◇법당: 35평(철포집)
◇부지: 400평 ◇요사: 40평
◇가액 : 2억 3천만원
◇강능고찰터 1천평(4천만원)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02)723-4082/733-0108
광진불사

사찰 (전세) 안내
◆위치 : 경남
◆가격 : 전세 2천5백만원
매매 3800만원
0591)746-5605

사찰(급) 안내
◆위치 : 서울 노원구
◆대지 65평, 임법당, 건평 100평 (위층 법당, 아래층 요사채)
◆가격: 3억 5천만원
◆특징: 주차시설 완비, 전철역에서 2분거리, 주위에 아파트 5천세대
10월 입주-포교당으로 손색이 없음.
02)3391-4845/02)3391-4848
011)752-4842

사찰을 찾습니다.
노보살님이 운영하면서 스님을 절실히 원하는 사찰을 찾습니다.
공양주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사찰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동양철학 20년 · 영가천도 전문
012)630-2211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
◇법당 : 25평
◇요사 : 33평
◇부지 : 750평
◇가액 : 4억 3천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양도 · 운영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급) 안내
◆위치 : 충남 금산 금산읍
◆대지 75평, 법당 10평, 요사채17평, 욕실, 화장실
◆가격: 1억(가격 절충)
◆특징: 천연암반수, 산세수려
0412)751-0771

사찰 안내
◆위치 : 부산 남구 대연동
◆평수 : 법당 20평, 요사 2동
◆기타시설 완비
◆가액 : 답사후 절충 (전세도 가능)
019)570-6856

토굴 안내
◆위치 : 광양시 진월면 부근
◆대지 : 137평(건평40평)
◆가액 : 3천 5백
◆천연암반수, 방3, 주방, 큰창고 (법당가능)
◆조용한시골 (바닷가 차편 10분거리)
0667)772-6968

포교원 (급) 안내
◆위치 : 장안평 사거리 전철역 앞
◆규모 : 총45평, 법당15평, 시설최상급, 거실1, 주방1, 목욕탕, 화장실1, 대중화장실 별도, 살림방 3, 상담실 1-살림편리, 5층건물의 5층
◆가격 : 500만원(월 40만원) 시설비 3천만원(총3,500만원)
011)660-4631
02)2216-3377

포교원 안내
◆위치 : 충남 천안시 성정동
◆건물 : 1층
◆요사채 : 21평, 주방 : 10평, 법당 : 21평(2층)
◆특징 : 지장보살 칠불
◆모든시설 완벽함
◆가액 : 전세 6천만원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417)577-1469

사찰 안내
◆위치 :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성당시장 사거리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시설: 관음보살(동불), 인등(400), 본존, 신중, 칠성, 지장, 나반 및 산신탱화예불종등 의식용품 일체
◆법당(30평) 요사(26평) 전화, 팩스, 대형냉장고등 사정상 급매(스님 직접 상담)
02)493-7603 / 011)271-7603

포교원 안내
◆위치 : 방이동 올림픽 아파트 사거리
◆평수 : 30평
◆가액 : 보증금 2,5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1)775-8200

포교원 안내
◆위치 : 대전도청앞 삼성생명 빌딩옆
◆최신시설 완비, 3층 50평
◆가액 : 전세 3천(월세가능) 권리금 3천만원(절충가능)
석 림 사
011)209-1016
042)221-1071~3

사찰 안내
◆위치 : 충북 청원군 미원면 운용리
◆대지 : 300평 (종교용지 148평)
◆법당 : 가건물 30평, 요사채 : 35평
◆석불(문화재급)있음. 산세좋고 조용함
◆가격 : 5,500만원(시설일체 양도)
0431)254-6277
011) 459-7779

사찰 (급)안내
◆위치: 경기 이천 소재(장호원)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이나 급매로 절충하여 정함 ◆교환가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최고요지
◆평수 40평
◆법당, 청동삼존불, 공양실,방2개, 에어콘, 후불탱화, 시설 최고,
◆옥상40평 사용 가능
◆보증금 3000만원 (월20만원)
051)293-0137
011)825-1662
※꼭 하실 분만 연락바랍니다

사찰 안내
◆위치: 대구시 수성구 파동 445-1
◆부지 60평, 법당 13평
◆산신각 · 용왕당 · 방6칸 시유휴부지 사용 可
◆가액: 1억 8천만원(절충可)
053)768-5788

大사찰지 안내
◆현재 허가사찰물 : 석굴암, 요사채, 산신각, 법당, 5층탑, 아미타불, 간음보살, 불상
◆신규미륵성지조성분 500평, 법당 · 요사채 신축지 500평, 1500평 허가지가 2억 5천, 2천 5백평 신규시설지 3억5천
충주댐 진입로점도 사찰 불암사 1만평 중 분할가
충주 0441)848-1766
야간 불암사 853-2896

사찰 안내
◆위치 :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부지 : 임야 9000평, 종교부지 250평
◆법당 : 22평, 산신각 4평
◆요사 : 30평, 화장실 4평
◆가액 : 1억 6천만원
◆특징 : 산자 수려하고 물좋음
016)575-4713
0525)324-7346

사찰 안내
◆위치 : 울산시내 대단위 아파트 앞(2,500세대)
◆평수 : 30평
◆가액 : 전세 2,500만원 (월세가능)
◆시설완비(즉시 법회가능)
011)563-4454

토굴 안내
◆위치 : 정선
◆규모 : 약 300평
◆가액 : 2,500만원
◆향토집
011)9782-9544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김천
◆대지 : 600평
건물28평 1동 · 20평1동 · 방 5, 입식부엌 · 임법당 · 욕실 · 삼성각
◆가격 : 대출금 5천만원 안고 6천 5백만원에 인수
◆특징 : 가든 또는 별장으로 적합, 계곡과 경관좋으며,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의 절반가격임.
0547)437-5390
011)9738-9221

포교원 안내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평수 : 37평
◆전세 : 4,000만원
011)564-4171
052)247-6125

토굴 전세 안내
◆위치 : 경남 함양군 지리산 부근
◆임법당 및 황토방, 산세 좋음
◆가액 : 전세 1,500만원 매매 5,000만원
◆조건 좋음
0597)962-3528
011)842-3525

(스님)토굴 안내
◆땅 143평
◆가액 : 1천 5백만원 (절충가능)
0594)863-0663

사찰 안내
서울 · 부산지역 사찰구합니다.
서울 · 부산 시내 또는 근교 사찰이나 암자를 구합니다.
전화상담시 보안유지합니다.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충북 진천군 이월면소재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부지 400평 ◆산세 좋음.
◆가액 : 7,500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경기도 여주군내
◆부지 : 1400평
◆법당 : 25평(주삼포, 단청 완료)
◆요사채 : 2동 80평
◆산세 좋음, 백년고찰임
◆가액 : 4억 3천만원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치 : 대전 논산 국도 중간지점
◆산속에 위치하여 기도도량으로 적합
◆법당 : 35평(목조건물 외 5포 내 7포)
◆삼성각 : 5평(목조건물)
◆요사채 : 35평(현대식 건물)
◆대지 : 602평
◆가액 : 답사후 가격절충
0461)733-3048/011)458-3048

사찰 안내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법륜사
서울 수색과 경기 화전 10분거리
◆서울 일산 포교에 적합
◆평수 총 26평(법당)
◆시설외 일체 인수
◆가격 : 1억(시설비 없음)절충가능
◆전화상담요망
02)3158-3448/018)382-344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방 2, 주방 1, 법당, 옥상 사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장 · 산신탱화
◆ 시설 완벽
◆ 가격 : 보증금 5백만, 월30만 (시설비 천 3백만원)
053)942-0700

사찰 부지 안내
◆위치 : 충북 진천군 강의원 (음성톨게이트에서 3분거리)
◆평수 : 임야 5,500평
◆가격 : 평당 15,000원
02)521-3389

마음 비춰보는 거울…1주일이 편안

독자가 보는 현대불교

5 1994-1999 현대불교 창간 5돌

영등포교도소 박홍렬씨

'나의 수행일기' 읽으며 재소자와 토론 · 상담



"현대불교신문은 재소자들이 참회하고 수행하도록 하는 지침서가 되고, 교정인들에게는 재소자들과 대립의 관계가 아닌 도반으로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고마운 매체죠." 지난 6년4개월동안 교정인으로 재소자들과 함께 생활해 온 영등포교도소 교무과 박홍열씨(불교담당 교정인)는 박씨는 지난해 불자 수형자들만으로 구성된 불교사방(舍房)을 맡아 수형자들의 종교활동을 도우면서 현대불교신문과 인연을 맺었다.

박씨는 매주 배달돼 오는 2부의 현대불교신문을 받아 들자마자 1면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를 단숨에 읽어 버리는 애독자가 됐다. 박씨는 이난을 통해 교계 현안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비판을 비춰본다. 이어 '수행한담'과 함께 '나의 수행일기'에 시선이 머문다.

큰스님들의 법어와 인사들의 수행체험담은 박씨의 수행거울도 되지만 재소자를 상담하고 교화하는 훌륭한 교재다.

"높다란 회색 담장 안에도 현대불교신문의 눈 밝은 독자가 많다"고 말하고, 현대불교신문이 사회 전체를 수평적으로 잇는 연결고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모녀독자 조남인 · 정인주씨

'수행한담' '길을묻는…' 스크랩북 만들어 탐독



화요일 저녁, 퇴근 길에 우편함에서 현대불교신문을 챙겨온 정인주(고대구로병원 방사선과의사)씨는 식사도 제쳐두고 신문 10면(교리 · 과학), '수행한담'과 '길을 묻는이에게'를 차례로 펼쳐든다. 그리고는 빨간색, 파란색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세심히 읽어 내려간다. 그렇게 두어 시간이 지났을까. 신문을 샅샅이 읽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정인주씨의 어머니 조남인(산부인과 신당의원 원장)씨가 바통을 이어 신문을 받아든다. 조남인씨가 먼저 펼쳐본 지면은 '큰스님 수행한담'. 좋아하는 면을 차례로 넘겨가다 보면 어느새 24면 '주부신행담'에 닿는다. 딸이 줄 쳐 놓은 '수행한담'과 대행스님의 '길을묻는 이에게'에 이르면 읽고 또 읽으며 "그래 한 생각 돌리면 안될 일이 없어"라며 딸의 동의를 구하기도 한다.

현대불교신문을 사이좋게 나눠읽는 모녀독자 조남인(65)-정인주(38)씨는 엄마와 딸 사이를 넘어 신문을 통해 맺은 도반이다. 또 큰스님 법문을 통해 한 주를 반성하고 교훈으로 삼는 닮은꼴 독자이기도 하다.

"큰스님 법문에는 세상의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는 우주법계의 세상이치가 모두 들어 있다"는 이들 모녀는 "신문을 읽는 동안은 숨을 가다듬는 순간이고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시간이다"고 말한다. 4년전까지만해도 성당에 다니던 정씨에게 '수행한담'과 '길을 묻는이에게'코너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오랜동안 시련과 번민으로 힘들어 하다가 불교를 통해 평화를 얻게됐던 정씨에게 큰스님법문이 그 어떤 위로보다 든든한 용기가 됐던 것.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신문을 추려 모아둔 스크랩북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도필선 기자

현대불교는 독자와 함께 만듭니다

5년전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라는 사시를 걸고 출발한 현대불교신문은 그동안 종단, 신행, 문화, 사회, 학술, 분야의 심층보도와 함께 독자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지면에 담아내며 2천만 불자와 함께 숨쉬는 신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현대불교신은 교계와 사회전반에 대한 독자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열린마당', '독자투고', '제언·제보', '신행캘린더', '인사동정', '광고' 등의 코너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변하는데 망설이지않았습니다. 이제 창간 5주년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은 독자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가장 눈밝은 신문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독자와 함께 만드는 현대불교신문의 이용방법을 안내합니다.

열린마당 항상 열려있어요

종단, 복지, 문화재 및 환경보호 등 매주 교계와 사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안들을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통해 찬반 양론을 제기하고,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해인골프장 건설 문제를 집중보도해 해인사 주변의 환경보호와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 보존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 현재까지 골프장 건설 무효확인소송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언·제보 언제든 환영합니다

각종 훼불사건과 군대에서의 종교편향 사건, 방송사의 불교왜곡 등 기자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와 사건에 대해 독자들이 문제점과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제언과 제보를 통해 자칫 무관심속에 묻혀버릴 뻔한 사찰의 훼불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불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서 출발하는 코너입니다.

독자 투고 이렇게 게재합니다

독자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 입니다. 교계 현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기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 자작시, 사진 등 어떠한 형식으로도 동참 가능합니다. 원고가 게재된 독자에게는 본사에서 운영하는 도서출판 여시아문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지난해 조계종 사태때에는 멀리 미국에서 보내온 독자의 편지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기도 했고, 매주 법보시로 보내오는 현대불교신문을 감사하게 읽고 있다는 청송교도소 재소자의 편지도 이 난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신행캘린더·동정 성심껏 안내합니다

교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큰스님 법회와 경전강좌, 교양대학 수강, 사찰수련회, 신행활동, 교계인사의 활동상황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코너입니다. 신행캘린더를 통해 한 주간의 신행활동을 점검하고 정보를 얻는 즐거움을 느낄수 있습니다. 각 사찰과 신행단체 등에서 진행되는 행사일정을 팩스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보도해 드립니다.

광고·구독 신청 지금 하세요

현대불교신문의 광고난은 기사 못지 않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찰의 행사나 상품광고, 기타 구인 구직, 생활광고 등을 이용하시면 즉각 그 반응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은 현대불교신문의 각종 코너에 동참할 독자들은 전화 (02)722-4162~3, 팩스 (02)737-0698 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현대불교신문은 인터넷 부다피아를 통해 독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수렴(http://www.buddhapia.com)하고, 독자와 함께 숨쉬는 신문, 2천만 불자를 대변하는 신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게재 기사에 대한 독자의 의문이나 반론 정정요청도 보다 친절하게 실을 예정입니다.

독자와 함께 불교의 미래를 열어가는 신문,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정신적 풍요를 주고, 불교정보화세상을 앞당기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독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질책을 기대합니다.

정리=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현 대 불 교 에 바 란 다

비불자도 부담없이 접근토록

향적스님 (강화 보문사 주지)

'현대불교신문'이라는 제호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짐작된다. 기존 신문들에서 보던 종단 정치기사 일색에서 벗어나 문화 신행적 접근을 통해 젊은 층까지 흡수하려는 신선한 노력이 엿보이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본다. 하지만 무질서한 광고게재와 너무 많은 기사는 옥의 티가 될 수 있다. 한눈에 그 신문의 성격과 취향을 파악할 수 있는 독특하고 개성있는 편집과 기사발굴에 힘을 쏟는 현대불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불교자들이 부담없이 지면을 통해 불교를 접하고, 동참해 보고 싶은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낮은 곳을 지향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지면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계 매듭푸는 해답 제시

신광식 (한국불교언론인회장)

불교전문지는 어느 누구나 '현재 불교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가닥을 잡아가고 더 나아가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인도자가 돼야 한다. 얽힌 불교계의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필요한 의견을 수렴해 의식과 여건을 개선하고 정리해 21세기 불교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종교에 비해 지식인들의 참여가 적은 불교계 현실을 함께 반성하면서 현대불교신문이 새 천년의 미래상, 정신세계를 정립하는데 제 몫을 다 할 수 있길 바란다.

쉽고 재미있게 꾸몄으면

양승부 (변호사 · 제주)

현대불교신문은 종단을 포함한 불교계 소식을 폭넓게 취급해 독자들에게 불교와의 거리를 좁혀갈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었으면 한다. 기획기사나 선승들의 칼럼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불심을 발의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현대불교신문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방세계' '큰스님 수행한담' '법공양 페이지' 등이 바로 이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더 쉽고 재미있게 꾸며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려운곳 시원히 긁도록

이창경 (신구전문대 교수 · 출판학)

현대불교신문 창간호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 시원한 편집과 알찬 기사는 인상적이었다. 그것은 불교지로서 큰 변화이자 독자로서의 기쁨이었다. 5년, 지령 240호를 넘기는 동안 매주 〈현대불교〉를 받아보지만 처음의 신선한 충격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언론으로서 강한 논조가 필요할 때 서슴없이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냉엄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구태를 개혁하고, 치우침없는 논평을 통해 불교계를 향도하는 신문을 기대한다. 동시에 향후 정보매체 변화가 젊은 세대 취향에 맞는 불교의 재가공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현대불교신문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가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각종행사 미리 챙겨주길

이정경 (주부 · 대구시)

현대불교의 첫 인상은 읽을거리가 다양하고 풍부하다는 것이었다. 종단소식은 물론 큰스님 법문에서부터 학술, 교양, 문화, 신행수기에 이르는 폭넓은 내용은 불교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나의 의식을 한 차원 끌어올려준 법문이나 계송등은 꼼꼼히 메모해 두었다가 가끔 들춰보기도 하는데 그럴때마다 현대불교신문은 나를 일깨워주는 도반이다.

그러나 뒤늦은 행사안내, 시론(時論)같은 비중있는 칼럼 무게와 생동감 있는 신문을 위해 개선돼야 할 점으로 본다. 끝으로 제호 옆의 돋을광고는 여러가지 여건상 없앨 수는 없겠지만 디자인이나 색깔을 좀 더 점잖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 시각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타종교도 포용하는 자세

최재석 (부경대 대학원생)

현대불교신문은 내용면에서 읽을 거리가 많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길을 묻는 이에게'나 '생활 속의 불교' '큰스님 수행한담' 등을 통한 진리의 말씀과 '나의 수행일기' '신행담' '생활정보' '직장직능'란을 통해 생활 속의 공부를 점검하게 된다. 특히 불교의 탱화와 기독교의 성화를 비교하는 연재란은 타종교에 대한 포용력을 보여 줘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기복적 성향이 강한 광고는 정법을 지향해야 하는 공기로서 가능한한 싣지 않았으면 한다.

현대불교 창간 5주년 새롭게 태어납니다

언제나 '새로운' 부처님 가르침!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전하겠습니다

불교조각원

현대불교 창간 5주년을 맞아
더욱 새로워지는
현대불교 신문을 기대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원 장 이진형 외
직 원 일 동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807번지
전 화 : 042)483-8466

새암산업

현대불교 창간 5주년축하드리며,
새암산업은 불교용품의
대중화와 고급화에 힘쓰겠습니다.

담 당 이 정 철

패각불상 · 진주 · 염주
돌가루를 이용한 다양한 주문제작

▶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74-19 동신빌딩 2층
전 화 : 02)338-0947, 323-9038~9
FAX : 02)333-1669
E-mail : saaeam@kotis.net

선 종 사

불법 홍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창간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 원 일 동

불교용품 제작판매
각종불사 상담

▶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53번지
전화 : 02) 738-8660~1
FAX : 02)738-8662

법 우 당

현대불교 창간5주년을 축하드리며
불교도서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 표 이제우 외
직 원 일 동

▶ 서울시 강북구 수유2동 316-13
전화 : 02) 994-4437~8
FAX : 02) 994-4438

한일휴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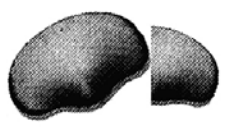
큰 스님, 자리가 불편해요...

국내 최초 인체공학적 설계

참선,명상,단전호흡 수련방석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게 합니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휴대 보관이 용이하며 기존의 좌복 방석위에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명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제품size:
가로 43cm 세로 29cm
높이 7cm
소비자 가격: 27000원
(택배비 포함)

※다량 구입시 할인가 적용

한일휴텍 Hanol Human Technology
구입문의 (02)433-7447

현대불교 창간 5주년
새롭게 태어납니다

언제나 '새로운' 부처님 가르침!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전하겠습니다

韓國佛敎太古宗

宗 正 德 菴

總 務 院 長 洪 印 谷
副院長 金 普 眼
副院長 金 智 庵

中央宗會 議長 金 一 宇
副議長 金 大 雲
副議長 柳 南 坡

司 正 院 長 金 蓮 雲
副院長 李 白 牛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92-1
TEL : 02)745-2030~2

大韓佛敎天台宗

宗正 金道勇 大禪師

總務院 **總務院長 田雲德**
總務部長 金國星 教務部長 邊春光
教育部長 金道圓 財務部長 南宮道載
社會部長 李門德 糾正部長 朴德水
宗正私書室長 朴法傳

宗議會 **監査院**
宗會議長 尹德山 **監査院長 朱正山**
副 議 長 金國星 監査委員 李法山
副 議 長 裵斗出

參議院
參議院長 朴炯喆
中央信徒會長 金裕赫
宗典譯經院長 李昌燮 宗典研究院長 金煐泰
金剛佛敎大學學長 李載昌 敎仁寺專門講院 金智福

▶ 忠北 丹陽郡 永春面 柏子里 132-1
전화 : 0444)423-7100~8 / FAX : 0444)420-7399

大韓佛敎眞覺宗

總印 覺 海
總印司書室長 惠 淨

統理院長 省 超 **宗議會議長 烋 明**
總務部長 悔 淨 副 議 長 一成和
財務部長 守 性 副 議 長 修 淨
文化社會部長 無 畏
建設部長 惠 明
總務局長 德 正 **查監院長 鎭 山**
文化社會局長 圓 明 查監部長 常 濟
布敎局長 浩 堂

敎育院長 一 靜 **眞覺大學長 碩 峯**
敎法部長 孝 奉 敎務局長 悔 省
敎育部長 觀 證

宗學研究室長 慧 淨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2번지
전화 : 02)913-0751~4 / FAX : 02)913-0755

한국불교 법화종

종 정 김혜윤 대종사
원로원장 박종화 대법사
총무원장 김광태 대법사

총 무 부 장 서혜성 스님
교 학 부 장 유금석 스님
사회홍보부장 김묘련 스님
재 무 부 장 유보광 스님
종 회 의 장 김혜명 스님
감 찰 원 장 박세장 스님
홍법교육원장 김혜천 스님
경기교구종무원장 김영장 스님
충남교구종무원장 박옥산 스님
충북교구종무원장 김병준 스님
경북교구종무원장 박 웅 스님
경남교구종무원장 서종신 스님
강원교구종무원장 서리 김묘련 스님
강원교구종무원장 서리 이법련 스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35-5 (중앙빌딩 503호)
TEL : (02)745-1590 /FAX : 742-1590

財團法人 大韓佛敎觀音宗

宗 正 李慧雄
總務院長 李泓坡

總務部長 金智攝 敎務部長 黃法明
財務部長 金鏡徹 社會部長 尹法虛
監察部長 金和嚴 組織部長 李法炫
布敎部長 柳牛耕 敎育部長 金性哲

宗會議長 鄭法輪
副 議 長 金法華 事務局長 池法項
副 議 長 金性哲

敎育院長 金東靈
修敎部長 洪智默 譯經部長 吳慧圓

▶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3
전화 : 02)763-3345, 0054 / FAX : 02)763-5851

大韓佛敎普門宗

宗 正 千慧眼

元老院長 崔慧月
總務院長 鄭慧日
宗會議長 李智環
護戒院長 曺法綜
總務院副院長 崔智性
總務部長 李法善
敎務部長 金眞雨
財務部長 吳仁太
布敎部長 李明浩

宗徒一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3가 168
TEL : 02)928-3797, 926-9752

재단법인 선학원

이 사 장 정 일
상무이사 성 문

이 사 혜운 도의 도형 성열 법진
상월 자민 성우 정수 정관
운성 명언

감 사 법운 범추

·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

▶ 재단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TEL : 02)734-9654~6 / FAX 02)734-3410

사단법인 한국불교금강선원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총재 안덕암

이사장 한정섭 부이사장 석성륜
이 사 전용만 강청작 우보문 이무선
박응천 최유수 금강심
감 사 권승득 김차예

계간 세계불교사 사장 정을수 발행인 한정섭 편집인 한수갑
월간 금강법보 발행인 한정섭 편집인 강신욱

한국불교금강선원 포교사 · 법사회
총회장 김성륜
포교사회장 고법성 포교사회부회장 김성주
법사회장 김호현 법사회부회장 강혜원
감 사 원종성 구자원 외 회원일동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1동 54-6
TEL : 02-969-2410, 962-1666
FAX : 02-969-4981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영주 창진동 336번지의 부국사의 혜안스님 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의 여성을 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1990년 부터 금년 7월 9일 까지 일본에 있었기에 일본어가 가능합니다.

1999년 7월 14일 오전 3시경 부터 7월 17일 오전 7시까지 대구에 있는 절에서 3일간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머물렀던 절의 스님에게 이 여성은 자신도 스님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7월 14일 오전 7시경 머물렀던 절에서 나갔습니다. 그 후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어딘가의 절에 반드시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여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성의 가족까지 피해가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빨리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국에 계시는 스님 및 비구니 그리고 신자 여러분, 또는 절에 관련이 되시는 여러분 부디 저에게 협력바랍니다.
이 여성이 있는 곳을 알고 있는 분은 저에게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부디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저의 감사의 마음으로 사례를 하겠습니다.)

1999년 10월 9일

◆이름 : 한수림 (韓秀林) ◆생년월일 : 1961년 12월 15일
◆년령 : 39살(단지 39살처럼 보이지 않음 4~5살정도 젊어보임)
◆주민등록번호 : 611215-2267919
◆신장 : 156㎝ (자그마한 체구에 피부색은 보통입니다)

머리카락은 길면서 파마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머리를 틀어 올려서 모자를 쓸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머리스타일을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형은 사각형 모양에 양쪽 턱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눈은 쌍거풀이 있는 눈입니다. 눈두덩이가 부운것 같이 조금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눈썹은 파랗고 좁은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였을 때는 모르겠지만 화장을 안했을때는 잘 알수 있습니다.)
약간 돼지코 같은 코를 하고 있고 입술 바로 위에 조그마한 상처가 있습니다. (화장을 하였을때는 잘보이지 않음)
웃는 얼굴이 정말로 귀엽게 보이는 여성입니다. 이후 눈 또는 코의 성형 가능성 있음.

연락처: 영주시 창진동 336번지 부국사 혜안스님
전화 0572)634-4844-5 / 011)9592-9646